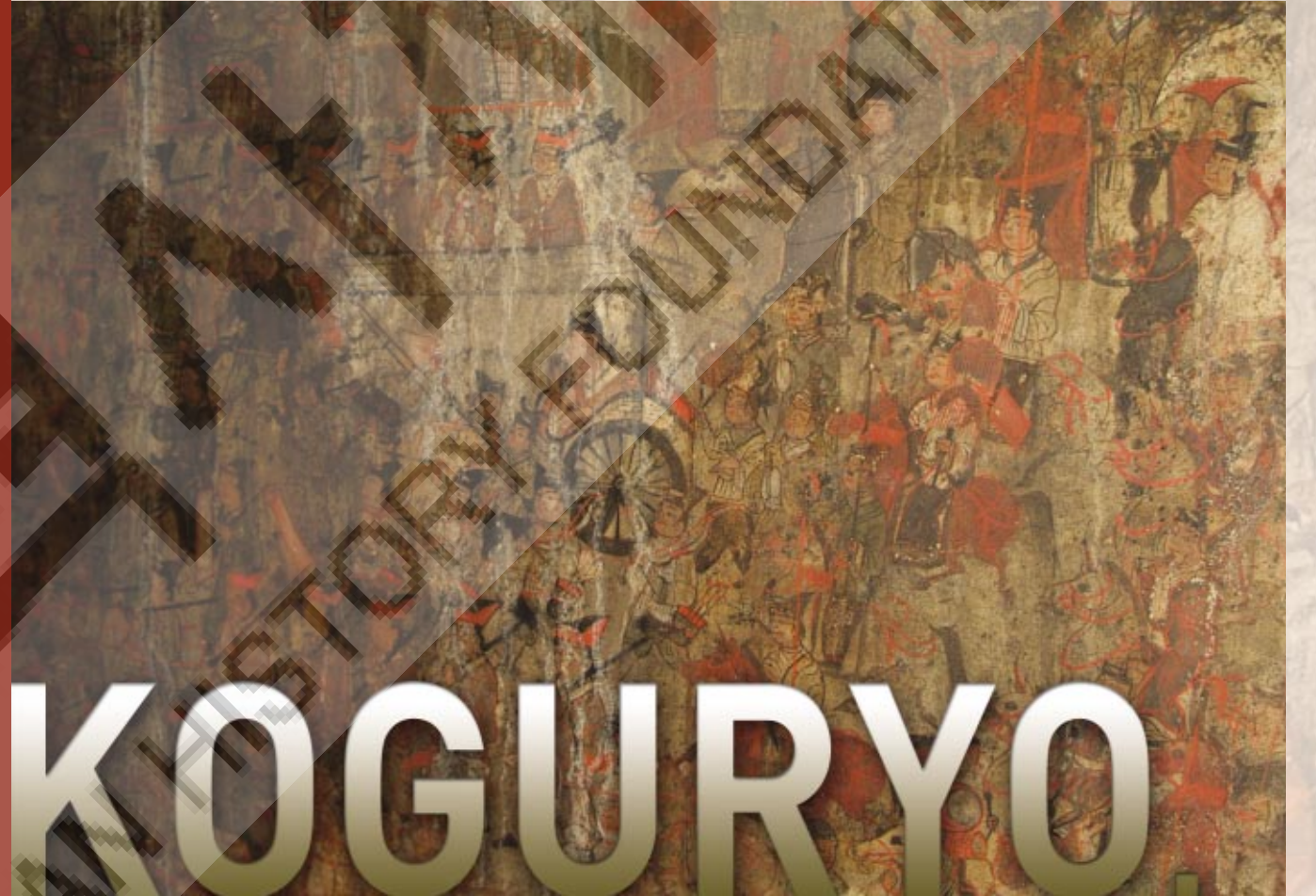




Koguryo, The Origin of Korean Power & Pride



KOGURYO

The Origin of Korean Power & Pride

고구려

ISBN 978-89-91448-83-4-03980
URL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Koguryo,
The Origin of Korean Power & Pride



高句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사말

한국인이면 누구나 고구려 벽화를 통해 고대인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이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위대했던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도록으로 만들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동아시아의 진정한 강자로서 존재하면서도 주변 나라와 교류협력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정치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적인 융성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도록을 통해 고구려인들이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보고 고구려가 우리 고대 역사의 중심에 있었음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도록속에 담긴 벽화사진 등에서 우리 선조의 힘과 기백, 미의식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고구려인들의 당시 화법으로 표현된 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edly 고구려 문화의 우수성과 그 발자취가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도록의 감상을 통해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구려 문화의 독자성을 인식함으로써 동북아 고대사의 역사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도록 제작과 관련하여 기획과 함께 원고 작성, 자료 제공 등 내용의 충실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시대적, 국제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용 덕

Greetings



Any Korean would lively picture the life of ancient people through the wall paintings of Koguryo dynast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as made a pictorial book of the wall paintings in the ancient tombs of Koguryo dynasty and is publishing it now so that the great life and culture of Koguryo people could be reviewed through the book.

Koguryo people existed as the real strong in East Asia while building up their own culture accommodating new cultures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other countries surrounding their country. Thereby Koguryo achieved cultural prosperity along with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I hope that this pictorial book could offer the opportunity for us to see how Koguryo people expressed the breath of history and culture and to reconfirm that Koguryo was in the center of our ancient culture. Also I would like you to get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power, spirit and aesthetic sense of our ancestors and the fine yet elegant expressions of the art of drawing of Koguryo people at that time from the photos of wall paintings etc contained in this pictorial book.

In addition, I hope this would help us prepare the basis of correct perception of our history by informing worldwide the excellence of Koguryo culture and its trace.

I hope this pictorial book would be utilized as a measure of education and experience that will promote the pride on our history and culture for those who appreciate it while helping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on the ancient history of Northeast Asia through the perception of the individuality of the culture of Koguryo.

I thank to the persons concerned with the production of this pictorial book who made efforts for the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with the preparation of manuscripts, data provision etc and I promise tha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ill actively keep living up to temporal and international demands and request your further interest and support.

May 2007

The president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im, Yong Deok**



북동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사말 | Greetings

고구려 역사 개관 | Outline of Koguryo History _ 7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 Life and Culture of Koguryo People _ 36

연표 | The chronological collation of East Asia during Koguryo Dynasty _ 136

그림 목록 | Figure List _ 141

한국민족사학회

민족사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역사 개관
Outline of Koguryo History

Ho-tae Jeon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Ulsan

고구려역사 개관

Outline of Koguryo History

▣ 건국

고구려 건국의 기운은 구려사람들의 한 군현 쫓아내기가 30년 만에 열매를 맺으면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토착세력들의 반발을 견

디지 못하고, 군현이 설치된 기원전 107년부터 한 세대 만인 기원전 75년 한은 현도군을 압록강 중류지역으로부터 서북쪽의 소자하(蘇子河) 방면으로 옮기고, 결국 요동 방면으로 후퇴시킨다. 이에 따라 졸본, 국내 일대에는 구려사람들의 지역별 소국연맹체가 성립된다. 이 소국연맹체들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소국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한 상태로 토착 소국들이 상호의 영역과 자치력을 인정하면서 공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부여를 떠난 주몽 일행이 비류수 유역에 이를 즈음 송양국(松壤國)은 이러한 소국연맹체들 가운데 하나로 비류수 유역 소국연맹체 대표를 자임하던 나라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원부여와 동부여를 떠난 무리들이 구려 땅으로 계속 흘러들면서 압록강 연변 구려사람들의 소국 및 소국연맹체의 규모는 커지게 되었다. 구려사람들의 땅에서 쫓겨난 한 군현은 언제라도 되돌아오려 하였고, 오랜 역사와 만만치 않은 세력을 과시하던 북방의 부여도 한의 군현이 떠난 구려 땅을 다시금 영향권 안에 두려고 애썼다. 남쪽 땅의 낙랑(樂浪) 역시 현도군이 떠난 빈 자리에 군현의 세력을 심을 기회를 수시로 엿보는 듯 했다.

이 무렵 부여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비류수 유역에 이르렀다. 졸본일대를 다스리던 송양왕은 이 무리를 이끌고 온 인물이 부여왕실 출신이며, 뛰어난 활 솜씨로 말미암아 명궁을 뜻하는 '주몽'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송양왕은 주몽을 왕녀 소서노와 결혼시키면서 주몽일행이 졸본천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을 허락하였다. 기원전 1세기 중엽, 압록강 중류로 흘러드는 비류수 유역에서 일어난 '부여 이주민사'의 한 자락이다.

졸본부여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이들 부여 이주민의 정착생활은 오래지 않아 새 나라 '고구려'의 건국으로 이어졌다. '나국'으로 불리던 압록강 중류 일대의 작은 나라들 가운데 규모와 힘에서 앞섰던 다섯 나라가 구려 땅을 노리는 주변 세력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주몽집단이 흩어진 이와 같은 집단적 의지의 구심점이 되었고, '대나국(큰 나국)'이라 불리던 구려 땅의 다섯 세력은 힘을 모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하고 홀본의 '주몽왕'을 새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마침내 고구려의 건국이 선언된 것이다.

▣ Foundation

Signs of Koguryo's founding started to show 30 years after Guryo natives toppled *gun* and *hyeon*, commanderies set up by the Chinese Han Dynasty. In 107 B.C., Han, which failed to confront the Guryo natives, moved *Hyonto gun*, an administrative district located between the mid-area of the Amnok river and Soja river in the north western area, to the upper part of the river and to the Liaodong peninsula (east of Liao). As a result, alliances of small ethnic states of Guryo were formed in Jolbon and other regions. Although these alliances entrusted the most powerful ethnic state with representational authority, they also recognized the autonomy and territory of each state. When a group led by Jumong, the legendary founder of Koguryo, left Buyeo and reached the Biryusu region, Songyangguk ("guk" means state) was designated as the leader of the alliances in the Biryu region.

The number of ethnic states and the size of the alliances located in the Amnok River grew larger as people escaped Proto Buyeo and East Buyeo to the land of Guryo. The Chinese Han commandery *gun* and *hyeon*, expelled from the land, attempted to return, and North Buyeo struggled to take over the land. In addition, Nangnangguk located in the southern region was looking for a chance to occupy the land to establish its own *gun* and *hyeon*.

Around that time, the Jumong group from Buyeo had reached Biryusu. King Songyang who had ruled the Jolbon realized that the leader of the group was from the Buyeo royal family and was the very person named Jumong whose nickname meant "skilled archer." The king allowed the group to occupy nearby a Jolbon stream; he also married his daughter, Sosuhno, to Jumong. This is a part of the migration history of Buyeo in mid-1 B.C. in the Biryusu area which converges into the Amnok River.

Before long, the group's settlement in the corner of Jolbon led to the foundation of Koguryo, a new state. That is, a group of five small ethnic states called "*Naguk* (Na state)" superior to others in the mid Amnok River cooperated with one other and took over Guryo sensing enemies in the neighboring area. Jumong was the leader, and five powers in Guryo called "*Daena-guk* (big na state)" appointed him as the first king of a new state in Holbon (Jolbon).

구려 땅의 커다란 다섯 세력과 보다 작은 세력들 여럿이 모여 나라를 이루었으므로 새 나라 고구려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어우러짐과 하나됨이었다. 크고 작은 세력들 사이에 빠치고 등 돌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나라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려웠다. 언제 나라가 조각 나 다시금 한이나 부여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한 해 한 번씩 온 나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큰 모임, 알게 모르게 흩어졌던 질서를 다잡고 자신들이 새 나라 고구려의 백성임을 되새기는 큰 만남의 장, ‘동맹제’를 열게 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늦가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맹’ 때에는 고구려의 모든 귀족과 대인(大人)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각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라의 중대사가 논의되었고 또 결정되었다. 반역을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주요한 범죄에 대한 판결도 이때에 이루어졌다. 신성한 혈통을 지닌 주몽왕을 중심으로 고구려라는 새 나라가 세워지던 과정이 모든 고구려의 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강과 그 곁의 들뜰에서 재연되었다. 제의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물자들도 이때에 거두어졌다.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동맹제가 끝나면 고구려의 귀족과 백성들은 신성영웅 주몽이 세운 성스러운 나라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고 각기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다.

주몽왕의 뒤를 이은 유리명왕(琉璃明王)은 기원3년 높고 험한 산들로 둘러싸였지만 이웃한 선비족이나 부여로부터 침입을 받기 쉬울 뿐 아니라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한계를 안고 있는 졸본을 떠나 ‘국내’로 수도를 옮겼다. 기원전 6년 동부여군의 침공을 받은 데 이어, 동부여에 인질로 가는 것을 거부했던 태자 도절이 죽는 등 힘든 일들을 겪은 뒤의 일이다. 방어에도 적합하고 압록강을 이용한 교통상의 이점도 안고 있는 국내성을 서울로 삼은 뒤 고구려는 다시금 적극적인 대외정복에 나선다. 물론 천도 뒤에도 고구려에 대한 부여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대무신왕(大武神王)은 즉위하자 곧바로 시조 주몽을 모시는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워 민심을 하나로 모은다. 고구려의 빠른 성장을 염려한 부여의 침입을 물리친 뒤, 고구려왕은 동부여에서 보내온 머리 하나에 몸통이 돌인 까마귀를 오히려 고구려가 부여를 통합할 징조로 해석하며 동부여 원정군을 일으킨다. 정복에는 실패하지만 대소왕을 전사시키는 등 동부여의 기세를 꺾는 데에 성공한다. 부여마저 기세가 꺾이자 만주 남부와 한반도 북부에 있던 예맥 사람들의 나라들 가운데 신흥 국가 고구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호동왕자의 활약으로 남방의 낙랑국이 정복된 것도 대무신왕 때의 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왕자 호동이 옥저 지방에 노닐다가 낙랑왕 최리를 만났다. 최리가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사람이 아니다. 혹 북국신왕(北國神王)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데리고 돌아와 사위를 삼았다. 그 후 호동이 돌아와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이르되 ‘너의 나라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피리를 부수면 내가 예로써 맞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겠다.’ 낙랑에는 이상한 북과 피리가 있어 적병이 오면 저절로 우는 까닭에 부수게 한 것이었다. 최씨 딸이 잘 드는 칼로 몰래 무기고에 들어가 북의 가죽면과 피리의 주둥이를 부순 뒤 호동에게 알렸다. …최리는 북과 피리가 울지 않으므로 방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병사가 들이 닦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딸을 죽이고 나와 항복하였다.’

고구려가 국가로서의 체제와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서 대내국으로 불리던 나부(那部)의 지배자에게는 패자(沛者), 나국의 대표자에게는 우태(優台), 나 집단 규모의 유력자에게는 조의(纛衣) 등의 관등이 주어졌다. 고구려 안의 크고 작은 집단의 유력자들은 ‘가(加)’로 불렸는데, 이들의 모임인 ‘여러 가(加)들의 회의’ 곧

The most important issue was harmony and unity among the five big powers that had gathered together to form the state. Each knew well that if there was any backstabbing or rivalry among them, their hard-won state could be easily divided, disintegrated and once again under Buyeo control. And so to ensure their state's future, a *Dongmengje*—a state congress in which aristocrats and *Daeins* (leaders) met to consult on state affairs, make decisions, and pass judgment on severe crimes—was held yearly nearby the Amnok River. Goods and items necessary for rituals and national administration were also collected at the congress. The *dongmengje* shows both how Koguryo was founded with Jumong at the head and the pride the people took in their state.

In 3 B.C., King Yurimyeong, King Jumong's successor, left Jolbon because even though it was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the area was still vulnerable to attacks from Seonbi tribes and Buyeo; it also had limitations in terms of its potential to develop as a large-size city. Thus the capital was moved to "Gungnae." The move came as the state was being attacked by East Buyeo forces in 6 B.C. and upon the death of *Taeja* (the Crown Prince) *Dojul* who refused to become a hostage of East Buyeo. Even with the move, Koguryo continued to move forward to conquer other regions backed by the excellent defense capabilities and superior transport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Amnok River) of the new capital. Buyeo, however, continued to suppress Koguryo even after the move.

King Daemushin upon acceding to the throne built the tomb of King Dongmyeong (Jumong) to gain public support. After having deterred the attack from Buyeo which was concerned about the fast growth of Koguryo, the king led expeditionary forces to strike East Buyeo, interpreting a crow with two bodies and one head as a sign that Koguryo would occupy East Buyeo. Even though the strike was a failure, the king did succeed in discouraging East Buyeo from coming down to his state by killing King Daeso, the king of East Buyeo. After East Buyeo lost its grip, the Yemaek tribe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lost its power. The Yemaek had continually attempted to obstruct the outward growth of Koguryo.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Daemushin when state forces led by Prince Hodong conquered Nangnangguk in the south. Articles in *Samguksagi* describe the sad love story of Princess Nangnang and Prince Hodong.

"When Prince Hodong was in the Okjeo region, he met King Choi Ri of Nangnang state. The king said, 'You do not seem an ordinary person. Are you a son of the Divine King of the northern state (Koguryo) by any chance?' He took the prince as his son-in-law. After the prince returned to his state, he sent a messenger secretly to his wife with the following message: "Go into the arsenal of your state and tear down the drum and the trumpet. Otherwise, I will not recognize you as my wife." He knew that the drum and the trumpet in the Nangnang arsenal automatically played whenever an enemy approached. So the princess, following her husband's command, destroyed the musical instruments. The king then lost the war because he could not hear the sound of the drum and the trumpet. Later the king killed his daughter and surrendered."

As Koguryo was shaping into a state with its own system, rulers (called *Daenabu*) of *Nabu* (political unit), and *Naguk* (Na state which ruled over many Na groups), *Na* groups were given official positions called *Paeja*, *Utae* and *Joui*, respectively. Influential people within the state were called *Ga* (加). *Jaega-*

‘제가회의(諸加會議)’는 한동안 국가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제가회의에서의 발언권은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부여되었다. 회의에 참석하는자들 가운데 세력이 큰 대가(大加)들은 책()을 쓰고, 세력이 작은 소가(小加)들은 고깔처럼 생긴 절풍(折風)을 써서 상대의 신분과 지위를 알게 하였다.

왕권이 아직 미약한 단계였으므로 나부의 유력한 대가들은 사자(使者), 조의(羸衣), 선인(先人) 등의 관원을 별도로 거느리고 내부의 여러 집단을 통제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다. 누군가를 대신해 심부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자는 대가들의 명령을 받아 여러 집단을 통제하고 물자를 거두는 일을 담당했다.

6대 태조왕(太祖王)은 대외정복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고구려군으로 하여금 동쪽으로는 개마고원을 넘어 동옥저와 북옥저로 나아가게 하고 서쪽으로는 현도군과 요동군의 도시들에 말발굽이 미치게 한다. 왕이 직접 나선 정복전쟁이 계속되고 정복지가 점차 확대되자 왕의 권력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대해졌다. ‘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사물을 보았다.’고 전하는 태조왕은 이름 그대로 고구려를 ‘다섯 대나국의 모임’에서 ‘왕국’으로 전환시킨 태조가 되었다.

이제 나부들은 더 이상 나라 안의 나라로 행세할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의 나부 안에서 왕과 비슷한 권력을 누리던 대가들도 나부 안의 관원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왕을 나부를 초월한 존재로 떠받드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태조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이후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태조왕대에 시작된 계루부 고씨의 왕위 독점은 고국천왕(故國川王)대에는 왕에게서 그의 아들로 왕위가 세습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단계로 나아간다.

2세기 말에는 정복전쟁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자주 부역에 동원되거나, 공납물을 마련하느라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 천재지변 등으로 농사를 망쳐 유랑걸식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194년 가을, 사냥을 나가던 고국천왕은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 그 까닭을 묻는다. 젊은이가 ‘저는 낱품을 팔아 어머니를 모시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수 없어 곡식 한 줌도 얻을 수 없기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고 답하자 왕은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옷과 음식을 주어 그를 위로한다. 이어 관리들로 하여금 홀로 서지 못하는 자들을 널리 구제하고 돌보게 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갚게 하는 진대법(賑貸法)의 실시를 명한다.

고국천왕의 뒤를 이은 산상왕(山上王)은 고국천왕의 왕비였던 형수 우씨와 결혼했다. 우씨는 아직까지 형제 상속의 관행이 남아 있던 고구려에서 제1 왕위계승권자인 고국천왕의 맏동생 발기(勃起)를 제치고 연우(延虞)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이다. 물론 형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고구려의 오랜 관습이었다. 그러나 2대에 걸쳐 왕비로 군림했던 우씨가 죽으면서 전 남편 고국천왕 곁이 아닌 산상왕 곁에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데에서 알 수 있듯이 3세기 초쯤에는 형사취수제(兄死取嫂制)도 서서히 고구려에서 사라진다.

3세기에 들어선 지 오래지 않아 중국은 다시 분열되어 삼국시대에 접어들었다. 동천왕(東川王)은 중국의 정세가 불안정함을 보고 요동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였다. 이미 중무장한 철기(鐵騎) 5천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된 고구려로서는 분열된 중국의 힘이 미처 닿지 않는 요동 정복도 시도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까닭이다. 242년 고구려는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위(魏)의 장수 관구검(奚斤)의 역공을 받아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이 함락되고, 동천왕과 귀족들은 뒤쫓는 위군을 피해 동해안의 북옥저까지 달아나야만 했다.

중국의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하였던 위와 맞서 싸울 정도로 과감했던 동천왕이 죽자 신하들 가운데에는 따

hoeui (a meeting of many Ga) served as the decision-making group. Of course, the voting right was grant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fluence. *Daega* (大加) adorned unique hats called *chaek* () and *Soga* (小加) and those with less influence wore scone-shaped hats called *jeolpung* (折風) so that the status and official position of each participant were easily recognizable.

However, the royal authority weakened which in turn led influential leaders of Nabu to gain official positions called *Saja* (使者), *Joui* (轟衣), and *Seonin* (先人) in the main political system. *Saja* were messengers for those in power and collected goods and items following the orders of *Daega*.

The sixth King Taejo pushed hard to conquer other countries and drove Koguryo forces beyond the Gaema plateau to East Okjeo and North Ojkeo. He also commanded his army to the cities of Hyeontogun and Liaodong-gun in the west. As the wars continued, the size of occupied territory expanded. Accordingly, the royal authority became stronger than ever. The 6th king, said to have been “born with his eyes,” became the first king to transform a state of five Naguks into a monarc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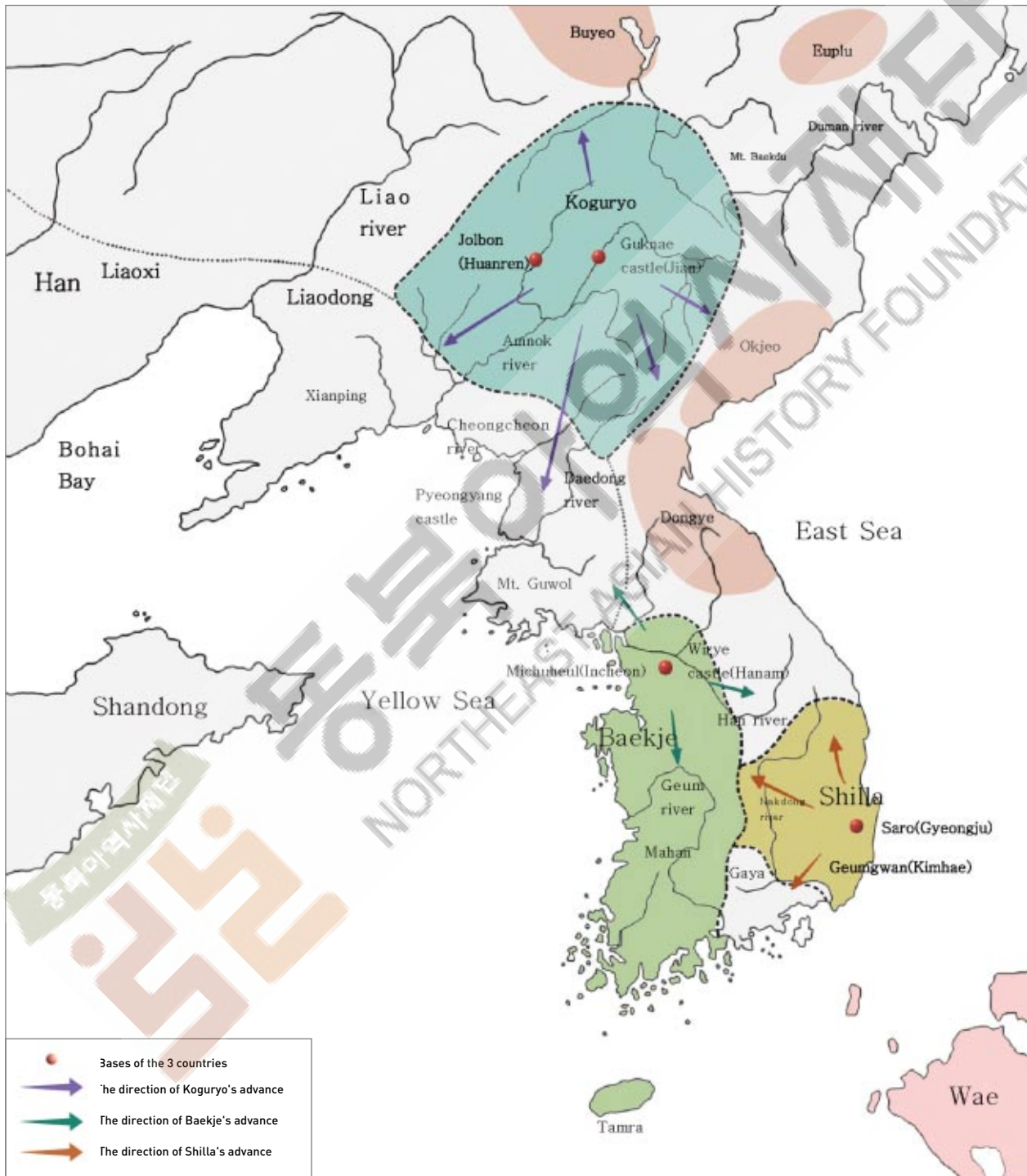
Now the Nabu could not exercise their power as a state within the larger state. The leaders who once enjoyed power equivalent to that of Nabu rulers had no choice but to serve the king of Koguryo while they still had their own men. Since the descendents of King Taejo were considered eligible for the throne, the Gyerubu Go family made efforts to monopolize the throne. That is, during the reign of Goguk Cheonghwang (Emperor Goguk), the family took steps to ensure that a son of the king acceded to the throne.

At the end of the 2nd century, a growing number of people—burdened by local tributary payments known as “*gongnahp*” and often displaced and poverty-stricken due to natural disasters—were recruited for labor related to conquering missions. In the fall of 194, King Gogukcheon on his way to go hunting encountered a young man crying on the street. When he stopped to ask him why he was crying, the young man replied: “I used to make money on a daily basis to support my mother but now I can’t even get a handful of grain because of the poor harvest this year.” The king blamed himself and gave the man clothes and food out of sympathy. Afterwards, he ordered his subordinates to implement a system called *jindaebup* under which poor people could borrow grains in spring that they would pay back after that year’s harvest.

When King Sansahng took over the state, he married Ms. Woo, Queen of his deceased brother King Gogukcheon. It was Ms. Woo who helped Yeonwoo (King Sansahng) to become king over Balgi who was the brother of King Gogukcheon and the first successor to the throne under a system where brothers succeed the royal authority. In fact, the practice in which a younger brother takes the deceased brother’s wife as his wife and supports his brother’s bereaved family was a long tradition of the state. However, when Ms. Woo died, she left a will stating that she wanted to be buried next to King Sansahng’s grave, not her previous husband’s. This indicates that the tradition disappeared in the early 3rd century.

Long before the 3rd century, China was divided and entered into the era of three states. King

라 죽으려는 자가 많았다. 새 왕인 중천왕(中川王)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자, 장례일에 왕의 무덤에 이르러 스스로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한다. 3세기 전반에도 고구려에는 순장의 관습이 남아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다.



지도1. 성립과 성장 (Foundation & Growth)

Dongcheon, who witnessed political instability in China, was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advance into Liaodong. Koguryo, which had become strong enough to grow 5,000 warriors equipped with iron arms, wished to conquer the peninsula which, then, was out of China's reach. In 242, the state attacked Xianping on the peninsula to no avail because Commander Gwangugeom of Wei was already waiting for the Koguryo armies. The soldiers retreated, Guknaeseong (the capital of Koguryo) and a fortress called *Hwando fortress* collapsed, and King Dongcheon and the aristocrats escaped to North Okjeo in the east coast.

The king was brave enough to fight back against Wei, the most powerful of the three states in China, but unfortunately died in the war. Many subordinates also killed themselves after him. When the new King Jungcheon attempted to prohibit such suicides, the former king's followers buried themselves in the tomb of the deceased king on his funeral day. This was possible because Koguryo had a custom of burying the living with the dead in the early 3rd century.



□ 성장

3세기 후반부터 고구려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체제 수립을 향해 나아간다. 왕은 왕권을 바탕으로 나부를 더욱 강력히

통제하려 하였고, 이미 독자적인 관원조직을 가동시키기 어려워지고 있던 나부의 유력자들로서는 왕에게 보다 가까운 귀족, 곧 측근세력이 되는 것이 유리해졌다. 나부 아래에 존재했던 관원조직은 국가조직의 일부로 흡수되었고, 국가기구가 나부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나부의 유력자들은 자신이 누리던 권력과 부를 보장받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 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도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나부의 유력자들이 왕도에 거주하는 중앙귀족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제 나부 유력자에게 주어지던 이전의 관등(官等)은 사라지고, 형계(兄系)와 사자계(使者系) 중심의 관등제가 새로이 성립되었다. 나부의 유력자들은 세력의 대소에 따라 형계 관등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사자계 관등은 왕권 중심의 집권적 국가체제의 실무를 수행할 인력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형계와 사자계 관등은 왕권 중심의 일원적 관등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나부는 보다 세분화된 지방행정구역으로 바뀌었다. 강을 따라 형성된 골짜기를 단위로 ‘곡(谷)’이라는 행정구역이 설정된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이다. 주요한 교통로를 따라 행정구역이 설정되고 성곽이 축조되기도 하였다. 주요 행정구역별로 지방관이 파견되고, 군대 주둔이 이루어진 것도 이 무렵이다. 4세기 초의 고구려는 성곽을 중심으로 하는 입체적 방어체계와 일시에 수만 명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제도를 갖춘 나라로 모습이 바뀌게 된다.

317년 서진(西晉)이 멸망하고 중국 북방 유목민들의 이동과 정복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북중국은 큰 혼란에 빠져든다. 이른바 5호(胡)16국(國)시대의 시작이다. 미천왕(美川王)은 이 틈을 타 동천왕 이후 숙원사업처럼 여겨졌던 요동 진출을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한다. 미천왕 을불은 큰아버지 봉상왕이 아버지 돌고에 이어 자신까지 죽일까 두려워 압록강 일대의 떠돌이로 살아간 적이 있다. 왕위에 오르자 오래지 않아 낙랑과 요동을 잇는 통로로 압록강 하구에 자리 잡은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는 떠돌이 시절 압록강 일대의 교통로를 훤히 익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낙랑, 대방과 요동 일부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구려군에 항복한 것도 교통의 길목을 선점한 미천왕의 전략이 주효한 까닭이다. 330년대에는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부여도 병합하였다. 미천왕 시대에 이르러 한반도 서북의 곡창지대와 송화강 유역의 대평원이 모두 고구려의 영역이 된 것이다. 미천왕의 즉위 전 떠돌이 시절 고생담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처음에 봉상왕이 아우 돌고가 탄 맘을 품은 줄로 의심하여 그를 죽이자, 그의 아들 을불은 해를 입을까 두려워 도망해 나와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였다. 음모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심하게 부렸다. 집 곁 연못에서 개구리가 시끄럽게 운다고 하여 밤에는 기와조각과 돌을 연못에 던져 개구리 소리가 나지 못하게 하고, 낮에는 나무를 하게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을불이 너무 힘들어 한 해 만에 그 집을 나와 동촌 사람 재모와 함께 소금장사를 하였다. 배를 타고 압록에 이르러 소금을 지고 내려 강동 사수촌 사람 집에 머물렀다. 그 집 노파가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한 말 정도를 주었다. 또 달라고 하므로 주지 않았다. 노파가 화가 나 몰래 신을 소금 속에 넣어 두었다. 을불이 이를 모르고 소금을 지고 길을 갈 때에 노파가 쫓아와 신을 찾으며 신을 훔쳤다고 압록태수에게 고소하였다. 태수는 신발값으로 소금을 받아 노파에게 주고 을불에게는 불기 맞는 형을 내린 뒤 풀어주었다. 이 때 을불은 얼굴이 파리하고 옷이 남루하여 남이 보고 왕손인 줄 몰랐다.’

□ Growth

In the late 3rd century, Koguryo started to cement its central power based on its strengthened royal authority. Kings made strenuous efforts to control *Nabu* based on their power. Leaders of *Nabu* who could not mobilize their own officers were forced to stay closer to the king. The officers were absorbed into a part of the state organization in which they could control the people in *Nabu*.

Leaders of *Nabu* came to actively engage in the state organization to gain the power and wealth which they had previously enjoyed, and accordingly moved to the capital. The official ranks granted to the leaders of *Nabu* were discarded and the new official rank system of *Hyeonggye* (Hyeong line) and *Sajagye* (Saja line) was implemented. Afterwards, the two-line system was integrated into the uniform rank system.

Old *Nabu* was divided into a number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Gok*,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as formed based on a unit of valleys along the river. Districts were set up along major roads and new fortresses were built. Local administrators were dispatched to major districts and army forces stationed in those districts. Koguryo in the early 4th century was transformed into a state equipped with a multi-dimensional defense system focused on the fortress and a draft system that could mobilize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at once.

In 317 when Western Jin collapsed, the northern nomadic tribes in China started conquering missions in earnest, and North China fell into chaos.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Sixteen Kingdoms Era*. King Micheon took a chance and prepared once again to advance into Liaodong, a long-desired goal of his predecessors. King Micheon once lived homeless nearby the Amnok River fearing that King Bongshang, his eldest uncle, had a plan to kill him after killing his father. As soon as he came to power, he occupied Xianping situ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river that links the Nangnang and Liaodong.

His past experiences living nearby the river helped him to take over the Liaodong region as he was very knowledgeable of the area's geography. The occupation over Nangnang, Daebang and part of Liaodong was successful due to his strategy to block major roads. Thus, those three states surrendered with little resistance. In the 330s, King Micheon annexed Buyeo located nearby the Songhua River. It was during his reign that the territory extended to a food basket in the north and west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 great plain close to the Songhua River in China. His experience as a beggar prior to coming into power is well described in articles in Samguksagi.

“When King Bongsahg killed his brother Dolgo fearing that his brother was turning against him, Dolgo's son, Eulbul (King Mecheon), escaped the family out of fear and became a servant in Eummo's house in Sushilchon. Eummo, not knowing who Eulbul was, treated him very harshly. For instance, at night, he told the deceased prince's son to throw pieces of roof tile and stones into a pond to stop the frogs from croaking. During the day, he had the poor son chop firewood without a break. Eulbul had no choice but to run away from the house and sell salt with Jaemo from Dongchon. He unloaded salt when he arrived at the Amnok River and stayed at a house in Sasu-chon in the Gangdong region. When the old lady of the house in which he was staying asked him for a certain amount of salt, he gave it. But when she asked him over and over, he refused. In revenge, the



그림1. 산성하고분군 전경 (Sanseongha Tombs)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고구려 사람으로 살았던 이 경험이 왕위에 오른 을불에게는 나라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가 발전의 전략을 세워 실행해 나가는 데에 더 없이 큰 보약이 되었을 것이다.

고조선과 부여의 옛 땅을 아우른 미천왕이 서쪽으로 눈길을 돌릴 즈음, 요동은 선비족의 일파 모용부가 세운 전연의 땅이 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 산둥과 하북, 하남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후조(後趙), 선비(鮮卑)의 다른 일파인 우문부(宇文部), 단부(段部) 등과 연합하여 전연을 협공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도성마저 함락당하는 위기를 맞는다.

미천왕의 사후 고구려의 요동 진출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고국원왕에게 넘겨졌다. 4세기 중엽 고구려와 선비족의 모용씨가 세운 전연(前燕)은 요동과 부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다. 전연은 선불리 중원 진출을 시도하다가 고구려에 뒷덜미를 잡히고 싶지 않았고, 고구려로서는 수도 국내성으로의 길목을 지키면서 서방 진출의 교두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이다.

342년 전연의 모용황이 크게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고국원왕은 부여를 지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수도를 지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고구려가 길이 평탄한 부여성 방면의 북로(北路) 수비에 치중할 것을 내다 본 전연군이 험한 남로를 넘어 국내성으로 직접 진격한 까닭이다. 왕궁이 불에 탔고 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졌으며 왕의 어머니와 왕비, 5만에 이르는 많은 백성이 전연으로 붙잡혀갔다.

전연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자 고구려는 서쪽 국경은 당분간 고정시키는 대신 남쪽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전환에는 전연과 계속 맞대응 할 경우, 전왕의 시신을 돌려받고 붙잡혀간 왕모와 왕비를 송환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369년 현재의 황해도 남부까지 내려갔던 2만 명의 고구려군은 북방진출을 도모하던 백제군과 맞닥뜨려 크게 패하고 만다. 오히려 371년에는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 근구수 왕자가 이끄는 백제의 북방 정벌군이 고구려군을 패배시키며 평양성까지 치달아 올라오는 사태를 맞는다. 진두에 나서 이를 막던 고국원왕은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만다.

고국원왕의 전사를 계기로 고구려는 고국천왕시대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에 들어간다. 오랜 기간 영토 확장은 계속되고 백성들은 크게 늘었으나 몸집이 커진 나라를 어



그림2. 천추총 (Cheonchuchong)

old lady put her shoe in the bag of salt without his knowing. When he got up to leave, the woman ran after him accusing him of stealing her shoe. She filed charges against him with the governor in the Amnok area. The governor ordered Eulbul to give some salt to compensate for the lost shoe and to be whipped on his buttocks and released. Nobody knew he wa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because he looked so poor."

This experience would help him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tate, draw up national strategies for its development and implement those strategies.

King Micheon, who took over the territory of Gojoseon (the first state on Northeast Asia) and Buyeo, then turned his eye westward to the Liaodong region which at that time was occupied by a state called Former Yan (前燕) founded by Moyongbu of the Seonbi tribe. Koguryo joined forces with Latter Chao (後趙) that occupied the Shandong region and north and south of the Yellow River, and Wumunbu (宇文部) and Danbu (段部), other sects of the Seonbi, but in the end failed to capture Liaodong. The capital was then destroyed by Former Yan.

After the death of King Micheon, the national task to advance into Liaodong was passed over to the king's successor, King Gogukwon. In the mid-4th century, Koguryo and Former Yan had small and big skirmishes with each other to take over the Liaodong region and the Buyeo region: Former Yan did not want to be stricken by Koguryo when it moved forward to the mid-land; and Koguryo wanted to keep the route toward Gungnaeseong and maintain its bridgehead to the west.

In 342, Murong Huang of Former Yan waged a war against Koguryo. King Gogukwon succeeded in keeping Buyeo intact but failed to protect the capital. Former Yan forces had predicted that Koguryo would defend even the northern road leading to Buyeoseong. And so, the forces directly advanced into

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에 따른 조치는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왔음을 새 왕과 귀족들이 새삼 깨닫게 된 까닭이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소수림왕은 시대와 국력에 걸 맞는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서방의 문화와 철학, 종교가 하나로 버무려진 불교가 372년 고구려에 공식적으로 수용되었고, 나라 운영을 책임질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고급교육기관인 태학이 세워졌다. 중국왕조들의 통치제도를 법률적으로 정비한 율령이 반포된 것도 소수림왕 통치 초기의 일이다. 고구려로 하여금 왕을 중심으로 두고 국가의 모든 정책이 세워지고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이념이나 제도들이 마련된 것이다.

소수림왕의 뒤를 이은 고국양왕은 나라 사람들에게 불교를 잘 믿어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왕실의 조상신들을 모신 사당을 정비하게 하였다. 귀족가문들이 더 이상 천손(天孫)을 자처하지 못하게 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왕실만이 신성한 권능을 지닌 천손족(天孫族)이라고 표방할 수 있었고, 유력한 귀족가문은 신성한 왕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전통사상을 활용하여 왕권의 권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를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무대의 주역으로 뛰어오르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일단 마무리 되었다.



지도2. 3세기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 in 3rd Century C. E.)

Gungnaeseong from the bumpy southern route. The result was that the royal palaces were burned; the tomb of King Micheon excavated; and the king's mother and the queen along with 50,000 others were taken hostage by Former Yan.

Koguryo, defeated by Former Yan, decided to expand its territory to the south while keeping its westbound border in place. Its foreign policy changed because the deceased king's body was not returned to the state and his mother and wife continued to be held hostage by Former Yan. The 20,000-strong Koguryo force lost badly in a war against Baekje forces wanting to move forward to the north. The Baekje forces led by Prince Geungusoo and his father, King Geunchogo, went northward to defeat the Koguryo forces and came down to Peyongyangseong. Koguryo's King Gogukwon led the forces but was killed with arrows during the war.

The king's death caused the state to review and revise its long maintained state system. In particular, the new king and aristocrats became aware that it needed more than stop gap measures if it hoped to successfully run a state with such a growing population.

King Gogukyang, who followed King Sosurim, decided that the state should become more fit for the era and for its level of power. Consequently, the new king officially accepted Buddhism and a combination of western culture, philosophy and religion in 372, and established Taehak, a school to foster capable bureaucrats. It was during his early reign that he declared the Yulryeong statute that fine-tuned the Chinese royal ruling system. Now, a ruling ideology that focused on the king and other institutions was finally established to prepare and implement state policies effectively.

King Gogukyang, the younger brother of King Sosurim, encouraged his people to have faith in the new state religion and put all royal shrines in good order. He also discouraged aristocrats from claiming themselves as divine entities. As such, only the royal family was considered a divine entity during his rule and aristocrats accepted that they had been blessed by the sacred royal family. The king reinforced the royal authority by using traditional perceptions. Thus, the initial steps to make Koguryo a leader in East Asia had been taken.

▣ 팽창

광개토대왕 시대는 5호16국시대라 불리던 북중국 분열시대 가운데 특히 혼란이 심했던 때이다. 북중국의 한쪽 지역에 밀려든 흉

노, 선비, 갈, 저, 강 등등 다섯 이민족이 번갈아, 또는 동시에 세웠던 나라가 120년 동안 16개였고, 이 가운데 광개토대왕 재위 당시에 존재했던 나라만 7개였다. 이들 북방 이민족 출신 왕조들은 때로는 북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 때로는 단순한 생존 유지 차원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힌 외교관계를 맺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한 전쟁과 동맹이 되풀이되었고, 기존의 강국이 새로운 강자로 대체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났다. 중국의 하북, 요녕 지역에 세워진 나라들은 동방의 강자 고구려를 제압한 다음 중국의 중심, 이른바 증원으로 진출하려고 애썼다. 때문에 서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애쓰던 고구려와 이들 왕조들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고국양왕의 아들 담덕왕자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백제 공격에 나선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숙적 백제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의 고구려군이 한강 북쪽의 백제 영토를 유린하고, 한강 하류의 요새 관미성을 함락시킨 데 이어 한성마저 포위하자 백제 아신왕은 '앞으로 길이 고구려를 섬기겠다.'는 맹세를 하고 많은 인질을 넘겨준다.

백제를 제압한 데 이어, 서북으로 거란, 동북으로 숙신 정벌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후연(後燕)이 버티고 있는 요동으로 눈길을 돌리려는 광개토왕에게 남쪽의 신라로부터 구원군을 요청하는 사절이 올라온다. 400년 백제의 후원을 받은 가야·왜 연합군이 신라를 침공하여 서울 금성(경주)을 포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고구려군 5만이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간다. 가야·왜 연합군이 궤멸되고 가락국의 본거지(김해)가 쑥밭이 되자 많은 수의 가야인이 일본열도로 집단 이주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때부터 금성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게 되고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국이 된다.

남방 평정을 마친 광개토왕은 400년 이후 요하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고 있던 후연에 대한 정벌을 시작한 다. 요동 공략이 이루어지고 요하 너머로 군사작전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 때 후연의 반격을 받기도 하지만 고구려는 결국 후연을 제압하고 요하 너머로까지 영토를 확대하는 데에 성공한다.

22년에 걸친 재위기간 동안 광개토왕은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진정한 강자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광개토왕시대의 고구려군은 서북으로는 대흥안령산맥 동쪽 언저리 거란사람들의 유목지대에 이르렀고 서로는 요하를 넘었다. 동으로는 동만주의 삼림지대를 지났고 남으로는 한강과 낙동강에 다다랐다.

광개토대왕 시대의 고구려군은 더 이상 귀족들이 이끄는 '부' 소속 군대의 연합체가 아니라 왕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중앙 직속군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왕이나 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대로 재편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시대의 고구려군은 보병, 기병, 수군으로 세분되어 훈련받았으므로 전투능력이 크게 높아진 상태였다.

또한 당시 고구려는 제철, 제련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방어력이 좋은 무장기구, 공격력이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군에 보급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기병에는 기사 뿐 아니라 말까지 갑옷과 투구로 무장시켜 철기로 불리던 중장기병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철기가 쓰던 갑옷은 작은 철판에 구멍을 뚫어 가죽 끈으로 서로 연결한 비늘갑옷이 주로 사용되었다. 비늘갑옷은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잘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고구려군이 사용한 철제 무기들도 주변 경쟁국가의 병사들이 쓰던 것보다 여러 면에서 질이 좋고 우수했다. 한강변 구의동 보루에서 발굴된 고구려군의 화살촉과 도끼는 초강(炒鋼)을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탄소

□ Expansion

During the era of Gwanggaeto the Great of Koguryo, North China was undergoing chaos called the *Sixteen Kingdoms Era* (Five Nomadic Groups Ravaging China). Five nomadic groups: the Huns, the Seonbi, the Gahl, the Jeo, and the Gang, founded 16 states in turn or at the same time for around 120 years. Among them, there were seven states during the era of Gwanggaeto the Great. These nomadic dynasties built diplomatic relations with one another either to have hegemony in North China or to survive. It was not uncommon for wars and alliances to be repeated and existing strong states replaced with new strong powers. States situated across Hubei and Liaoning in China attempted to take over Koguryo on their way to mid-land China. Accordingly, it was inevitable to see conflicts between Koguryo and those states who wanted to move forward toward the west.

King Damdeok, son of King Gogukyang, led his army forces to attack Baekje at the young age of 18. This state, which killed King Gogukwon, was a big obstacle for Koguryo to become a superpower in Northeast Asia. Consequently, when King Gwanggaeto the Great attacked Gwanmi fortress loc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captured the capital of Hanseong to occupy Baekje north of the Han River, King Ashin of Baekje returned a number of hostages to Koguryo and vowed to “serve Koguryo forever.”

When Gwanggaeto the Great took over Qidan in the northwest and Suksin in the northeast part of China, and took the next step to move forward to Liaodong, he received a delegation from Silla which asked for military support. In 400, the allied forces of Gaya and Japan backed by Baekje invaded Silla and enveloped Geumseong (presently in Gyeongju). Fifty thousand Koguryo forces traveled down to the southern region by ships. When the Gaya-Japan alliance was destroyed and the stronghold (presently in Gimhae) of Gaya devastated, the Gaya people migrated en masse to the islands of Japan. After that, the Koguryo forces stationed in Geumseong and Silla became a tributary state.

Gwanggaeto the Great subjugated the southern area and began to invade Latter Yan (following Former Yan) which had occupied the east and west region of the Liao River since 400. His plan was to advance into and invade Liaodong beyond the river. At times the king was counterattacked by Latter Yan but in the end he conquered Latter Yan and expanded his territory over the river.

His 22-year reign over Koguryo was recognized as a strong power in North east Asia. His forces encompassed the Daixinganring Mountains in the northwest and the territory of Qidan in the east, and the Liao River in the west. To the east, Koguryo had jurisdiction over the forest area in East Manchuria and the Han River and Nakdong River.

Forces during the era of Gwanggaeto the Great no longer belonged to aristocrat-controlled “Bu” but to the central army commanded by the King. That is, they had to follow the commands of the King or generals and always be ready to strike. Furthermore, the forces were divided into infantry, cavalry and navy and trained so that their battle capability was at the highest level.

As well, Koguryo provided excellent arms for defense and attack due to developments in steel making and smelting. The cavalry included knights and troops equipped with horses, and armor and helmets made of iron. In manufacturing the armor, the Koguryo people made small holes in the small iron panels and connected them with leather string so that they looked like fish scales. The scale-shaped armor was light and

함량이 0.86%에 달하는 고탄강(高炭鋼)으로 오늘날의 공구강 수준에 맞먹는 강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철제 무기, 투구, 갑옷으로 무장하였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작전능력이 특히 뛰어났던 왕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터로 나아갔다.

413년,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장수왕이 즉위할 즈음 북중국의 오랜 분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북연, 북량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북위(北魏)의 최종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서에 자리 잡고 있던 북연(北燕)이 멸망하면 고구려와 북위가 국경을 맞대게 될 참이었다.

고구려는 앞으로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광개토대왕 시대의 성공적인 대외 정복활동으로 말미암아 고구려는 이미 제국이라 부를 정도로 큰 나라가 되어 있었다. 수도 국내성은 늘어나는 인구와 넘치는 물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시대부터 사실상 제2의 수도로 기능하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400여 년 동안 고구려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이던 국내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대역사가 시작되었고, 427년 평양은 고구려의 새 수도임이 내외에 선언되었다.

436년, 마침내 북위군과 고구려군이 북연의 수도 용성[龍城, 화룡성]에서 마주치는 사태가 일어났다. 북연왕 풍홍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용성을 향해 진군했던 2만의 고구려군은 북위군보다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 왕과 귀족, 일반민들로 구성된 대규모 망명행렬을 이끌고 성을 나왔다. 여러 가지 병장기와 보물을 실은 수레와 일반민, 고구려군으로 이루어진 대 행렬의 길이만 80여 리에 이르렀다. 고구려군의 위세에 압도된 북위군은 이 행렬을 저지하지 않았다. 북중국 통일을 눈앞에 둔 북위로서는 동방의 강자 고구려와 군이 일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와 북위 사이에는 서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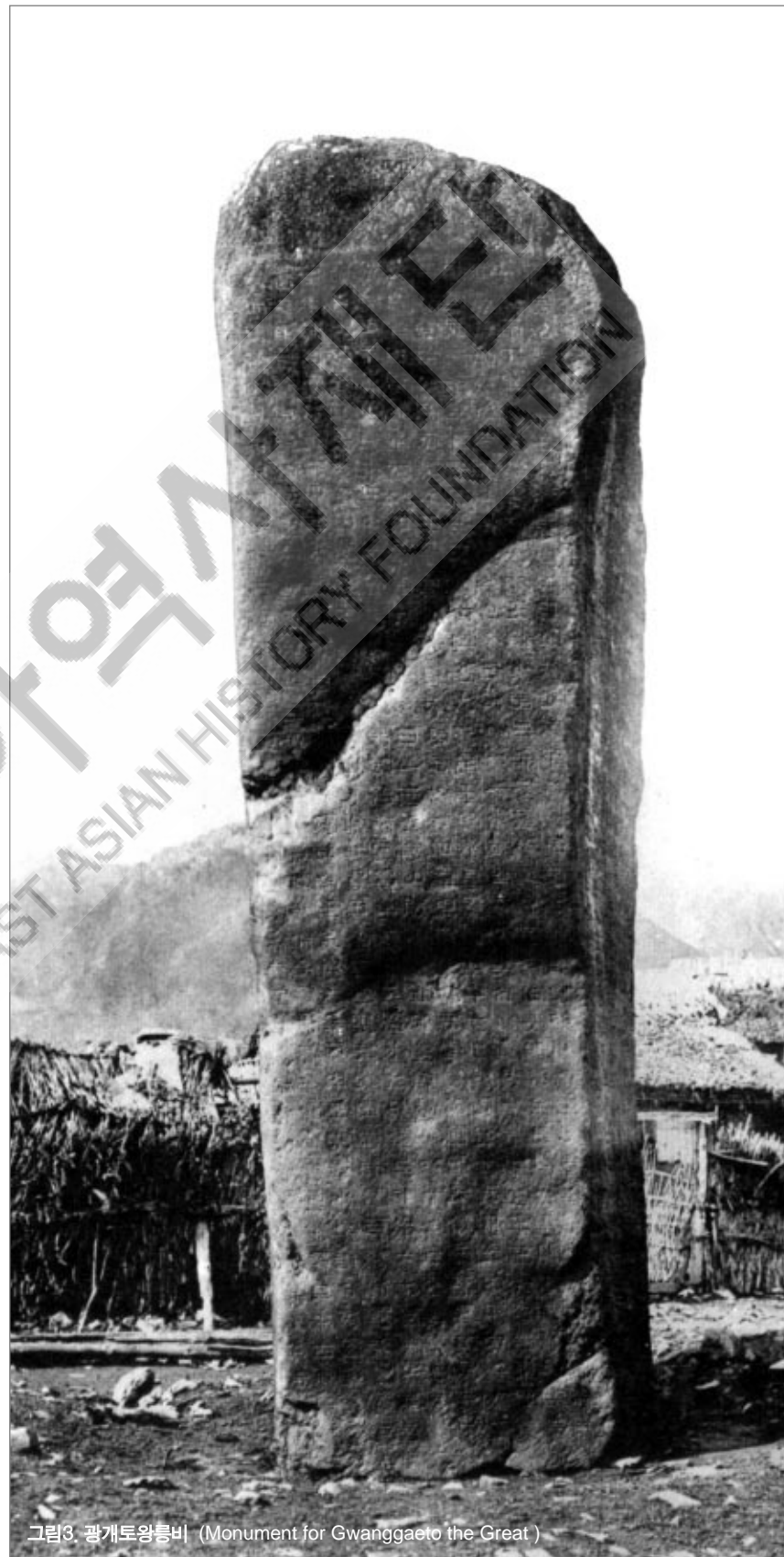


그림3. 광개토왕릉비 (Monument for Gwanggaeto the Great)

resistant against external impact.

The iron-made arms used by the Koguryo forces were superior to those used by neighboring states in many regards. First, arrowheads and axes excavated from a fort in Gui-dong nearby the Han River were found to have been made of strong steel which contained 0.86 percent of carbon. Second, the strength of the iron was similar to that of tool steel. It is clear that these soldiers had gone to war with excellent operational strategies and equipment.

In 413 when King Jangsu succeeded Gwanggaeto the Great, the chaos in North China had almost come to an end. States such as Northern Yan and Northern Liang remained but Northern Wei founded by Takbahlbu of the Seonbi tribe was almost victorious. When Northern Yan located in Liaoxi was finally defeated, Koguryo and Northern Wei came to share the border.

Thus, Koguryo needed to prepare for a possible conflict with Wei. The state had already been recognized as an empire as a result of its successful conquering missions. The capital of Gungnaeseong was not big enough to accommodate the growing population and quantities of traded goods and items. King Jangsu, therefore, decided to move the capital to Pyeongyang, which already served as the second capital from the era of King Jangsu. That was the beginning of a big project to move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enter for more than 400 years to Pyeongyang. Consequently, Pyeongyang was declared as the new capital.

In 436, Northern Wei and Koguryo confronted each other at the capital of Northern Yan. The 20,000-strong forces of Koguryo, requesting help from King Feng Hong of Northern Yan, advanced to the capital earlier than the Northern Yan forces and led the king, aristocrats and common people out of the capital. The length of the group stretched to more than 80 ri (about 31.5 Km). Northern Wei forces, overwhelmed by the Koguryo army, had no choice but to allow the escape. Northern Wei, which was about to unify with North China, had no desire to confront this strong empire.

Due to this escape, Koguryo and Northern Wei established peaceful diplomatic relations and acknowledged each side's power and territory. When Feng Hong of Northern Yan was attempting to restore his power, there was some conflict among Northern Wei, Song and Koguryo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even that eventually ended. Since Koguryo and Song agreed to compromise to contain Northern Wei, Koguryo, Rouran, Southern Dynasty and Northern Dynasty became four major powers in 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knowledged that Northeast Asia belonged to Koguryo.

When the western border was stabilized, King Jangsu began to push forward with his south-focused policy. King Jangsu led his army to conquer Baekje in 475 when the Silla-Baekje alliance was formed to counteract threats posed by Koguryo. The king stabilized the western border by resum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Wei before he attacked Baekje. Afterwards, the king sent monk Dorim to Baekje to seek false asylum. The monk gained trust from King Gaero of Baekje with his Korean checkers skill and encouraged him to remodel citadels and royal palaces; build royal mausoleums; and construct a big bank along the river. This large-scale construction signified the royal authority but also dried out the state's finances and impoverished its people. Dorim, a master of Korean checkers in Baekje, returned to his native state and informed the king of the results. Accordingly, King Jangsu ordered an assault on Baekje. After occupying Hanseong, the capital of Baekje, the Koguryo forces killed King Gaero and went down to the south of the Han River. Baekje had no choice but to move the capital to Woongjin (presently Gongju). In 481, King Jangsu led his army to northern Geumseong and made Silla recognize the hegemony of Koguryo in North 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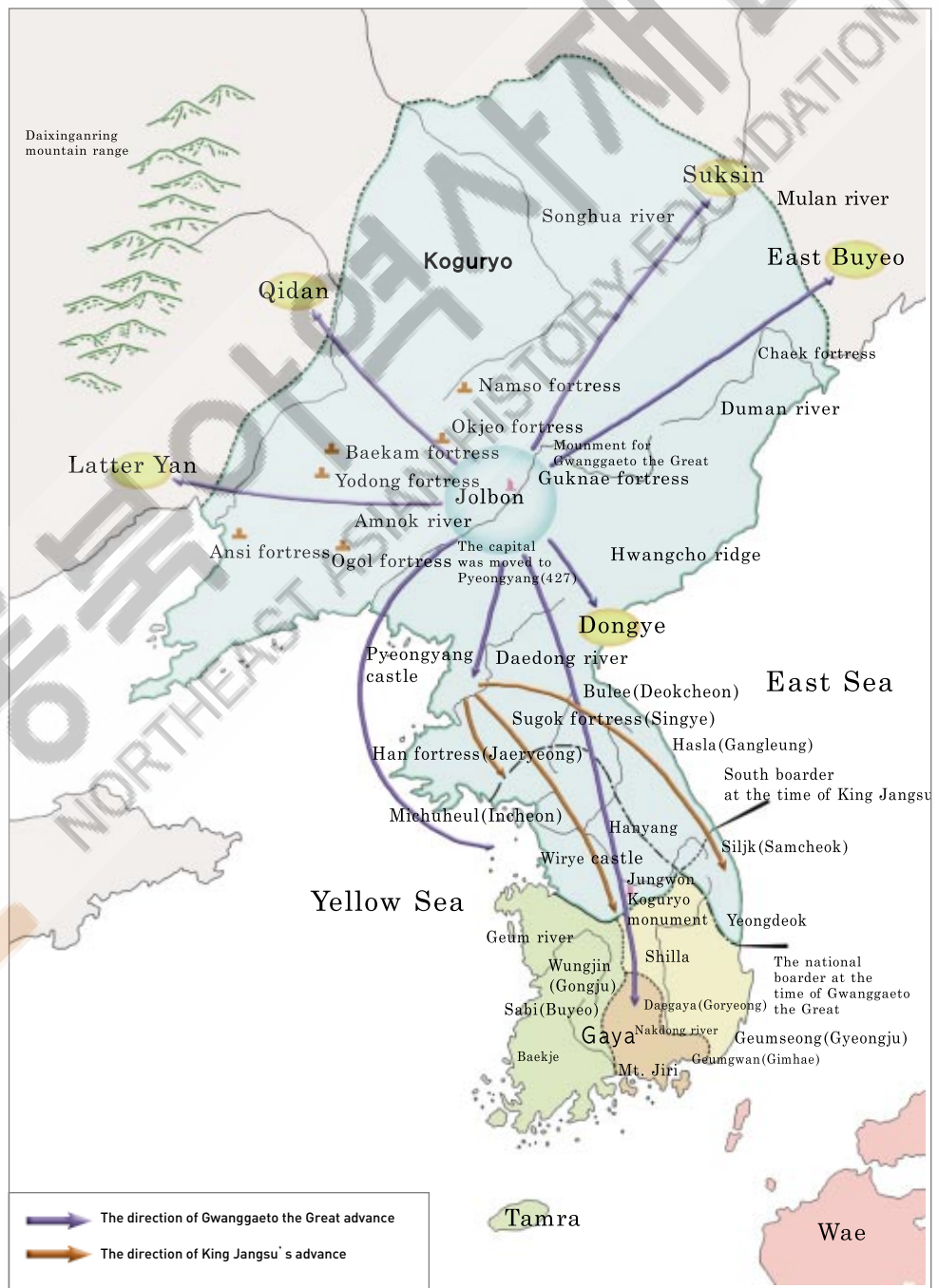


힘과 세력권을 인정하는 평화적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재기를 시도하던 풍흥의 처리를 둘러싸고 북위, 남조의 송(宋), 고구려 사이에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이 역시 곧 일단락되었다. 북위 견제를 위해 고구려와 송이 한 발씩 양보하기로 타협이 이루어진 까닭이다. 이로써 동아시아에는 고구려, 유연, 남조, 북조(北魏)로 이루어진 4강 중심의 국제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고, 동북아시아는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었다.

서쪽 국경이 안정되자 장수왕은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펴나갔다. 신라와 백제가 나제동맹을 맺어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적극 대처하자, 장수왕은 475년 크게 군대를 일으켜 백제 정벌에 나선다. 장수왕은 남으로 백제를 치기에 앞서 북위와 외교관계를 재개함으로써 서부 국경지대를 더욱 안정시킨다. 이어 송 도림으로 하여금 백제에 거짓 망명하게 한다. 도림은 뛰어난 바둑 실력으로 백제 개로왕의 신임을 얻은 다음 왕으로 하여금 성곽과 궁실을 장려하게 고쳐 짓고, 왕릉을 새로 만들며 하천에 큰 제방을 쌓게 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자 시작된 사업이지만 대규모 공사로 백제의 재정은 고갈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다. 백제에서 국수(國手)로 존경받던 도림이 고구려로 되돌아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장수왕은 곧바로 백제 정벌군의 출병을 명령한다. 고구려군은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인 뒤, 한강 이남지역까지 밀고 내려간다. 백제는 결국 웅진[공주]로 수도를 옮기고 만다. 장수왕은 481년 고구려군을 금성 북쪽까지 치고 들어가게 하여 신라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에서의 고구려의 패권적 지위를 재확인 시킨다.

64년 동안 계속된 장수왕의 시대에 고구려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다. 동몽골과 만주의 경계지대에서 목축생활을 하던 지두우 땅의 동부가 고구려에 합쳐졌고, 한강 이남의 경기지역 일부가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다. 돌궐과 고구려에 의해 분할 점령된 지두우는 더 이상 독립세력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백제는 개로왕의 죽음과 함께 한성시대를 마감하고 남쪽으로 밀려 내려간다. 만주 동북 삼림지대의 말갈사회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다. 말갈의 여러 부족 가운데 흑룡강 일대의 흑수부만 고구려의 영향력 바깥에 남게 되었다.

King Jangsu's conquering mission continued for 64 years. He annexed the eastern region of the *Jidouyu* tribe (地豆于), which stock farmed at the border between East Mongol and Manchuria, and further incorporated part of Kyeonggi province south of the Han River. The *Jidouyu* tribe being divided by Koguryo and Turks could not last as an independent state. The death of King Gaero led Baekje to the end of the period of Hanseong. Koguryo's influence on the Mohe tribes in the northeast forest region of Manchuria was strengthened and the scope of influence expanded. As a result, among the clans of the Mohe was a tribe named Huksu (黑水靺鞨), which was situated along the Heilong River and outside the influence of Koguryo.



지도3. 전성기 (Expansion)

▣ 갈등, 멸망, 계승

장수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문자명왕 시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대외확장은 정체상태에 빠져들었다. 동북의 물길에 쫓긴 부여 왕실이 고구려로 망명하여 온 것을 끝으로 고구려의 영토 확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중앙 및 지방의 관직을 둘러싸고 귀족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나아가 왕위계승을 둘러싼 귀족세력 사이의 무력대결까지 일어났다.

고구려 지배층 안에서 세력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동안 남쪽에서는 신라가 백제와 동맹을 맺은 뒤 고구려 대왕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하며 한강 유역의 고구려 영토를 유린하였다. 300여 년에 걸친 중국의 분열시대도 끝나가고 있었다. 577년, 북주를 대신한 수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남조 진 정벌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고구려에 전해졌다.

중국 통일왕조의 등장이 눈앞의 현실이 되자 고구려 귀족들은 내분을 그치고 공존을 전제로 한 타협안을 마련하였다. 왕과 귀족들은 말갈이나 거란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4강시대의 경험에 바탕을 둔 '수' 포위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고구려의 사신들을 돌궐과 진으로 파견하였다. 589년 진의 수도 건강이 수군에 함락됨으로써 중국의 남북조시대는 끝나고 말았다. 걱정했던 대로 중국에 통일왕조가 출현한 것이다.

동서로 분열된 돌궐마저 수에 제압되었지만, 고구려는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수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598년 영양왕이 이끄는 말갈군 1만이 수의 요서 지역을 공격하였다. 수 역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3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고구려와 수 사이에 20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되었다.

30만 명이 동원된 수의 1차 고구려 공격은 요하에서 저지되었다. 612년, 수는 다시 전투병만 113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고구려 공격에 동원하였다. 보급병까지 300만에 이르는 대군이 요하를 건너 요동성에 이르렀으나 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었다. 30만 명의 별동부대가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지만 결국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전략에 말려 살수에서 전멸 당했다. 613년, 614년에도 수의 대군이 요하를 건너왔지만 고구려군은 성을 굳건히 지켰고 수군이 많은 전사자를 남겨두고 철수하게 만들었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정복을 위한 군사 동원이 계속되자 수의 곳곳에서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수 왕조는 멸망하였다.

수가 멸망한 618년, 고구려에서는 수나라 수군의 평양성 진격을 막았던 건무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 26대 영류왕이다. 왕은 거듭된 수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추스르기 위해 수를 이은 당과 평화사절을 교환하는 한편 국경지대에는 천리장성을 쌓아 만약에 대비하고자 했다. 일부 백성들을 직접 거느리던 상급 귀족들도 통제하여 떨어졌던 왕의 위상도 새롭게 하려 하였다. 대를 이어 귀족세력의 대표 자리에 올랐던 연개소문 집안이 우선적인 통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642년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새로 임명 받았던 연개소문이 현지에 부임하지 않고 왕도에 남아 있다가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음으로서 영류왕의 이런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귀족 180여 명과 함께 왕도 죽음을 당해 그 시신이 도랑에 버려졌다. 오직 무력에만 의지한 연개소문 일파의 독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644년 10월, 당군이 고구려 국경을 넘기 시작하였다. 연개소문의 정변을 벌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건 침공이었다. 당군은 약 3개월 만에 요동전선의 주요 방어거점이던 개모성, 요동성, 비사성, 백암성을 함락시킨다. 이어 구원에 나선 15만의 고구려 중앙군마저 무너뜨린다. 이제 안시성만 함락시키면 당군이 압록강을 곧바로 건너도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Conflicts, Destruction and Succession

When King Munjamyong acceded to the throne after King Jangsu, his

conquering mission came to a standstill. The asylum of the Buyeo royal family as a result of a flood in northern Buyeo was the last success in expanding the territory of Koguryo. Aristocrats then contended with one another for central and local positions which led to armed conflicts for royal succession.

As conflicts intensified among the aristocrats in Koguryo, Silla and Baekje established an alliance and occupied an area of the Han River, declaring they were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Koguryo. A 300-year-old division in China finally came to an end. In 577, rumors started to spread that Sui replaced Northern Zhou, destroyed Northern Qi and was ready to conquer the Southern Dynasty Chen.

The Koguryo aristocrats came up with a set of compromises for co-existence when they saw the emergence of a unified dynasty in China. The king and aristocrats once again reinforced their control over the Mohe and Qidan tribes; established a diplomatic strategy to seize Sui using the four powers in the region; and sent a group of envoys to Turks and Che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 in China ended when Jangkang, the capital of Chen, was destroyed by the Sui army in 589. As expected, a unified dynasty was established.

Although the Turks, divided into east and west, was defeated by Sui, Koguryo did not surrender and instead waged a preemptive strike against Sui. In 598, the 10,000 -strong Mohe army led by King Youngyang attacked the Liaoxi region. Sui seemed to predict this attack and invaded Koguryo with a military of 30,000. Consequently, the two states started a 20-year war.

The first aggression into Koguryo was hampered in the Liao river region. In 612, Sui mobilized three million combatants to assault Koguryo. However the capital of Liaodong (遼東) was impregnable. A detached force of 3,000 soldiers assaulted Pyeonyang's castle but was destroyed by the tactics of Uljimundeok, the Koguryo general. When Sui crossed the Liao river in 613 and 614 respectively, Koguryo successfully protected its capital leaving many Sui war deaths. The Sui's failures led to a series of large-scale rebellions and the eventual collapse of the Sui Dynasty.

In 618 when Sui was defeated, Geonmu, who stopped the attempt of the Sui army to Pyeonyang castle, became the 26th king titled as Youngryu. To bring the disintegrated state back together, the king exchanged peace envoys with Chinese Tang and built the Great Wall named *Cholli-jangseong* at the border (1,000 ri = 400 km) to prepare for possible attacks. As well, the king reinforced his status by regulating the high level of aristocrats who directly controlled the common people.

The Yeon Gaesomun family was the first to be affected by such a regulation, but the king's attempt ultimately failed when Yeon Gaesomun, in charge of building the Great Wall in 642, brought about a coup, taking over power. The king along with more than 180 aristocrats were killed and thrown into a ditch. A group led by Yeon Gaesomun then began its dictatorship by force.

In October of 622, the Tang forces started to cross the border of Koguryo to tighten its border. They destroyed the major defense points of Gaemo fortress, Yodong fortress (Liaodongseong), Bisa fortress



그림4.백암성 (Baekam Fortress)

그러나 당군을 직접 지휘하던 당 태종의 기대와 달리 안시성은 구원군 없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군의 포위공격을 견뎌냈다. 안시성의 성주와 군사, 백성들은 선불리 성 밖으로 나와 수적으로 우세한 적과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성을 지키는 데에 힘을 쏟기로 하였다. 당군은 안시성 동남쪽에 흠산을 쌓기 시작했다. 60여 일에 걸쳐 연인원 50여만 명이 동원된 대공사가 끝날 즈음 흠산은 성벽보다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이 흠산은 곧 고구려군에 빼앗기고 말았다. 문득 넓은 요동평원 북편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계절이 바뀐 것이다. 물이 얼기 시작하고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나자 당 태종은 당군에 철수를 명령한다.

648년,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간다. 백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고구려의 도움을 청했지만, 연개소문으로부터 거절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신라는 백제를, 당나라는 고구려를 역사지도에서 지우기 위해 서로 돕기로 하는 군사동맹이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다. 김춘추가 '백제를 먼저 무너뜨린 다음 고구려를 공격하자'고 제의했고, 당 태종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660년 백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성공하자, 당군은 거의 매년 평양성을 향해 진군했다. 군량미를 신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당군으로서는 최대의 약점이었던 식량에 대한 걱정이 없이 전투할 수 있었던 까



and Baekam fortress in three months. They also desecrated the 15,000 central forces of Koguryo when the central forces came to back up the Liaodong front. If Tang brought down the Anshi fortress (安市城), it would not have to worry about a possible attack from Koguryo when it crossed the Amnok River.

However, the Anshi fortress withstood a long siege without military support for months, which Emperor Tazong of Tang did not expect. Rather than contending with their competitors outside the fortress, the commander and his soldiers staying in the fortress and the people paid attention to protecting the fortress. The Tang forces began to build earth mounds southeast of the fortress. After more than 50,000 Tang people built up the mound for 60 days, it was higher than the fortress wall. However, the Koguryo forces took over the earth mound. Suddenly, cold wind blew from the north of the Liaodong plain. That meant the season had changed. Water started to freeze and food supply was short. Finally, Tazong ordered his forces to withdr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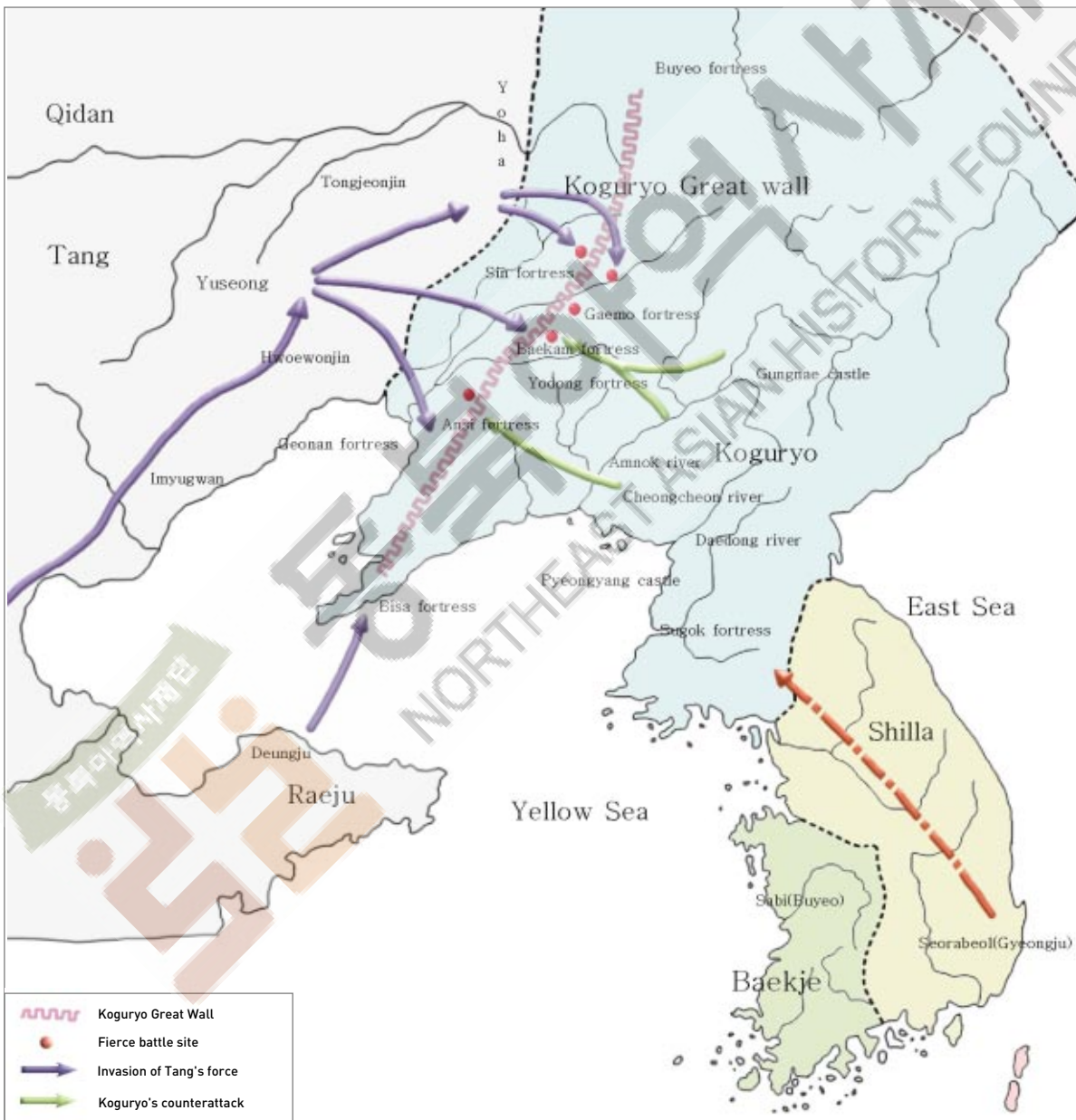
In 648, Kim Chun-choo, who had power in Silla, went to Tang when Yeon Gaeomun of Koguryo refused to help Silla. Tang and Silla established a military alliance to eliminate Koguryo and Baekje from the map. Kim suggested “bringing down Baekje first and then striking Koguryo,” Tazong agr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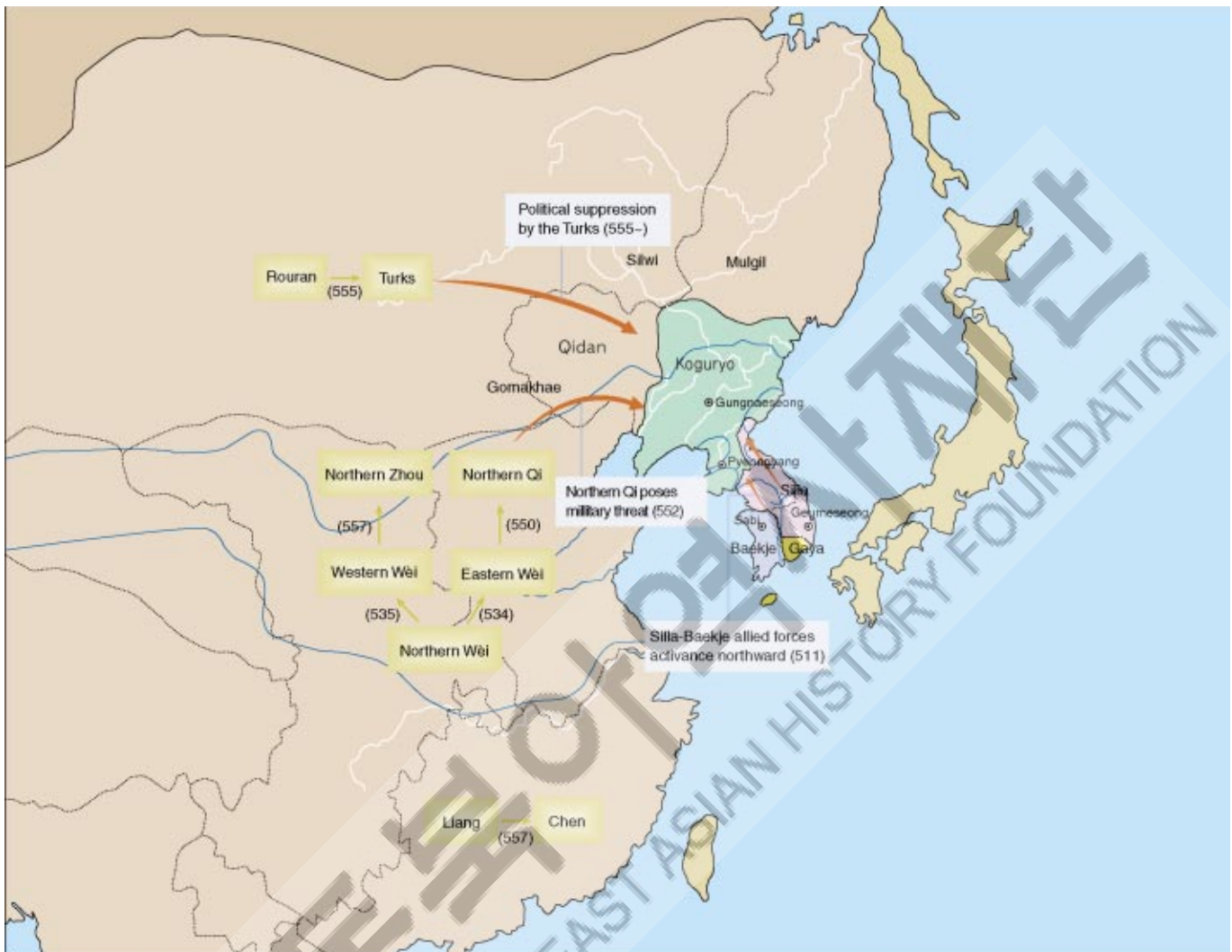
지도4. 5세기 동아시아
(East Asia in 5th Century C. E.)

답이다. 665년, 독재자 연개소문이 죽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의 세 아들 가운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는지 두고 귀족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졌다. 먼저 맏아들 남생이 권력을 잡았지만 오래지 않아 두 동생에게 밀려났다. 국내성에 머물던 남생은 당나라에 투항했고, 신라와의 국경지대를 책임지던 연개소문 동생 연정토는 자신이 맡았던 성과 백성들을 적국에 넘기면서 신라로 망명하였다.

668년, 신라의 보급부대가 수레 수 천대에 식량을 싣고 다시 한 번 평양성을 향해 출발했다. 당군은 투항한 연남생을 길잡이로 삼아 요동 방어선을 돌파하고 견고한 고구려의 성들을 하나하나 공략하기 시작했다. 신성, 부여성 등 큰 성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안시성을 비롯한 몇몇 방어거점들이 아직 건재했지만 당과 신라의 대군에 포위된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점차 지쳐갔다. 668년 9월, 보장왕은 항복하겠다는 뜻을 당군 사



지도5. 고구려 · 당의 전쟁 (War with Chinese Tang)



지도6. 7세기 동아시아 (East Asia in 7th Century C. E.)

After Baekje was brought down in 660, the Tang army advanced to Pyeongyangseong almost every year. Assisted by Silla, the Tang army did not have to worry about food supply which was the number one disadvantage for the army. In 665 when the dictator Yeon Gaesomun died, aristocrats made strenuous efforts to appoint a successor among the three sons of the deceased king. First, Yeon Namsaeng, the eldest son, took power, but lost it at the hands of his two brothers. The eldest son, staying in Gungnaeseong, surrendered to Tang. Yeon Jeongto, the younger brother of Yeon Gaesomun in charge of watching the border, handed over the Gungnaeseong and his people to the enemy state and sought asylum in Silla.

In 668, the Silla quartermaster corps headed to Pyeongyangseong with their food supply in thousands of carts. Tang took the surrendered Namsaeng as a guide and penetrated the defense line in Liaodong to attack many fortresses. A few defense points including the Anshi fortress remained but the army in the enveloped Pyeongyangseong was exhausted. In September of 668, King Bojang, the last king of Goguryeo, let Yeon Namghun, the youngest son of Yeon Gaesomun, and aristocrats, open the gate of Pyeongyangseong and send a surrender message to the commander of Tang. The 700-year-old history of Goguryeo had finally ended.

령부에 알리고자 연남건과 귀족들로 하여금 성문을 열고 나가게 하였다. 700년에 걸친 고구려의 역사는 일단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평양성 함락 후, 고구려의 귀족들과 유력자, 기술자들 대부분은 당으로 끌려가 여러 지역에 강제로 흩어져 살아야 했다. 다른 일부는 돌궐이 지배하던 몽골초원으로, 바다 건너 일본으로 신타를 옮겼다. 그러나 고구려 옛 땅에 남아 있던 다수의 유민들은 군사동맹을 깨고 상호 전쟁상태에 돌입한 신라와 당 사이에서 신라의 이면 지원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한다. 676년, 당과 신라가 상대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화의를 맺자 부흥운동 세력의 일부는 통일신라의 영역으로 넘어가 그 땅의 백성이 되고, 다른 일부는 만주 지역에 남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692년 요서의 영주에서 시작된 거란의 반란을 계기로 삼아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이 다시 본격화 되고 그 흐름은 698년 고왕 대조영의 발해 건국 선언으로 열매를 맺는다. 멸망 30년 만에 고구려의 옛 땅에서 700년 고구려사의 계승을 선언한 새 나라 발해가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姜 仙, 2001 <고구려와 전연의 관계에 대한 고찰>《고구려연구》11
- 孔錫龜, 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서경문화사
- 노태돈, 1981 <고구려 유민사 연구>《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 노태돈, 1989 <연개소문과 김춘추>《한국사시민강좌》5
-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사계절
-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潮閣>
- 徐永大,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한국사연구》120
- 양병룡, 1997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 유민의 대당투쟁>《사총》46
- 여호규, 1995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역사와현실》15
- 여호규, 1996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형성>《역사와현실》21
- 여호규, 1999 <고구려 후기의 군사방어체계와 군사전략>《한국군사사연구》3
- 李成制, 2000 <영양왕 9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農壇學報》90
- 李成制, 2001 <高句麗와 北齊의 關係>《韓國古代史研究》23
- 李成制, 2004 <고구려 장수왕의 對北魏交涉과 그 정치적 의미>《역사학보》181
- 李鍾旭, 1987 <고구려 초기의 정치적 성장과 대중국관계>《동아시아의 비교연구》일조각
- 임기환, 2004 <고구려정치사연구>새나라
- 전호태, 1993 <장천(호분 벽화의 서역계 인물)>《울산사학》6
- 전호태, 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풀빛
- 전호태, 2004 <5세기 평양권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의 정체성>《고구려연구》18
- 井上直樹, 2000 <高句麗對北魏外交 朝鮮半島情勢>《朝鮮史研究會論文集》38

After Pyeongyangseong collapsed, most aristocrats, leaders and engineers were taken to Tang and spread all over the territory. Others moved to the Mongol grasslands and even across the sea to Japan; while still others stayed in the old territory, broke the military alliance and attempted to restore the state with the assistance of Silla. In 676 when Tang and Silla recognized each other and reconciled, some of the displaced escaped to Unified Silla and became the people of the new Silla, while others explored new opportunities to stay in Manchuria. Another group resumed their determination to restore Koguryo when the Qidan rebelled in Yingzhou of Liaoxi in 692. That movement led the first King Daejoyeong to declare the foundation of Balhae in 698. Balhae took over the old territory of Koguryo in the 30 years succeeding the 700 years of Koguryo.

References

1. Kang, Sun: *Review on Relations between Koguryo and Former Yan*, Koguryo Research, 11, 2001
2. Kong, Seok-gu: *Expansion History of Koguryo*, Seogyeong Culture, 1998
3. Roh, Tae-don: *Study on Migration History of Koguryo*, Collection of Treaties to commemorate the retirement of Dr. Han, Woo-geun, Jisik Sanup Publications, 1981
4. Roh, Tae-don: *Yeon Gaesomun and Kim, Choon-chu*, Korean History Civil Lecture, 5, 1981
5. Roh, Tae-don: *Study on Koguryo History*, Sagyejeol, 5, 1999
6. Park, Han-je: *Chinese System in Mid-Century*, Iljogak, 1988
7. Suh, Yeong-dae: *State Rites of Koguryo*, Korean History Research, 120, 2003
8. Yang, Byeong-ryong: *Koguryo people's Resistance against Silla during the Silla-Tang War*, Sachong, 46, 1997
9. Yeo, Ho-gyu: *Changes in Society and Ruling system of Koguryo in 3rd Century*, History and Reality, 15, 1995
10. Yeo, Ho-gyu: *Formation of Koguryo in mid-Amnok River*, History and Reality, 21, 1996
11. Yeo, Ho-gyu: *Defense System and Military Strategy of Late Koguryo*, Korean Military History Study, 3, 1999
12. Lee, Sung-je: *Koguryo Aggression to West Liao in King Yeongwang*, Jindanhakbo, 90, 2000
13. Lee, Sung-je: *Relations between Koguryo and North Chi*, Korean Old History Study, 23, 2001
14. Lee, Sung-je: *King Jangsu's Policy on North Wei and its Political Significance*, Yeoksahakbo, 181, 2004
15. Lee, Jong-wook: *Political Development of Early Koguryo and Relations with China*, Comparative Study on East Asian History, Iljogak, 1987
16. Im, Gi-hwan: *Study on Political History of Koguryo*, Saenarae, 2004
17. Jeon, Ho-tae: *Western-looking Characters of Jangcheon 1 Tomb Mural*, Ulsansahak, 6, 1993
18. Jeon, Ho-tae: *Koguryo History through Tomb Murals*, Pulbit, 1999
19. Jeon, Ho-tae: *Identity of Koguryo Culture through Tomb Murals in Pyeongyang in 5th Century*, Study on Koguryo, 18, 2004
20. 井上直樹: 高句麗の對北魏外交と朝鮮半島情勢,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8, 20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宮陽陰分之趙(酉)宮牛金(戌)宮

宮雙分之燕(子)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ICAL FOUNDATION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Life and Culture of Koguryo People

□ 무기

우리 민족은 예부터 '동쪽의 활 잘 쏘는 민족[東夷]'으로 불렸다. 고구려인은 특히 활쏘기에 능하여 시조의 이름이 '활 잘 쏘는 사람[朱蒙]'이다.

고구려는 '맥궁(貊弓)'이라는 활채가 심하게 굽은 짧고 강한 활로 유명했다. 쇠뿔을 재료로 만든 짧은 활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였다. 고구려인은 길이가 보통 사람 키의 절반쯤 되는 짧은 활을 즐겨 썼다. 활촉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를 썼다. 도끼날형 활촉은 대상이 받는 타격을 높이기 위해 만든 넓적촉의 일종이다. 특수한 화살로는 활촉 뒷부분에 구멍 뚫린 둥근 기구를 매달아 화살이 시위를 떠나 날면서 소리가 나게 만든 소리화살[鳴鏑]이 있는데, 고분벽화의 사냥그림 중에도 보인다.

창과 칼, 도끼는 근거리 전투에 쓰이는 기본무기이다. 창과 모는 끝이 뾰족한 것과 넓적한 것이 기본형이며, 이외에 적의 기병을 걸어 당기는 데 쓰는 갈고리형이 있다. 칼은 길이 1m 가량의 긴칼과 30cm 정도의 짧은 칼이 있었다. 모두 칼몸의 한쪽만 날이 있는 외날칼이며, 손잡이 끝이 둥근고리 모양인 둥근고리칼이다. 둥근고리는 사용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고리 안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민고리, 잎사귀 셋이 표현된 세잎고리, 용(龍)이나 봉황(鳳凰) 등이 새겨진 용봉고리 등으로 나뉜다. 도끼는 본래 벌목용 도구였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전투용 무기로도 널리 쓰였다. 창과 칼, 도끼는 군사행진 시에는 어깨에 땃음을 고분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W 전쟁: 무기, 무장, 전투

Wars: Weapons, Armor, Battles

□ Weapons

The Korean people have been called "people with good archery skill (東夷)." In particular, Koguryo people were blessed with this skill, and we see evidence of this in the name of the founding father of the state, "Jumong," which means "skilled archer." Koguryo was famous for a specific bow called Maekgung (貊弓) which was severely crooked, short and strong. This shorter bow made of ox horn was smaller than half the height of an average person, and was very suitable for use while riding a horse. They also used various types of arrowheads. One type had an axe blade and a flat head to increase impact; another was called a *Myeongjuk* (crying bow) in which the back of the arrow head hangs after it flies from the bow. This crying bow is seen in the hunting scenes of tomb murals.

Spears, swords, and axes were basic weapons used for short-distance battles. The top of the spear was usually cone-shaped and its edge was flat. There was also a hook-shaped spear used to snatch the enemy. There were two types of swords: a one-meter sword and a 30-centimeter sword. Both had blades on one side and rings on the bottom of their handles. The kind of ring indicated the status of the user. There were three types of rings: without ornaments; with three leaves inscribed; and with the inscription of a dragon or phoenix. Axes were used to chop trees but were also weapons in ancient society. Tomb murals show that people carried spears, swords and axes on their shoulders during military marches.



1. 창기병(안약3호분)
Armored Cavalry(Anak Tomb No.3)



2. 궁수병과 부월수병, 도수병(안약3호분)
Archers & Battle-ax soldiers, Sworded soldiers(Anak Tomb No.3)



3. 창기병(안약3호분)
Armored Cavalry(Anak Tomb No.3)



4. 철기행렬(덕흥리벽화분)
Armored Cavalry Procession(Deokhungri Mural Tomb)



▣ 무장

갑옷, 투구,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장구이다.

고구려의 갑옷에는 쇠로 만든 비늘 모양의 패쪽을 이어서 만든 쇠찰갑과 가죽으로 만든 혁갑이 있었는데, 기병은 신체 보호에도 유리하고, 움직이는 데에도 편리한 쇠찰갑을 입었다. 투구는 대부분 찰갑쪽을 꿰붙여서 만든 찰제 투구를 사용하였다. 신분이 높을수록 투구 꼭대기에 여러 가지 장식을 만들어 달았다. 넓은 방패는 주로 보병이 사용하였다.

비교적 가벼운 차림으로 전투에 임하는 보병과 달리 기병은 갑옷저고리 및 갑옷바지, 투구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로 말에 탄 채 전투의 전면에 나섰다. 때문에 기병은 적으로부터 말이 공격 받아 말에서 떨어질 경우, 전투능력을 상실하고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기 쉬웠다. 고구려에서는 기병이 지닌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말에게도 갑옷과 투구를 입혔다. 이와 같이 갑옷과 투구로 완전무장한 말을 탄 중무장 기병은 철기(鐵騎)로 불렸다. 철기는 일반 기병이나 보병에 비해 전투능력이 월등히 높았지만, 국가로서는 편성과 관리에 경제적 부담이 커 대규모 부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때문에 제한된 규모로 유지되는 정예부대였던 철기는 전세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주요한 전투에 주로 동원되었다. 고구려의 철기는 고구려의 제철업 및 제철기술 발전 수준과 직접 관련된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 Armor

The armor suit, helmet and shield were made of iron to protect and defend soldiers

from enemy attacks. Koguryo armored suits were made either of iron or leather, and consisted of pieces of iron scales. Usually the cavalry wore iron armor suits to protect their body and enable them to move more freely. They manufactured helmets with pieces left over from the manufacturing of the armor suit. At that time, the higher the individual's status, the more ornaments were adorned on the helmet. Wide shields were used by the infantry.

Unlike the infantry who wore lighter battle gear, the cavalry had to be heavily armored with jackets, trousers and helmets as it was their job to go to the front of the line on horseback. Since the cavalry were right up front, they were more likely to be killed or taken hostage. Given the danger, their horses also wore armor suits and helmets. They were referred to as the armored cavalry (鐵騎). The battle capability of the armored cavalry was much higher than unarmored men and horses, but it was difficult for the state to maintain a large-troop of armored cavalry due to the high cost. So, only elite armored cavalry units were dispatched to major battles. The armored cavalr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level of development of iron-manufacturing and the iron industry of Koguryo.



▣ 전투

고대사회에서 전투는 대개 두 진영 장수의 대결로 시작되었다. 『일본서기』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한 장면이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두 나라의 군대가 들판에서 마주치자 두 진영은 먼저 자기 군대의 장수를 앞으로 내보낸다. 갑주(甲冑)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간 두 진영의 장수는 각기 4대조부터 자신까지의 계보를 밝혀 자신이 어떤 집안의 자손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 서로가 상대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다. 인사 나누기를 마친 후, 두 장수는 1:1의 대결에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두 진영은 이 대결의 승패로 전투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짓지만 어느 한 진영이 이 결과에 승복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전투가 진영 전체로 번진다. 성을 공격하고 수비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장수와 병사가 모두 동원되는 총력전 양상을 띤다.



5. 공성(모사도, 삼실총)
Fortress Attack(Replica, Samsilchong)

▣ Batt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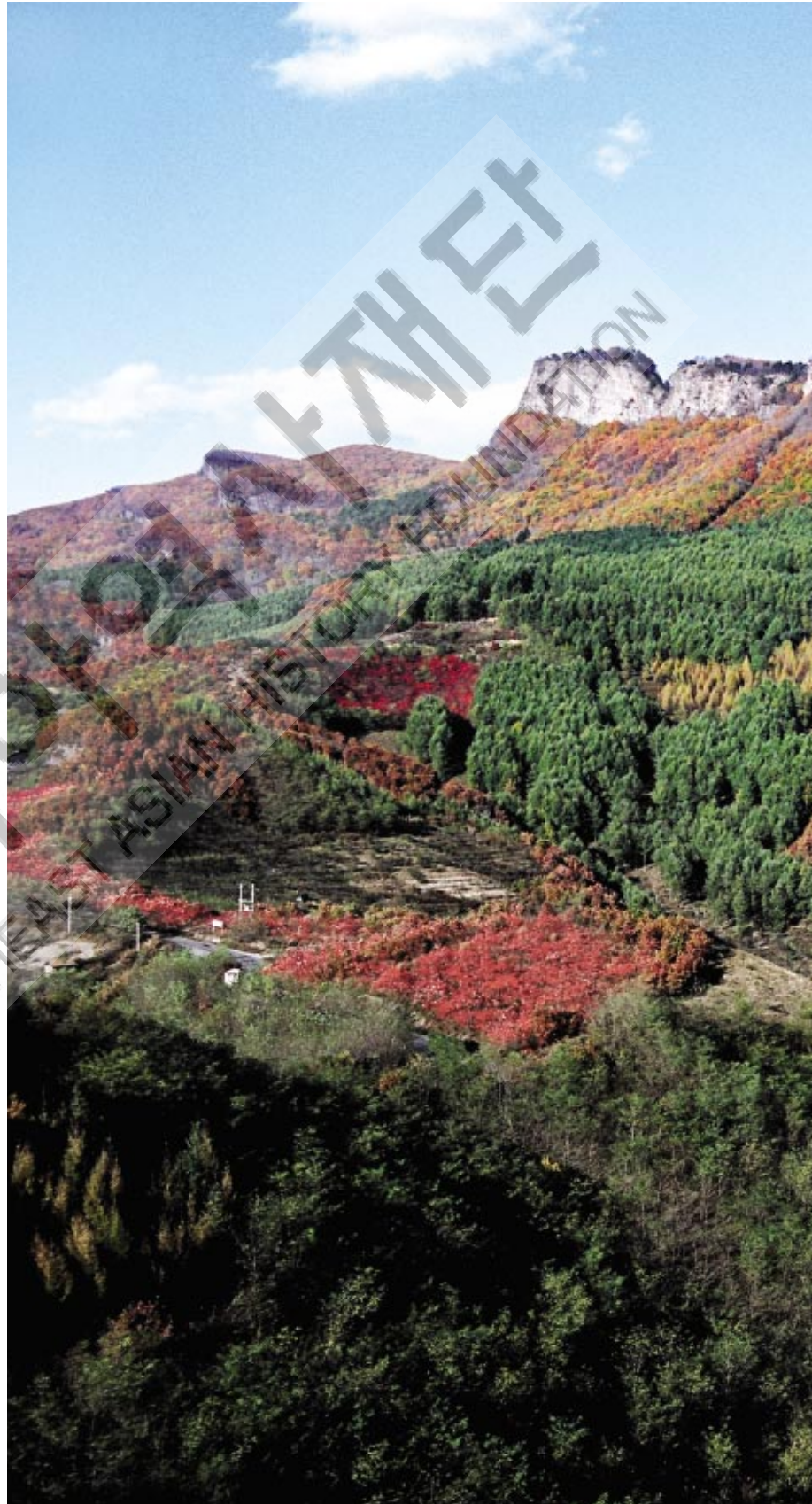
In ancient society, a battle started when two generals of the two states confronted one another. Nihon shoki (日本書紀), a chronicle of Japan, describes in detail a battle scene between Koguryo and Baekje. When the two armies met in the field, they sent their generals forward. The two generals, on horseback and fully armored, then revealed their ancestors, beginning from the fourth,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could contend on equal footing. When it was determined that they could, a one-on-one fight between the two generals ensued. In most cases, this fight determined which state was to be victorious. In the case of no surrender from either side, soldiers from each side began to confront each other. In the case of attack and defense of a fortress, an all out war was waged with soldiers and generals at the same time.

고구려의 건축 가운데 성곽, 사원, 주택, 무덤 등은 그 기본적인 형태와 구조를 일반유적 및 고분벽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건국설화가 서린 환인 오녀산성을 비롯한 집안의 위나암성, 평양의 대성산성 등 고구려성의 주류는 산성이다. 고구려가 산성 위주의 방어체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7세기 연개소문 집권기의 고구려는 대중국 방어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요동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기도 하는데, 이 역시 그 근간이 되었던 것은 기존의 방어용 산성들이었다. 도성 유적으로는 집안의 국내성, 평양의 장안성이 있다.

F_{ortress} 성

General relics and tomb murals indicate the basic form and structure of such Koguryo architectural structures as fortresses, temples, housing, and tombs. The Huanrun Onyeo fortress is famous for its founding myth, and Winaahm fortress in Jian, China and Daeseong fortress in Pyeongyang are located in the mountains because Koguryo used the mountains as a major part of it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7th century when Yeon Gaesomun reigned, Koguryo built the Great Wall in the Liaoxi region to protect itself from China. The Koguryo Great Wall was considered the state's major defense system. The Capital sites that remain include one in Gungnaeseong in Jian and one in Janganseong in Pyeongyang.

6. 오녀산성
(Onyeo Fortress)







중국 한 왕조의 식민세력들과 지역패자로 군림하던 부여에 대한 항쟁으로 나라 세우기의 첫 발을 내딛고, 터 굳히고 넓히기에 들어간 고구려는 산성과 평지성이 조합된 도성체제를 마련하였다. 고구려의 왕과 귀족, 도성의 백성들이 국내성이라는 평지성을 일상의 공간으로 삼으면서도 유사시에는 환도성이라는 산성을 비상의 공간으로 옮겨가 외적에 맞서는 침략에의 대응방식은 평양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된다.

삼국시대에 뚜렷한 발전을 보인 산성은 입지적 특징을 기준으로 크게 테피식, 포곡식, 복합식으로 나뉜다. 테피식이란 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성곽을 축조함으로써 성이 산봉우리를 둘러싸게 한 것을 말한다. 성곽이 위가 뾰족한 산봉우리 하나만을 둘러싼 것, 평탄한 산 정상부를 둘러싼 것, 인접한 두 개의 산봉우리를 둘러싼 것, 산봉우리와 산의 한쪽 능선 부분을 비스듬하게 둘러싼 것, 평지에 고립된 낮은 구릉부를 둘러싼 것 등 세부 유형은 여러 가지이다. 성곽의 입지상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한 편이나 장기간 농성이 어렵다는 한계성을 지닌 산성 유형에 속한다.

포곡식이란 성안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계곡을 포함하도록 평지와 산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성곽을 쌓은 것을 말한다. 대부분 계곡을 가운데 두고 산 능선의 흐름을 좇아 성곽을 쌓는 까닭에 성의 평면형태가 일정하지 않지만, 평지와 계곡이 성안에 포함되는 까닭에 성의 규모는 매우 커진다. 넓은 공간에 더하여 계곡을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성안에 한 곳 이상의 연못을 설비하여 이 연못이 저수조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계곡 물이 수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안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며 적의 침입에 대비한 장기 농성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테피식과 포곡식 산성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 복합식 산성이다. 기존의 테피식이나 포곡식



To defend itself from colonies of the Chinese Han Dynasty and Buyeo which started to have hegemony in the region, Koguryo established a combined defense system where fortresses were built in mountains and on flat terrain. Kings, aristocrats and the general people went about their daily lives inside the fortress on flat terrain. In the case of emergency, however, they moved to an emergency fortress called *Hwandoseong* and responded to enemy attacks until Pyeongyangseong collapsed.

Three types of fortresses were used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emoesik*, *pogoksik*, and *bokhahpsik*. *Temoesik* was constructed along seven or eight tenths of the mountain ridges so that the fortress surrounded the mountain top. This type itself can be subdivided into one that surrounds a mountain peak; one that surrounds a flat peak; one that surrounds two mountain tops which sit nearby; one that surrounds one mountain peak and the ridge of one side of a mountain; and one that surrounds a lower hill located in flat terrain. The *temoesik* was useful for defense but vulnerable under long-term resistance.

The second type called *pogoksik* included more than one valley in the middle of the fortress. It encompassed flat terrain at the bottom and ridges along the side. The base was not level but its size was large because it contained a valley and flat terrain. Thus, by using the large area and the water in the valley, a pond was created which served as a water tank, allowing a greater number of people to stay in the fortress and wage long-term strikes against the enemy.

The third type, *bokhahpsik*, combined both of the methods described above, utilizing the advantages of the two. In some areas, other types of fortresses could be found nearby fortresses built in the style of the first or

산성에 인접한 곳의 다른 유형의 산성을 접속시켜 만든 것들이 몇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유형의 산성들이 이어져 새로운 산성으로 탄생한 사례도 종종 확인된다.

산성은 보통 축조기법에 따라 토축과 석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의 산성에서는 토축에 석축을 더하거나, 석축으로 처리한 사례가 빈번히 발견된다. 석축은 장대석이나 자연석을 이용하여 단면이 수직을 이루거나 활모양, 홀모양을 이루게 쌓는 것으로 끝나지만, 토축은 성체를 쌓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형을 활용하면서 재료를 확보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석축과는 구별된다. 토축 가운데 삭토법이란 자연적인 급경사면을 깎아내어 원 지형의 일부를 성체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테피식 산성의 축조에 자주 이용된다. 성토법이란 성체를 이룰 부분의 내면과 외면의 흙을 파내어 그 흙을 가운데 부분에 모아 쌓아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성체가 쌓아지는 과정에 성체의 내외면(内外面)이 깊이 파여 파인 곳이 해자의 기능을 맡게 된다. 역시 테피식 산성의 축조에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판축법이란 말 그대로 흙을 한 켜, 한 켜 쌓아 다져서 마치 흙판이 겹겹이 쌓이듯이 성체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보통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차로 다져가면서 성체를 쌓아올리는데, 일정한 구간마다 협판을 세우고 이를 기둥으로 고정시켜 그 틀 안에 흙을 쏟아 부어 다지게 된다. 성체의 두께가 일정하고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려지게 된다.

애초의 목적이 방어, 농성이므로 성을 축조할 때에는 방어에 적합한 각종 시설이 마련된다. 성문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반원형으로 두르도록 설치된 이중 성벽을 웅성(甕城)이라고 하며,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의 일정구간마다 네모지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축성된 부분을 치라고 한다. 성벽의 일부를 지형을 좇아 성밖으로 길게 내뻗게 하여 외성이나 치성과 연결시킨 것을 용도라고 한다. 해자(垓字)는 성벽 주변을 깊게 파고랑을 만들거나, 고랑에 물을 채워 성의 방어기능 일부를 담당하게 만든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안 높은 지점에 설치된 지휘소를 장대라고 한다. 성벽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점에 자그맣게 설치된 암문(暗門)은 성안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을 운반하고, 아군에 구원을 청하거나, 적을 기습하기 위한 비밀통로로 사용되었다. 수문(水門) 역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되는 작은 문으로 배수시설에 해당한다. 대칭적 위치의 성문, 2층각루 등 도성의 형태 및 내부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유적으로는 약수리벽화고분 및 요동성총, 용강대묘 벽화중의 성곽도를 들 수 있다. 성을 쌓을 때, 구간별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음은 평양 장안성 성돌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cond type. These fortresses were annexed to new types of fortresses in some areas.

Fortresses were also divided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 materials into earthen fortresses or stone fortresse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re were many cases where earthen fortresses were built also using stone materials. Stone fortresses used natural stones called *jangdaeseok* to make staircases so that the wall had to be vertical or bow shape to sustain the fortress. This is in contrast to the earthen fortress which used the geography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area for building.

Stone fortresses were built according to three methods. The first is *saktobeop* which smoothes out steep valley slopes to build the fortress; it often uses *temoesik*. The second is *seongtobeop* where earth is dug in and outside of the fortress frame and then piled into the center of the frame to build the fortress. When this method is applied, the hollow portion served as a moat. This method i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temoesik* fortress as well. Finally, the *panchookbeop* method piled layers of earthen flat panel to construct the fortress. Usually, clay soil and sandy soil were used to pile the panels in turn. At certain sections, a wooden panel called *hyeoppahn* was put between the clay soil panel and the sandy soil. This made the fortress frame thicker which in turn strengthened the fortress wall.

For defense and resistance, every fortress used its own particular methods. Some fortresses had a part called *chi* that made certain sections of the wall protrude to actively contain enemy attacks. Others had a link called *yongdo* by which part of the wall sticks out of the fortress and is connected to a place called *wheseong* or *chiseong*. Many had furrows filled with water to act as a defense (moats). All fortresses had command points called *jangdae* at the top of the inside of the fortress. Gates called *ammun* were also built into fortress walls and hidden from view of the enemy. These gates were used to transport weapons or food, seek alliances with friendly forces or raid the enemy. Fortresses also had water gates that were used as a sewage system. Yaksuri Mural Tomb, Yodongseongchong, and Yonggangdaemyo murals show in great detail the symmetric gates, two-story watch towers and internal structures of the fortresses of this time. Whenever a fortress was built, the state made one person responsible for one section, which is why one name is inscribed on each stone of Janganseong in Pyeongyang.

Tombs 무덤

무덤은 집안일대에서만 13,000여기가 확인되었을 정도로 많은 수가 남아 있으나, 상당수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서 유형별로 내부구조와 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여럿 있다. 돌무지무덤에서 돌방무덤으로의 이행이 기본 흐름이나, 두 무덤양식과 고인돌무덤 및 흙무지뒸널무덤과의 영향관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고구려 돌무지무덤의 선행형식으로는 요동반도 남단 여대지방의 강상무덤, 누상무덤, 장군산무덤 등의 돌무덤이 지목되는데, 이들 돌무덤들은 고조선의 유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돌무지무덤은 초기에는 무 기단 이다가 후에는 기단식으로 짜임새를 갖춘다. 유명한 집안의 장군총은 돌무지무덤의 최종 형식으로 기단식돌무지무덤에 돌방이 더해진 구조로 되어 있다. 돌방무덤은 방의 수에 의해 여러방무덤과 외방무덤으로 대별되며, 천장 짜임에 의해 사아식, 꺾음식, 궁륭식, 평형고임식, 삼각고임식 등으로 나뉜다. 강서대묘 및 강서중묘는 돌방무덤의 완성형으로 방은 외방이며 천장짜임은 삼각고임식이다. 벽화는 돌방무덤 단계에서 나타난다.

초기의 벽화고분은 정형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회랑(回廊)이나 다관실(多棺室)의 설치 사례도 볼 수 있고, 널방 좌우(左右)에 벽화 제작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감(龕)이 달린 것도 있다. 널길도 무덤간의 한쪽 벽에 치우쳐 설치된 것이 있는가 하면, 벽의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널방을 둘러싼 회랑의 한쪽 끝에 별도의



In the area of Jian alone, more than 13,000 tombs were found but the majority had been severely damaged. As a result, the internal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ose tombs could not be analyzed well. Basically, the stone mound tomb developed into the stone chamber tomb. But we should consider how these two styles influenced dolmens and stone chamber tomb styles. Styles that came prior to the stone chamber tomb can be seen in the southern area of the Liaodong Peninsula. These tombs have been recognized as sites of Gojoseon. The primary style of the stone tomb lacked a stereobate, developing it later. *Janggunchong*, in Jian, is an example of the most developed style of a stone mound tomb and includes a stone chamber. The stone chamber tomb is divided into a multi-chamber tomb and single chamber tomb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ambers. There are also various styles of stone chamber tombs: *sahhsik*, *ggeokeumsik*, *gungreungsik*, *pyeonghaenggoimsik* and *sahmgakgoimsik*,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ceiling corbel. Gangseo Daemyo and Ganseo Jungmyeo are forms of stone chamber tombs which have single chambers and samgakgoimsik corbel ceilings. Murals appear throughout the evolution of chamber tombs.

Primary tomb murals did not have patterns. Some tombs had painted corridors, multi-coffin vaults, and included small shrines called *gahm* (龕) separated from the murals on the right- and left-hand side of the main

- 8. 장군총
(Janggunchong)
- 9. 돌무지무덤
(Stone Mound Tomb)
- 10. 동명왕릉
(Mausoleum of Dongmyeong the Great)
- 11. 강서대묘
(Gangseo Daemyo)





THE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 집안 칠성산고분군
(Chilseongsan Tombs in Jian)

통로를 설치한 태성리3호분의 경우는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천장고임의 구조도 다양한 편이다. 삼각고임, 궁륭식, 꺾임식, 평행고임 및 두 가지 이상의 고임방식이 혼합된 유형이 모두 나타나며, 평천장으로 마무리 한 경우도 있다.

구조상의 유형 분류가 쉽지 않은 초기 벽화고분과 달리 중기 벽화고분은 크게 보아 두방무덤계열과 외방무덤계열로 정비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양한 생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풍속이 벽화 주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거나, 여전히 벽화구성에서 일정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외방무덤계열로의 단일 유형화는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두방무덤 역시 기본적으로는 여러방무덤계열에 속하기 때문이다. 덕흥리벽화분이 전형적인 두방무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경우라면, 무용총은 앞방의 퇴화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벽화고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후기 벽화고분으로의 이행이 본격화하는 5세기말부터 6세기 초 사이에는 널길이 널방 입구 한 가운데에 설치되고, 널방이 정방형을 띠는 등의 특징을 지니는 전형적인 외방무덤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사신(四神)을 벽화의 기본주제로 삼는 후기 벽화고분에서는 천장고임도 정형화한다. 후기 벽화고분의 널방 천장고임은 대개의 경우 평행삼각고임, 또는 삼각고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돌방무덤이 주류인 벽화고분의 축조방식은 시기와 규모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대형 돌방무덤일 경우, 봉분의 주변에 강돌을 까는 등의 방식으로 묘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지만 무덤 주변의 발굴이 이루어진 몇몇 사례 외에는 묘역의 너비, 규모 등의 세부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봉분은 대개 방대형으로 고구려의 전통적인 돌무덤 축조방식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다. 흙으로 봉분을 쌓으면서 흙에 회를 섞거나, 흙무지 안에 석회덩어리를 넣기도 하였다. 이는 봉분의 형태 유지에 도움을 주기도 하겠으나 무덤칸 안의 벽화 보존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흙무지에 자갈을 섞고, 흙무지 위에 자갈 및 기와를 덮는 것은 흙무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습기와 빗물이 가능한 한 적게 무덤칸 안으로 흘러들게 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무덤칸 외부를 막돌로 큰 돌 사이를 메운 다음 진흙에 회와 숯을 섞어 다져 덮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무덤칸의 벽과 천장부는 초기와 중기에는 벽돌 정도 크기의 돌들을 쌓아올린 뒤 회죽으로 돌 틈을 메우고 다듬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중기 말 이후, 특히 후기의 대형 돌방무덤에는 잘 다듬은 커다란 석회암이나 화강암 판석을 축조재료로 사용하였다. 보통 무덤칸의 바닥은 회죽으로 안의 바닥이 흙과 숯, 강돌, 모래, 회 등으로 두텁게 덮이고 다져졌으며, 바닥에 무덤 안으로 흘러든 빗물 등을 배수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다. 널방에는 1개에서 3개 정도의 돌로 만든 관대를 놓았으며, 중기까지는 관대에도 회를 바른 경우가 많다.

초기 및 중기 벽화고분에 다수 등장하는 여러방무덤의 경우, 널방과 다른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 널방의 입구나 널방 둘레에 돌기둥을 세우기도 한다. 두방무덤의 널방 좌우 벽면에 붙여 2개의 관대를 설치하고 방한가운데에 돌기둥을 세우거나, 널방에 각 2개의 관대, 돌상, 돌기둥을 세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돌기둥들은 널방 천장부를 지탱하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덤칸 내부의 장치로 관대 외에 앞방 안벽에 붙여 돌로 제상(祭床)을 만들어 놓거나, 널방 안에 돌상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널방의 한 벽에는 돌관대를 놓고 다른 벽에는 돌아궁이를 설치한 뒤 그 위에 백회를 바른 경우도 있다. 무덤칸의 입구에는 외쪽이나 두 쪽으로 된 돌문을 달았다. 무덤으로 들어서는 널길 입구는 보통 회와 막돌을 섞어 다지면서 쌓아 막는데, 회와 막돌로 통로를 막은 뒤, 그 안쪽을 다시 두꺼운 화강암 판석으로 막기도 한다.

chamber. Others had painted entry passages running along one side of the wall of the burial chamber or in its middle. In Taesungri Tomb No.3, a separate passage was constructed at the end of the main chamber, which is very unusual. The structure of the corbel ceiling in the tombs varied as well. *Sahahsik*, *ggeokeumsik*, *gungreungsik*, *pyeonghaenggoimsik*, and *sahmgakgoimsik* styles were used or more than two styles used in combination. Some tombs had flat ceilings.

Unlike primary tomb murals that mak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type of tomb structure, tomb murals in the mid-period are simply divided into two-chamber tomb and single-chamber tomb. The reason for the streamlining into one style tomb is because the murals reflected a variety of life customs. Basically, the two-chamber tomb belongs to the multi-chamber tomb. Dukheungri Mural Tomb represents a typical type of two chamber tomb, while Muyongchong shows us how the front chamber gradually disappeared.

Between the late 5th century and the early 6th century, a time of further development of mural tombs, the typical single chamber tomb was built. In this type the entrance passage was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exit to the main chamber and the main chamber took on a square shape. These mural tombs were characterized by four directional deities and the typical style of the ceiling corbel, and the ceiling of the main chamber finished up with *pyeonghaenggoimsik* or *sahmgakgoimsik*.

The construction method of mural tombs (usually stone chamber tombs) varied depending on the era and size. In the case of a large-size stone chamber tomb, pebbles found in the river were spread around the tomb to distinguish the boundary. However, many details including the width and size of the boundary have not been identified except in some cases. Most mounds have angles, if not square, but the type is in line with the stone chamber tomb. When building up the soil mound, workers mixed lime with soil or put a lump sum of lime into the soil. This helped to sustain the mound and preserve the mural in the burial chamber. Mixing the soil with pebbles and covering the mound with pebbles and roof-end tiles protected the soil mound, preventing moisture and rain from going into the tomb. For the same purpose, clay was mixed with lime and soot after the gap between large stone slabs was closed with small pebbles outside of the burial chamber.

In the early and mid-period, the wall and the ceiling corbel of the tomb were finished with lime mortar to close the gap between brick-sized stones. Since the end of the mid-period, fine and large lime stones and granite panels were used to build large-size stone chamber tombs. Usually the base of the burial chamber was covered with lime mortar and cemented with soil, soot, pebbles, sand and lime. The tomb was also equipped with a sewage system to flush rain residue. There was a space made of one to three stones to sit coffins. By the mid-period, the coffin table was plastered with lime mortar.

In the case of the multi-chamber tomb seen in the early and mid-period, a stone pillar was erected at the exit or around the main chamber to separate other chambers from the main one. In the case of the two-chamber chamber tomb, a vault was built for two coffins at both ends of the main chamber; a stone pillar built at the center of the chamber; and stone figures placed in the main chamber. In this case, the stone pillar sustained the ceiling of the main chamber.

In addition to the burial chamber, a stone table for religious services was affixed to the inside wall of the front chamber or a stone figure was placed in the main chamber. At one side of the main chamber, a stone coffin table was set up. At the other end, a traditional fireplace was built and plastered with lime mortar. At the exit to the burial chamber, a single or double stone door was attached. The entrance was plastered with lime mortar and pebbles. Usually the entrance door was made of lime mortar and pebbles, and the inside of the entrance door was again covered with a thick granite panel.

5세기 평양, 고구려귀족의 일상

Life of Koguryo Aristocrats in Pyeongyang in the 5th Century

5세기에는 안정된 국제질서에 바탕을 둔 문물교류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구려의 주요도시 들에는 중국의 남조와 북조, 내륙아시아 유연, 이러한 나라들을 다리로 삼아 전래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문물들이 흘러들었다. 불교문화가 번성하였고, 인도 및 서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신앙이나 관념, 문화가 받아들여져 고구려 문화를 풍부하게 하였다. 5세기 후반에는 특유의 색깔에 다양한 국제적 감각이 덧입혀져 보편적으로 받아들 이기에 적절한 대고구려문화가 출현하여 신라와 백제,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고구려세력권으로만 여겨지던 동북아시아가 이제는 범고구려문화권으로도 규정될 수 있게 되었다.

대고구려문화의 중심이자 국제도시로 발돋움한 평양에 살면서 고구려 귀족들은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혜택과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당시 평양성은 평지에 세워졌고, 대성산성은 대성산을 에워 싸면서 만들어졌다. 500년대에는 평양의 시가지 전체를 둘러싼 장안성이 건설되었다. 보통강과 대동강, 모란봉과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자연적인 장애물로 삼아 세워진 이 성은 외성, 중성, 내성, 북성으로 구분되었다. 귀족들은 외 성 안에 형성된 시가지에 커다란 저택을 세우고 살았으며, 중성에는 관청이, 내성에는 궁궐이 자리 잡았다.

귀족의 저택은 지붕이 기와로 덮였으며, 주인부부의 거처에는 부분온돌에 해당하는 쪽구들이 설치되었다. 저택 안에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었으며, 다수의 노비들이 주인과 함께 살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거두고 꾸려나 갔다. 사랑채에는 마구간, 외양간, 차고, 서재, 행랑채 등이 배치되었으며, 안채에는 부엌, 고깃간, 곡식창고, 방앗 간 등이 세워졌으며, 우물, 연못 등도 있었다. 귀족의 부인은 안채에서 지내면서 집안 살림 전반을 관리했고, 주인 은 사랑채의 서재에서 관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바깥의 일과 관련된 손님을 맞기도 하였다.



13. 유주13군태수배례(덕흥리벽화분)
County Governors' Salutation
(Deokhungri Mural Tomb)

In the 5th century, the East Asian region witnessed an active exchange of culture and goods amid stable international order. Major cities in Koguryo received culture and goods made in Central and Western Asia through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of China as well as inland Turbs. Buddhism from India was also embraced. Koguryo culture in the late 5th century was unique in that it was enriched with a variety of external elements. It was also handed down to Silla, Baekje and Japan. North east Asia, recognizing its Koguryo influence, became a part of Pan-Koguryo culture.

Koguryo aristocrats living in Pyeongyang, the center of culture, enjoyed a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Pyeongyangseong served as the third capital of the state and was built on flat terrain, and the Daeseong fortress was built surrounding Daeseong Mountain. In the 500s, Janganseong surrounded the city of Pyeongyang. Janganseong was divided into external, middle, internal and north fortresses, taking advantage of the Botong River, Daedong River, Moran Hill and other mountain peaks. The aristocrats lived in big residences on the street inside of the external fortress, administration offices were situated in the middle fortress, and the royal palace in the internal fortress.

The roofs of aristocrat houses were covered with Korean roof-end tiles called *Giwa*. The master bedroom was equipped with a heating system called *jjok-gudeul* which heated only the area of the bed. There were many facilities inside these residences: detached structures called *sarangchae* had stable and cow-shed, a warehouse, and servants' quarters; and the main house called *ahnchae* had a kitchen, meat store, grain store house, a mill, well and pond. The master's wife stayed in the main house and ran household affairs, while the master ran his administrative business from a detached house on the grounds and also received visitors there.

The garden of the residence was the site for military training, games and plays such as Masahee (馬射戲). The master often invited performance troupes to act, sing songs or play music. When aristocrats went outside, they were followed by guards, the number of which was determined based on the individual's social status. They also rode in carriages pulled by ox and were always given the front row of any performance or event. Combative sports like Subakhee (手搏戲) and Ssireum were very popular during the period.



14. 무덤주인부부 (모사도, 각저총)
Tomb Owner & his Wives (Replica, Gakjeochong)



귀족 저택의 뜰에서는 마사희(馬射戲)와 같은 무예 수련과 직결된 놀이가 펼쳐지기도 했으며, 귀족부부가 집안 차원에서 불러들인 재주꾼들이 갖가지 신기한 재주 부리기를 선보이거나 전문공연단에 의해 악기반주에 맞추어 합창과 무용이 공연되기도 했다. 귀족이 바깥 행차를 할 때에는 지위에 따라 많은 수의 호위시종들이 따랐으며 귀족 자신은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행렬 앞에서 펼쳐지는 재주들을 관람하기도 하였다. 수박희(手搏戲)와 같은 격투기, 씨름과 같은 힘겨루기도 이 시대에 인기 있던 대중적인 놀이었다.

귀족 가운데 어떤 이들은 승려를 집으로 불러들여 설법을 듣거나 칠보공양과 같은 불교적인 행사를 열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정도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하였고, 귀족 부인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불교사원에 가서 배공양을 드리는 이도 있었다. 연꽃을 불교적 깨달음이나 정도의 상징으로 여겨 자신이 죽은 뒤에는 무덤 안을 연꽃무늬로 장식하도록 가족들에게 미리 말해 두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자신의 재산을 바쳐 절을 세우거나, 탑이나 불상을 조성하는 일도 이 시대의 고구려 귀족사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귀족들은 하루를 여유 있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평민들은 늘 바쁜 일상 속에 살았다.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 있는 농사일에서 잠시 놓여날 즈음이면 국가의 부역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로를 보수하거나 성을 쌓는 등의 일들이 농한기를 오히려 힘든 시기로 만들었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병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이 평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농토를 가지거나 빌리지 못한 사람들은 도시와 시골을 오가면서 소금과 같은 생필품을 팔거나 장터에서 간단한 수공품을 매매하여 남긴 이문으로 양식거리를 마련하였다. 그런 재주도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들어가 생계를 이어갔다. 동맹제의를 비롯한 제천행사, 마을 단위의 제의 등에 뒤따르는 놀이판 구경이나 참여가 그나마 일반 백성들에게는 힘든 일상 속의 청량제 구실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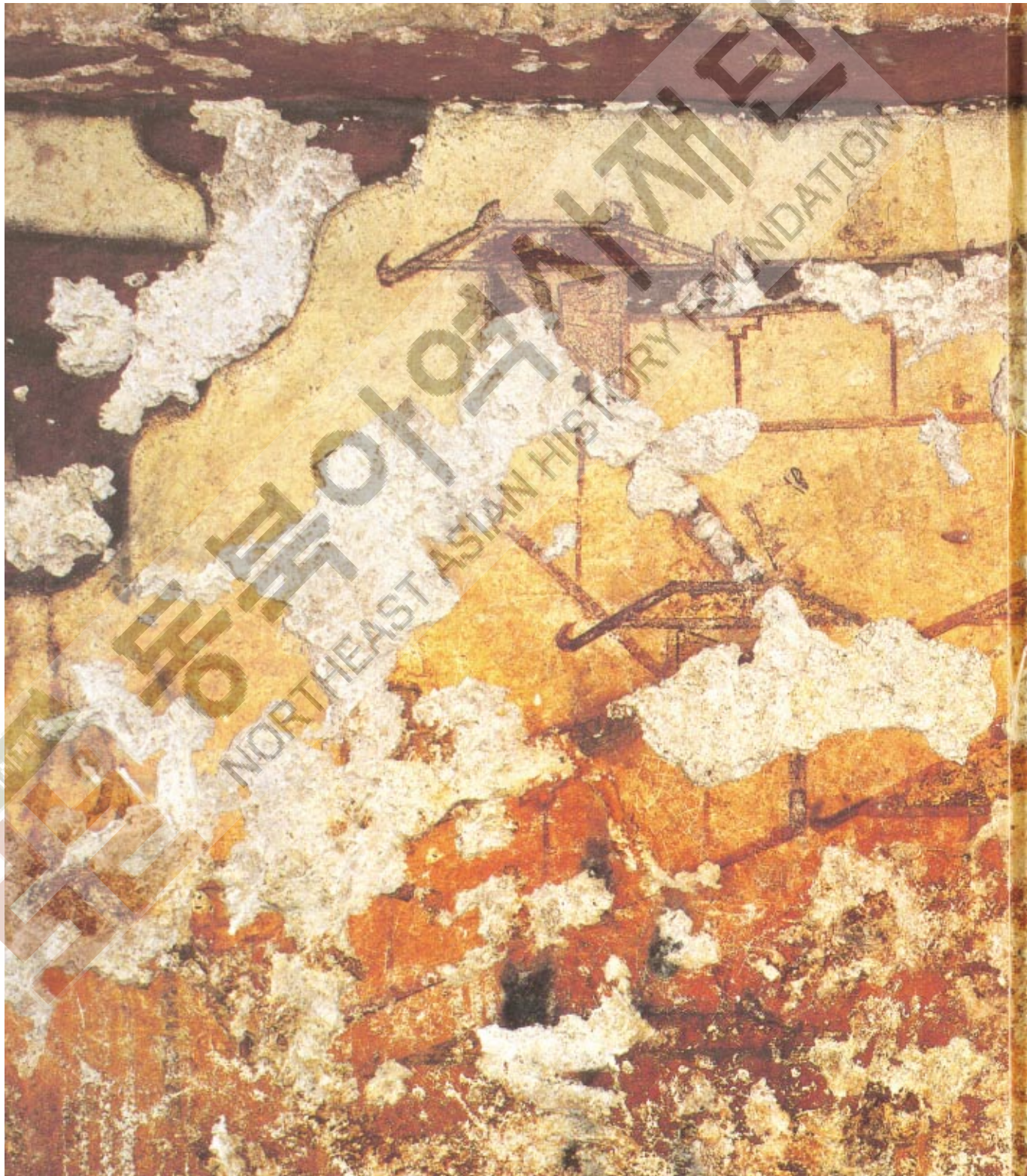
Some aristocrats invited monks into their residences so that they could hear Buddhist sermons and hold Buddhist ceremonies such as Chilibogongyang in which they prayed for the Buddhist paradise called *Jeongto*. Their wives often visited Buddhist temples to pray. As they considered the lotus flower a symbol of Buddhist ideology and paradise, many left wills stating their desire to have their tombs decorated in the pattern of the lotus flower. Often, aristocrats would build temples, pagodas or Buddhist statues in exchange for property.

The life of commoners was much harder. After the farming season, they were then subject to statutory labor—repairing roads or building fortresses—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m to rest. They were also obligated to enlist as soldiers whenever a war was waged. Often those who did not own land migrated from the country to the city to sell such necessities as salt. They also bought and sold simple arts and crafts as a way to make money to support their families. Those who lacked any kind of special skill were forced to work as servants in aristocrat houses. Performance or participation in the performance followed by Dongmeng ritual was the only entertainment the commoners had enjoyed.



15. 무덤주인부부의 나들이(수산리벽화분)
Picnic of Aristocrat Couple(Susanri Mural Tomb)

Houses 집





16. 전각(안악1호분)
Mansion(Anak Tomb No. 1)

고구려 귀족의 저택은 중문(中門)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로 나뉘어 있었으며 바깥채에서는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었고 안채에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 귀족의 저택에는 거처와 부엌 외에도 외양간, 마구간, 방앗간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부속건물이 갖추어져 있었다. 비교적 내부구조가 상세히 그려진 안악3호분과 약수리벽화분의 부엌그림은 아궁이와 굴뚝의 방향이 일직선을 이루는 중국의 것과는 달리 고구려의 부뚜막이 아궁이의 입구방향과 굴뚝출구방향이 한번 구부러져 직각을 이루는 고구려 독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실제 집안의 마선구1호분에서는 벽화와 같은 형태의 유약 바른 도제화덕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부엌의 시루 걸린 부뚜막과 갈퀴 발 달린 소반, 마당의 용두레 우물, 방앗간의 디딜방아, 다락집모양의 창고, 코뚜레를 쥔 외양간의 소 등등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농촌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경이다.

저택의 실내에서는 평상(平床)이나 좌상(坐床)생활이 보편적이었다. 평상은 의자에 비해 앉는 자리는 넓으나 다리 길이는 짧게 만들어 온돌로 된 방바닥과 가깝게 하였다. 이외에 저택 안에 마련된 거실과 같은 공간에서는 의자생활도 이루어졌음이 각저총과 무용총벽화를 통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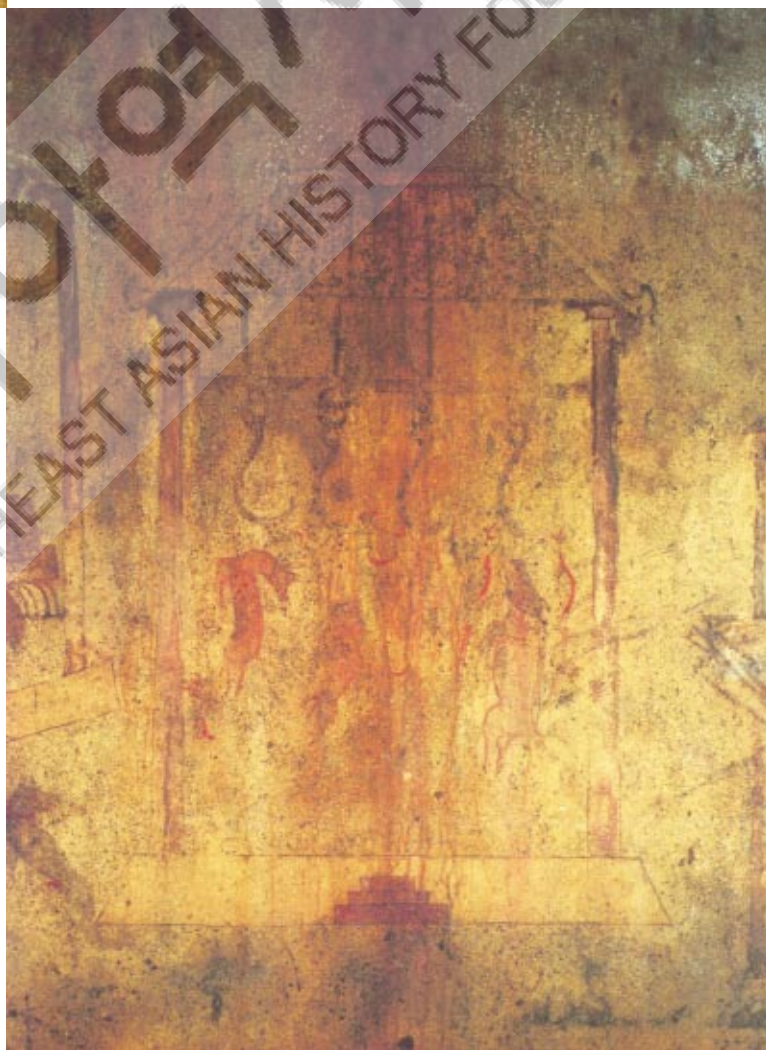
집안의 난방은 벽을 따라 설치된 온돌을 통해 해결하였다. 온돌은 고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고구려시대에 이르면 특정한 용도의 집짓기에는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의 하나가 된다. 비교적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했던 고구려 사람들은 흙으로 마감된 방바닥의 일부를 데워 방안의 공기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이 새로운 난방방

Koguryo aristocrat residences were comprised of a detached house and a main house with an inner gate in between. An annex called *bahgahuchae* (outbuilding) was used for public affairs and the main house for private and daily routines. In addition to the master room and kitchen, there were stable, mill and other annexes. Murals from the Anak Tomb NO.3 and the Yaksuri Mural Tomb show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se detail. Notably, the cooking fire pit and chimney in the kitchens, called *buttumak*, are shown to be built at a right angle in contrast to those in China that were built in parallel. This is a very unique form seen only in Koguryo. A glazed stove similar to the one described in the murals above was excavated in Masungu Tomb NO.1 in Jian, China. Chinese kitchens, however, did share some similarities with Korean ones: they both had cooking areas upon which earthenware steamers hung; trays with tines of rake attached; wells with buckets in the yard; treadmills; two-storied storages; and ox with rings in their noses. These are all seen in agricultural areas in Korea as well.

Inside the rooms of the house flat benches called *pyeongsang* or chairs with no legs called *jwasang* were used. *Pyeongsang* is wider than a chair but its legs are short so that it comes closer to hypocaust called *ondol* (winter floor heating system). Further, Gakjeochong and



17. 부엌(안약3호분) Kitchen(Anak Tomb No.3)



18. 고깃간(안약3호분)
Meat Store House(Anak Tomb No.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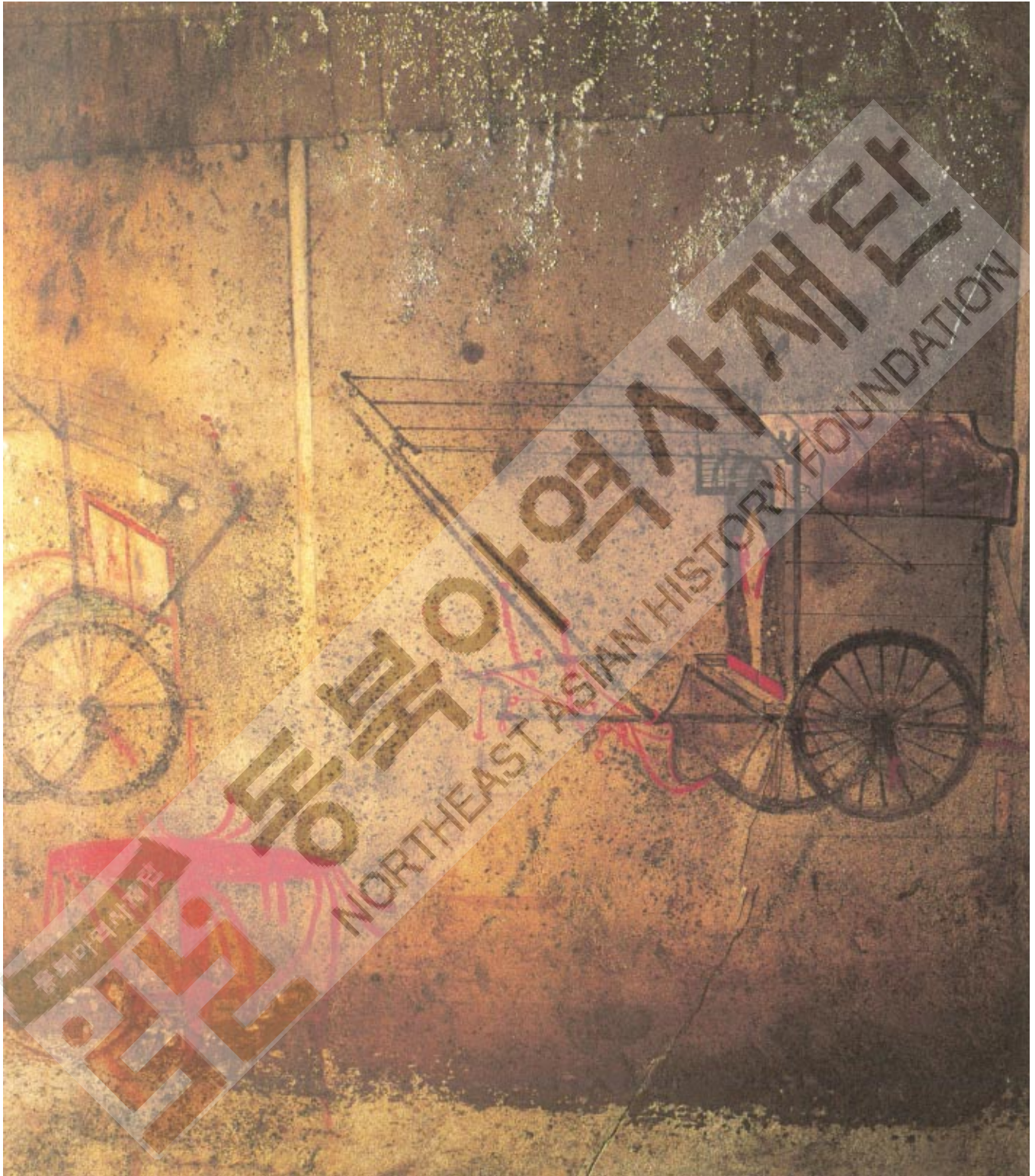
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나간다. 유적을 통해 확인되는 초기 단계의 온돌은 방바닥의 한쪽 벽에 붙여 ‘一’자 혹은 ‘ㄱ’자 꼴로 고래를 만들어 한쪽 끝에서 불을 때면 열기와 연기가 고래를 타고 지나다가 다른 쪽 끝에 설치된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아궁이에서 마른나무와 같은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연소열이 굴[터널]을 이루며 바닥 밑을 지나는 고래 위쪽의 편평한 돌을 데워, 그 열이 방의 흙바닥으로 전달됨으로써 방바닥의 공기가 데워지고,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위의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 구들 돌 및 흙바닥의 열로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방안에 있는 사람이 온기를 느끼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구려의 온돌은 집안시 외곽의 동대자(東台子)유적과 황해도 오매리 절골유적 등에서 잘 볼 수 있으며, 최근 조사된 아차산의 고구려보루에서도 같은 형태의 온돌이 많이 발굴되었다. 온돌을 집 구조의 주요한 부분으로 여기도록 만든 고구려의 바닥난방법은 서쪽으로는 북중국 일대, 남쪽으로는 신라와 백제로 전해지면서 지역별 기후조건, 생활조건에 맞도록 개발되고 변형된다. 일정한 기술과 적절한 비용이 요구되었으므로 고구려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초기에는 온돌이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설치되었다. 궁성이나 사원, 관청, 귀족의 저택에서는 온돌이 널리 사용되었고, 방바닥의 온돌 설치 면이 넓었지만, 일반 백성의 가옥에서는 온돌의 사용이 드물었으며, 온돌 설치 면도 좁았다.

Muyongchong murals confirm that chairs were used in places like the dining room.

Heating was facilitated by *ondol*, that is, floor heating. Remains of the *ondol* system show that it belonged to Gojoseon. During the Koguryo period, the *ondol* system became one of the main elements in the building of a house. The Koguryo people who had to withstand the cold winter heated a portion of the clay-made floor to sustain the warm temperature in the room. Relics found of the primary *ondol* system include a hypocaust flue shaped ‘一’ or ‘ㄱ’ and affixed to floor. When a fire was made at the end of the flue, the heat and smoke went through the flue and came out the other end through a chimney. The heat coming from dried branches and other materials warmed the flat stone above the hypocaust flue, which in turn heated up the clay floor. As the warm air rose, the cold air fell, making the room heat up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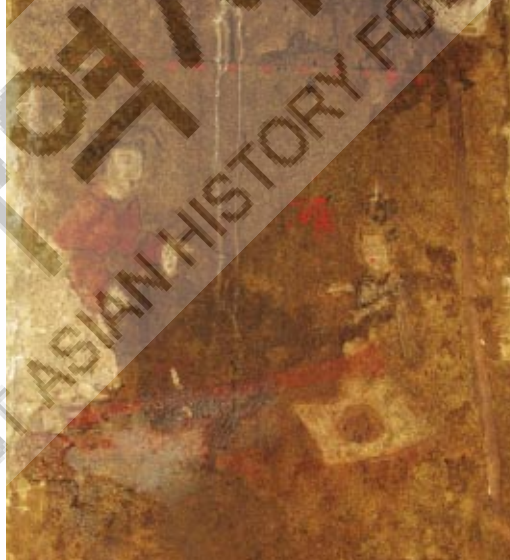
Koguryo's *ondol* system can be identified in relics of Dongdaejja (東台子) in Jian, China and Omeri Jeolgol in Hwanghae province in North Korea. There was a recent finding of this type of *ondol* system in a Koguryo fort located in Acha Mountain in Seoul. The system was used in North China to the west and Silla and Baekje to the south, revised according to climate and lifestyle. Since building the system required special skill and cost, it was used only in the royal palace, temples, administrative offices, and the residences of aristocrats. Commoners rarely used the *ondol* system, but when they did, only heated a small portion of the floor.



19. 차고(안악3호분)
Carriage Shed(Anak Tomb No.3)



20. 우물(안악3호분)
Well(Anak Tomb No.3)



21. 방아간(안악3호분)
Mill(Anak Tomb No.3)



22. 외양간(안악3호분)
Cow-shed(Anak Tomb No.3)



□ 옷

고구려인의 옷차림은 문헌기록보다는 고분벽화의 인물도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고분벽화의 인물도로 볼 때, 고구려 남자의 옷차림의 기본은 내륙아시아의 유목민족의 옷차림과 통하는 저고리와 바지였으며 여기에 겹옷과 띠, 머리장식과 머리쓰개, 신발 등이 더해졌다. 여자의 기본적인 옷차림에는 위의 요소에 치마가 더하여진다. 저고리, 바지, 치마, 겹옷의 재질과 빛깔, 통의 넓이, 선의 장식성, 옷 무늬 등은 신분과 계급,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귀족들의 옷이 여러 가지 색 바탕에 화려한 무늬가 장식된 비단옷으로 통이 넓고 길어 예절용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 반면, 평민의 옷은 무늬가 없고 색깔이 단조로우며 통이 좁아 활동하기 편한 것이 많았다. 자지힐문금(紫地詰文錦), 오색금(五色錦), 운포금(雲布錦) 등은 고구려가 자랑하던 고급비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마선구1호분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직기(織機)로 추정되는 기구의 모습이 그려졌으며, 대안리1호분 벽화 가운데에는 한 여자가 직기 앞에 앉아 천을 짜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지역적인 차이는 집안과 평양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집안지역에서는 비교적 밝고 단순한 색상의 바탕천에 점무늬, 마름모무늬, 꽃무늬 가운데 한 가지를 간결하게 반복하여 장식한 옷이 선호되었다면 평양지역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의 바탕천에 구름무늬, 물결무늬, 넝쿨무늬, 각종 기하무늬 등을 두세 가지씩 복잡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옷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고유색이 강하였던 집안지역과 중국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평양지역의 문화전통상의 차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Attire

옷차림

□ Clothes

The attire of the Koguryo people can be more seen in mural figure drawings than in documents. According to these drawings, nomadic tribes inland of Asia shared the same style of attire with the Koguryo people. Males basically wore a Korean jacket called *Jeogori* and Korean trousers called *baji*. They also wore outer garments, bands, head ornaments and headwear, and shoes. Female clothes were very similar to that of male with the addition of a long, wide skirt. The materials, colors, girth of trousers and skirt, seam decoration and pattern of clothes differed according to social status, class, and region. Aristocrats wore silk fabric with a showy pattern and clothes with a wide and long girth. In contrast, commoners wore fabric with no patterns and monotonous colors and the girth of the clothes was narrow. Jajihilmungeum (紫地詰文錦), Osaekgeum (五色錦), and Unpogeum (雲布錦) are representational quality silk fabrics made in Koguryo. A weaving machine was drawn in Masungu Tomb No.1 and a woman weaving fabric in front of a weaving machine in Daeanri Tomb No.1.

Differences according to locality are shown in great detail in Jian, China and in Pyeongyang in Koguryo. In the Jian area, dots, diamond shapes and flower patterns were repeatedly used on bright and simple colored fabric. But in Pyeongyang, one or two clouds, waves, vines, and various geometric patterns were used on more various and splendid-colored fabric. This was because Pyeongyang accepted the cultures of the Jian area and of China as a whole.



24. 남자(삼실총)
Man (Samsilc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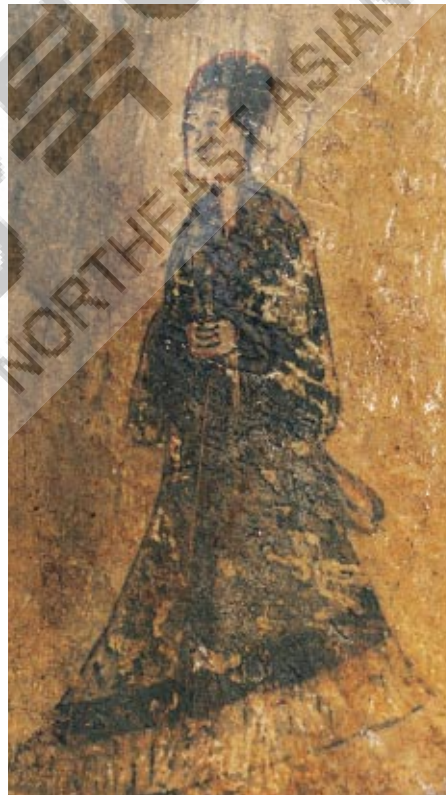
25. 남자(덕흥리벽화분)
Men(Deokhungri Mural Tomb)



26. 남자(수산리벽화분)
Men(Susanri Mural Tomb)



27. 여자(수산리벽화분)
Woman(Susanri Mural Tomb)



28. 여자(삼실총)
Woman(Samsilchong)



29. 여자(덕흥리벽화분)
Women(Deokhungri Mural Tomb)

남자가 입을 앞이 트인 저고리의 여밈은 어깍기로 이른 시기에는 원여밈이, 늦은 시기에는 오른여밈이 애용되었다. 저고리의 길이는 허리 아래로 약간 내려오는 정도였으며 소매 끝과 깃, 도련에는 선(麩)을 달았다. 바지의 형태는 오늘날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겉옷으로는 공식석상에서 흔히 입는 긴 두루마기와 일상생활용인 덧저고리가 있었으며 여밈은 맞여밈과 어깍여밈 두 가지였다. 허리에 매는 띠에는 천이나 색실 가죽만을 재료로 한 것과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띠 위에 금, 은, 철제 장식을 매단 것의 두 가지가 있었다.

여자의 저고리와 바지는 형태와 용도, 특징이 남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치마는 주름을 잡고 단에 선을 댄 것이 특징이었으며, 길이는 정강이까지 오는 것에서 발까지 가릴 정도의 긴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여자의 겉옷으로는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소매 끝과 깃, 아랫단에 선을 대었으며 그 길이는 저고리보다 조금 길었다. 띠의 색깔은 검은색, 흰색, 붉은색, 자주색, 연록색 등 여러 가지였으며, 삼각형이나 꽃잎 모양의 장식물을 매달기도 하였다. 머리장식은 크게 시집간 부녀자의 머리형식인 올린 머리와 처녀와 아이들의 머리형식인 내린 머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올린 머리는 다시 여염집 부녀들의 얽은머리와 상급귀족 및 왕실부녀들의 고리 튼 머리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출토된 여성의 장식물로는 은이나 청동으로 만든 비녀, 금반지와 팔찌 등이 있으나, 고분벽화에는 보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장신구가 보인다.

For males, the jacket was done up left to right in earlier times but changed from right to left later on. The jacket was long enough to slightly cover the waist. The end of the sleeves and collar, and the lower part of the jacket were trimmed with narrow tape named *seon* (麩) made of another fabric color. As for the outer garment, males wore a long coat called *durumagi* for public occasions and *deotjeogori* layered over the jacket for daily life. There were two types of coat arrangements: *matyeomim* and *uhgimyeomim*; and two types of waist bands: one that uses only fabric, colorful thread and leather, and one that hangs gold, silver and metal ornaments over the band made of either fabric or leather.

For females, *jeogori* and trousers were not that different from those of males in terms of form, usage and features. The long, wide skirt had creases and *seon* at the end. Its length varied, covering either the shins or feet. Females also wore long coats. The sleeves and collar of the coat were trimmed with *seon*. The coat was a little longer than that of the jacket. The color of the waist band varied from black, white and red, to purple and light green. The band was adorned with triangular or flower shaped-ornaments. Two types of hairstyles were worn by women: the up style worn by married women (*ollin meori*); or the ponytail worn by unmarried women and children (*naerin meori*). The up style itself is divided into two types: the first had the hair wound up on the top of the head and was worn by the common class (*unjeun meori*); and the second had the hair twisted in one or many ring shapes and was worn by the high class and royal family members (*goriteun meori*). Excavated female ornaments include hairpins called *binyeo*, gold rings and bracelets. However, the murals show that many more were worn.

▣ 모자와 신발

머리는 보통 외상투로 틀었다. 머리쓰개로는 머리수건, 절풍(折風), 책(), 관(冠), 패랭이 등이 있었다. 검은색 머리수건과 패랭이는 신분과 계급에 관계없이 사용되었다. 머리수건은 특히 평민들이 애용하였다. 절풍은 검은색의 테, 앞쪽의 흰 가리개, 양옆의 끈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고유의 모자로 신분상의 차이에 따라 양옆에 새깃을 꽂거나 금속제 장식을 달기도 하였다. 책은 관리들이 쓰던 머리쓰개로 테 위에 세 개의 뿔이 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로 문관이, 뒤 운두가 뾰족하게 솟은 것은 주로 무관이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책은 뒤에 '수(收)'라고 불리는 천을 드리우지 않은 점이 중국의 책과 다르다. 관은 발이 성긴 비단인 라(羅)로 짠으며 왕은 백색, 대신은 청색, 상급귀족은 붉은색 라관(羅冠)을 썼다. 신발은 벽화에 목이 달린 신과 목이 없는 신의 두 가지가 보이는데, 모두 신코가 도드라진 점이 특징이다. 고구려인이 코가 도드라진 버선을 즐겨 신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신바닥에 날카로운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것이 벽화 및 유물을 통해 확인되는데, 전투용 신발이다.

▣ Hats and Shoes

Males usually wore their hair in a single top knot. Their headwear included hoods, jeolpung (折風), chaek (), gwan (冠), and paeraengi, etc. Black hoods and paeraengi (bamboo hats) were worn by everyone regardless of status and class. Hoods were especially worn by commoners. Jeolpung is a cone-shaped hat with a black rim, a white veil that covers the face, and strips at both sides. Depending on status, the jeolpung had feathers or metal ornaments at both ends. Public officials wore chaek. In particular, civil servants wore chaek with three horns on the rim, and military officers wore chaek with the back of the peak higher. Koguryo's chaek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Chinese chaek had a cloth called *su* (收) draped on the back. Gwan was loosely weaved with silk called *rah* (羅). Kings wore a white gwan, ministers a blue gwan, and high level aristocrats a red gwan. Murals show shoes that stretched to the ankle and some lower than that. All shoes had unique tips called *ko*. Koguryo people enjoyed wearing Korean traditional socks called *buhseon* with unique tips. Many murals and relics confirm the existence of combat shoes which had sharp nails hammered from inside to outside the sole.



30. 책(덕흥리벽화분)
Chaek(Deokhungri Mural Tomb)



31. 책(안악3호분)
Chaek(Anak Tomb No.3)



32. 절풍(모사도, 무용총)
Jeolpung(Replica, Muyongc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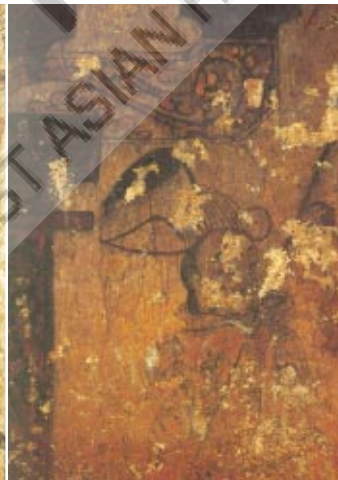
33. 절풍(삼실총)
Jeolpung(Samsilchong)



34. 두건(덕흥리벽화분)
A Hempen Hood(Deokhungri Mural T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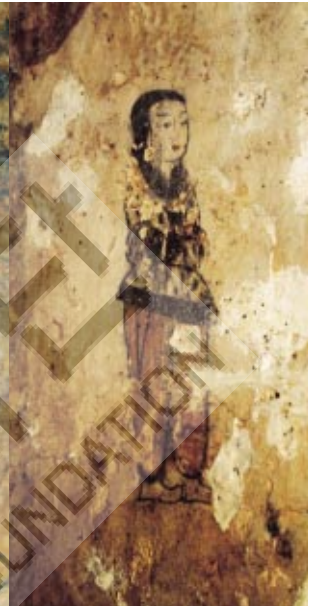
35. 투구(삼실총)
Helmet(Samsilchong)



36. 투구(안악2호분)
Helmet(Anak Tomb No.2)



37. 상투(삼실총)
A Topknot(Samsilchong)







39. 고리튼머리(안악3호분)
Gori teun Meori
(Anak Tomb No.3)

40. 올린머리(삼실총)
Olin Meori
(Deakhungei Mural Tomb)

41. 내린머리(무용총)
Naerin Meori
(Muyongchong)

38. 건괘(삼실총)
Geongwick(Samsilchong)

<p>42. 목긴가죽신(수렵총) Shoes Stretched to the Ankles (Suryeopchong)</p>	<p>43. 흰신발(덕흥리벽화분) White Shoes(Deokhungri Mural Tomb)</p>	<p>44. 각반찬신발(수산리벽화분) Shoes with Gaftered Legs(Susanri Mural Tomb)</p>	<p>45. 코높은신발(오회분4호묘) Shoes with Unique Tips (Ohoebun Tomb No.4)</p>
			

□ 음식과 요리, 상차림

고구려인의 주식은 조와 콩을 비롯하여 밀, 보리, 수수, 기장 등 곡물류였다. 콩과 보리, 조, 기장 등은 집안일대의 고구려 유적에서 탄화

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 조나 보리, 수수 등의 곡물은 가루를 내어 시루에 찌 먹었다. 실제 고구려의 유적에서는 시루가 출토되고 있으며, 안악3호분 벽화에는 시녀로 보이는 여자들이 곡식이 담긴 시루를 아궁이 위에 얹은 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국자로 시루 속을 저으며 조리해 열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육식의 대상으로는 소, 돼지, 닭, 개 등 사육하는 가축뿐 아니라 사냥을 통해 얻는 멧돼지, 노루, 꿩과 같은 짐승들도 있었다. 오늘날의 불고기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맥적(貊炙)은 고구려의 고기요리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정사(正史) 동이전류(東夷傳類)에 함경도 일대의 옥저인이 '물고기와 소금'을 갖다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 해산물도 식탁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귀족 저택의 부엌은 안채와 분리되어 있었다. 하녀는 부엌에서 조리가 끝나면 음식을 그릇에 담아 소반에 받쳐 들고 안채나 사랑채로 가 상차림을 했다. 무용총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과 손님의 상은 따로 차렸으며, 상마다 음식을 따로 놓기도 하였다.

46. 음식상나르기(모사도, 무용총)

Delivering the Dishes(Replica, Muyongchong)



▣ Food, Dishes, Table Settings

The staples of the Koguryo people were millet, wheat, barley, soybeans and other grains. Burned grains were found in the remains of Koguryo in Jian, China. People ground the grains and steamed them in steamer bowls. In fact, steamer bowls have been excavated in many Koguryo relics. For instance, the mural in Anak Tomb No. 3 indicates a servant-looking woman stirring grains inside a steamer bowl placed on a fire pit.

The Koguryo people raised cows, pigs, chickens, dogs and other livestock to eat and hunted boars, deer, and pheasants. Maekjuk (貊炙), similar to “bulgogi” today,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ir meat dishes. A Chinese chronicle of history indicates that the Okjeo people in Hamgyeong province brought fish and salt to Koguryo. That means seafood was also on the table at that time.

The kitchens in the residences of aristocrats were separated from the main rooms. Female servants put food on the tray, delivered the dishes to the main room or detached house, and placed them all on the table. The mural in Muyongchong shows that tables were set for the master and his guests separately.

47. 상차림(모사도, 각저총)
Setting the Tables(Replica, Gakjeochong)



□ 놀이

고구려인이 노래와 춤, 기예를 즐겼음은 중국의 역사기록에서도 흔히 지적되는 사실이다. 고구려의 기예는 귀족 및 왕이 배푼 연회나 야유회, 고취행렬 중에 행해졌다. 고구려 사람들, 특히 귀족들이 즐겼던 공연 가운데 하나는 재주이다. 놀이, 교예, 곡예, 기예, 환술, 서커스 등으로도 불리는 재주 공연은 보통 전문적인 기예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주공연은 귀족들이 행차하는 행렬 한가운데에서 펼쳐지기도 했고 귀족이 집으로 찾아온 귀한 손님을 맞은 뒤 마련된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장천1호분벽화에는 집주인과 손님의 야유회 장소에서 재주가 펼쳐지는 장면이 담겨 있고, 수산리벽화분 벽화에는 고구려 귀족부부의 나들이 도중 이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재주가 공연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약수리벽화분 벽화에는 큰 행렬을 이루며 행차하는 귀족의 수레 앞에서 재주꾼들이 재주를 보이는 장면이 남아 있다.

고구려 기예단의 재주 종류는 크게 말 타기, 손 놀리기, 발 놀리기, 칼 부리기, 짐승 부리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리벽화분의 재주공연 장면은 손 놀리기와 발 놀리기 위주로 구성되었다. 소매와 가랑이가 좁은 저고리와 바지 차림의 손 놀리기 재주꾼은 두 다리는 약간 벌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는 뒤로 뺐으며, 목과 머리는 90° 가까이 뒤로 젖혀 하늘을 쳐다보면서 크게 벌린 두 팔을 바빠 놀린다. 허공을 향한 긴장된 눈길 위에는 막대 3개와 공 5개가 서로 엇갈리며 오르내리고 있다. 손 안에 쥐고 있을 공 한 개 외에 8개의 막대와 공은 모두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곤란한 것이다. 재주꾼의 손과 눈길, 발끝은 긴장되면서도 리듬감 있는 3박자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다. 이 재주꾼의 뒤에서는 비슷한 복장과 자세의 다른 재주꾼이 살아 많은 바퀴를 공중에 던져 올려 굴리고 있고, 두 재주꾼의 위쪽 공간에서는 또 다른 재주꾼이 사람 키 높이의 나무다리 위에 올라서서 두 손끝에 작은 물건을 올린 상태로 묘기를 보여준다.

한편, 팔청리벽화분 벽화에는 짐승 부리기 외의 모든 재주들이 등장한다. 빨나팔 연주에 맞추어 갖가지 묘기를 보여주는 말 타기 재주, 여러 개의 막대기와 공을 엇바꾸어 던져 올리는 손재주, 원함 반주에 맞추어 높은 나무다리에 올라가 춤추는 발재주, 두 사람이 짝을 이룬 칼부림 재주 장면을 팔청리벽화분의 재주그림에서 볼 수 있다. 손 놀리기 재주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재주공연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오늘날 흔히 저글링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손재주가 고구려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재주꾼이 손에 쥐는 공까지 모두 6개의 공과 3개의 막대기를 한꺼번에 다루는 팔청리벽화분, 수산리벽화분 벽화의 재주 장면은 5세기 경 고구려 기예단의 기예가 당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짐승 부리기는 장천1호분 벽화에만 표현되었다. 장천1호분의 주인공이 주관한 야유회 행사의 하나로 기예단의 재주가 펼쳐지는 모습이 벽화에 보이는데, 재주꾼 두 사람 가운데 앞의 사람은 간두희(竿頭戲)로도 불리는 재주를 펼쳐 보이는 중이다. 고개를 제키고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약간 뺐 채, 막 왼손에 쥐고 있는 공을 위로 던지려는 자세이다. 오른손에 잡은 막대 끝에 올려진 평판 위에는 공이, 다시 그 위에는 평판, 공이 잇달아 올려진 상태이다. 뒤의 인물은 두 무릎을 조금 굽히고 머리를 제켰으며, 오른손에는 작은 곤봉을 잡고 휘두른다. 그의 바로 옆 탁자 위에는 원륜이 하나 놓여 있다. 역시 이 재주꾼의 소도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주인과 손님 사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에는 원숭이 두 마리가 줄기를 오르내리고 이 짐승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두 사람의 남녀가 그려졌다. 굵은 나무줄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한 마리의 황색 원숭이는 목에 줄을 매었고 머리에는 흰 가면과 같은 것을 썼으며, 나무뿌리 위에 있는 또 한 마리의 황색 원숭이는 흰곰 머리처럼 보이는 가면과 같은 것을 쓴 채 그 오른편의 의자 위에 앉은 무덤주인을 향해 절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커다란 나무를 무대 공간 겸 도구로 삼아 원숭이를 부리는 재주가 두 남녀 재주꾼에 의해 귀족들 앞에서 공연되고 있는 것이다. 재주를 공연하는 이들 재주꾼들은 하나같이 짧고 소매통이 좁고 짧은 저고리와 바지 차림이다.

▣ Plays

Many Chinese history records point out that the Koguryo people enjoyed singing, dancing and art performances. These were often performed at feasts offered by the king and aristocrats or during the march of gochwiak (ceremonial or processional music). Tumbling called *nori*, *gyoye*, *gokye*, *giye*, *hwansul*, or circuses were performed by a troupe. The performance usually took place during a procession of an aristocrat or at a residence when a master invited a guest. Jangcheon Tomb No. 1 depicts a scene where the master and his guest are enjoying a tumbling performance at a picnic. The Susanri Mural Tomb shows an aristocrat couple at a picnic watching a tumbling performance. Yaksuri Mural Tomb shows professionals tumbling before a large-scale procession of an aristocrat.

A Koguryo troupe would perform horse riding, juggling, feet-playing, sword-playing and animal-handling. The Susanri Mural Tomb shows juggling and foot-playing. Performers wear jackets with narrow sleeves and tight trousers. A juggler opens his knees slightly and keeps them bent, turns his hip back, leans his head back at a right angle, and puts his hands in the air. In the air, three poles and five balls are juggled. Except for one ball in the hand, three poles and five balls are in the air. The juggler's hands, eyes, and toes are strained and follow the waltz rhythm. Behind him, another performer in similar attire and similar pose throws a wheel with many spokes into the air and plays it. Above these two, another performer stands on a wooden bridge holding two small objects in his hands.

The Pahlcheongri Mural Tomb shows all kinds of performances except animal-playing. Feats include horse riding; juggling with poles and balls to a horn trumpet; feet-play on a high wooden bridge; musical instruments; and pair plays with swords. Juggling is shown in almost all of the murals. This performance proved very popular among the Koguryo people. We can conclude that the juggling performance using six balls and three poles shown in the Pahlcheongri Mural Tomb and Susanri Mural Tomb had reached its peak in the 5th century.

Animal-handling was expressed only in Jangcheon Tomb. No. 1 There the main character depicted is hosting a picnic where the troupe performs. A member of the troupe performs a skill called *Gahnduhee* (竿頭戲). He leans his head back, turns his hip to the back and is about to throw the ball in his left hand into the air. A small panel is put on top of the pole in his right hand. A ball is placed at the center of a small panel. Then, another panel is put on the ball and another ball is piled on the panel. The other performer has his knees bent and his head leaned back and brandishes a club in his right hand. On the table next to him sits a wheel which might be one of the items for the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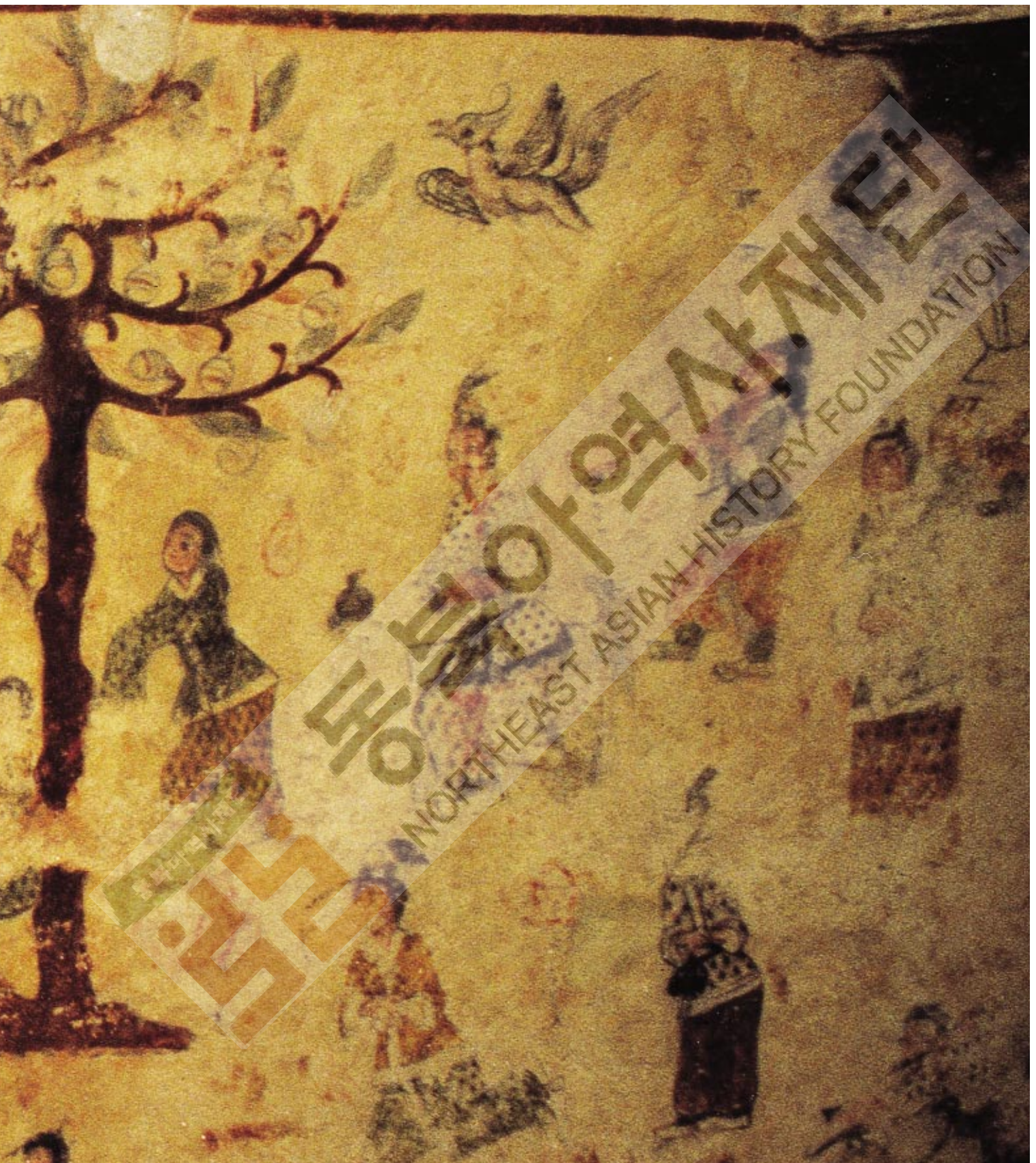
In the tomb, two monkeys climb up and down on a big tree situated between the master and his guest. A couple of men and women direct something while watching the monkeys closely. One yellow monkey climbing down from the tree has his neck bound and wears a white mask. Another yellow monkey sitting on the trunk is bowing to the occupant of the tomb sitting on the chair on the right while wearing a white bear mask. Taking advantage of the big tree as a stage and instrument, the monkeys perform before the couple. All of these performers wear short and narrow sleeves, short jackets and trousers.



48. 곡예(수산리벽화분)
Circus(Susanri Mural Tomb)



49. 곡예(장천1호분)
Circus(Jangcheon Tomb No.1)



□ 춤과 노래

고구려 사람들은 옷소매가 긴 저고리, 통이 넓은 바지나 품이 넓은 치마를 입은 무용수가 몸을 돌리거나 발을 내딛으면서 팔을 빠르게 제

키거나 굽혔다 펴 풍성한 옷자락의 움직임과 나풀거리는 옷소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춤을 즐겼다. 삼시에 팔을 저으며 훨훨 춤을 추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새가 나래를 펼치고 나는 듯이 보이게 했던 고구려 사람들의 소매 춤은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널리 알려졌던 고구려 공연예술 장르의 하나였다. 춤은 일반적으로 춤추는 사람의 수에 따라 홀로 추는 춤, 둘이 추는 춤, 여럿이 추는 춤으로 나뉘며, 춤추는 사람이 도구를 쓰는지의 여부에 의해 도구를 지닌 춤과 그렇지 않은 춤으로 다시 나뉜다. 또한 협연 형태에 따라 남녀합창에 맞추어 추는 춤, 거문고 등의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이런 다양한 형식의 춤이 모두 나타난다.

무용수와 연주자들은 흔히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했으며 이마와 볼에는 연지와 곤지를 찍었다. 장천1호분 벽화에는 얼굴을 붉게 화장한 무용수와 오현금 반주자가 만나는 장면, 무용수가 오현금 연주에 맞추어 긴 소매를 너풀거리며 춤추는 모습이 한 화면에 그려졌다. 무용수가 음악에 맞추어 홀로 춤추는 모습은 안악3호분 벽화에도 보이는데, 이 경우 반주자는 무려 셋으로 나란히 줄을 이루고 앉아 각각 긴 저, 완함,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다른 벽화와 달리 이 벽화에 등장하는 무용수는 코가 높게 조각된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고, 춤동작 역시 빠른 몸놀림이 전제된 중앙아시아 쪽의 호선무를 연상시킨다. 당연히 옷도 이런 춤에 적합한 짧고 좁은 소매의 저고리와 통 좁은 바지 차림이다. 통구12호분 벽화에는 한 사람의 거문고 반주에 맞추어 두 사람의 무용수가 춤추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앞으로 발을 내딛거나 무릎을 살짝 굽혔다가 펼치면서 팔을 움직여 소매를 너풀거리게 하는 고구려 춤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여러 사람의 무용수가 등장하는 군무는 무용총 벽화에 잘 표현되었다. 춤을 이끄는 사람과 열을 이루어 춤추는 사람까지 모두 6명의 무용수가 남아 있는 무용총의 무용장면에는 반주자가 등장하지 않는 대신 7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대가 등장한다. 3명, 2명으로 나뉘어 줄을 이룬 무용수들의 옷차림은 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색의 배열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오른쪽 줄 무용수들의 저고리와 바지색이 서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하고,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왼쪽 줄 무용수 가운데 옷차림이 같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두루마기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하여 춤추는 동안 관람자들로 하여금 춤동작과 옷 색깔이 함께 변화하며 조화를 이루는 듯이 느끼게 하려 한 것이다. 이미 고구려시대에도 춤과 같은 특수한 분야는 전문적인 기획과 연출을 바탕으로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구를 쓰는 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안악3호분 벽화 대행렬도에 보이는 칼과 활을 손에 들고 추는 춤이다. 팔청리벽화분의 행렬도에도 칼춤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두 남자가 각각 오른 손, 혹은 왼 손에 긴 검을 하나씩 손에 쥐고 몸을 낮추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칼 부리는 재주를 사람들에게 선 보이고 있는데, 행군 도중, 혹은 진영 안에서 펼쳐지는 이와 같은 무기춤은 놀이와 훈련을 겸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무기류를 손에 들고 춤을 출 때에 반주에 쓰이는 북이나 소, 뿔피리 같이 울림이 크거나 높고 날카로우며 박자가 빠른 음악을 연주할 때에 쓰이는 악기들이다. 자연 춤 동작도 크고 격렬하며 무용수도 거의 예외 없이 남자이다. 안악3호분 벽화에는 작은 북을 몸에 건 채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도 보이는데, 오늘날 전통공연의 한 장르로 남아 있는 북춤의 가장 오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북춤 장면은 오회분5호묘 벽화에도 보인다. 소매 춤과 달리 도구 춤의 경우, 무용수들은 격렬한 움직임에 적합한 옷차림을 하였다. 소매가 좁고 짧은 저고리와 통이 좁은 바지를 입고 더하여 바짓가랑이를 훌쳐 맨 옷차림새의 남자들이 무용수로 등장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 Dancing and Singing

The Koguryo people enjoyed watching dancers wearing long jackets with short sleeves and roomy trousers. They

liked to see the dancers move and flutter their attire while they spun around or bent or extended their arms. It was thought that these dancers resembled birds. This was a genre of Koguryo and very popular in ancient East Asia. Dance is divided into solo, pair, and group; dance with instruments or dance without instruments; and dance choruses of men or women. Koguryo murals depict various dance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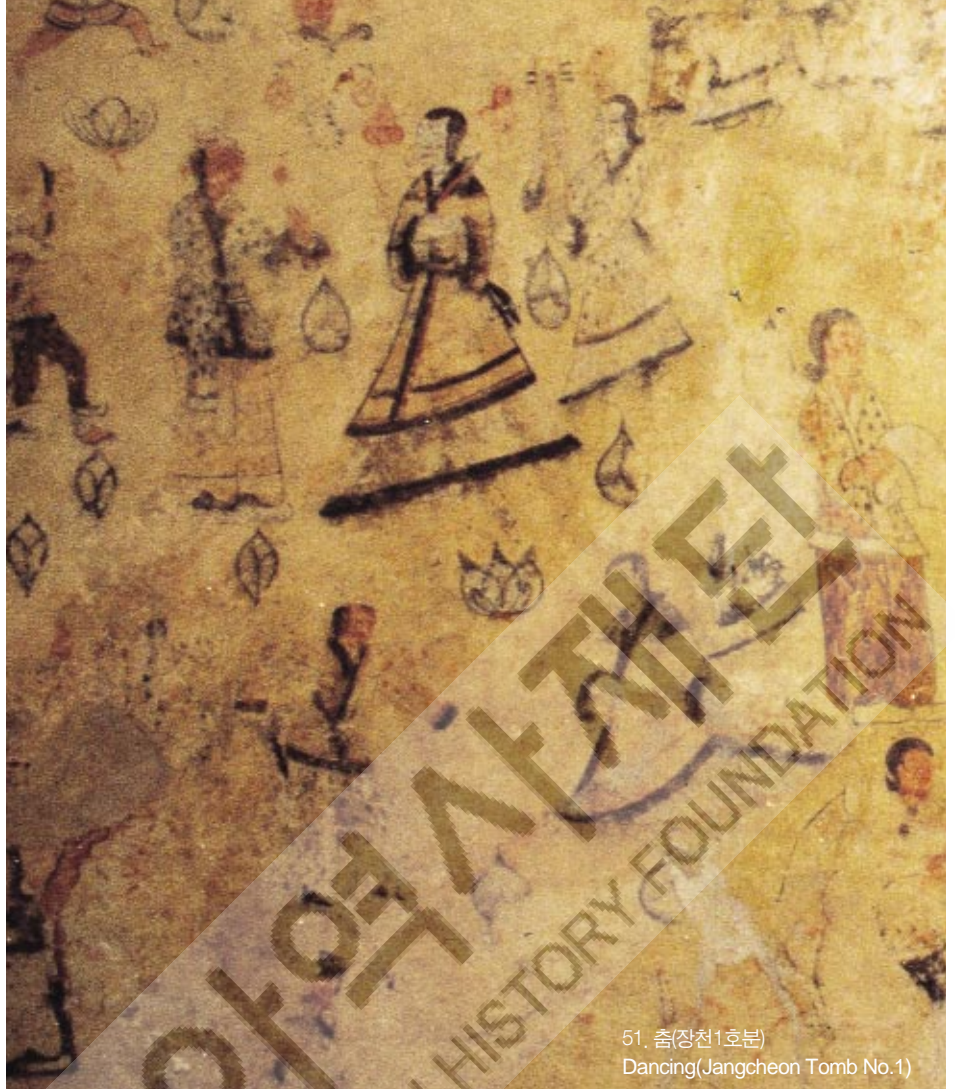
Dancers and musicians often wore make up: they put powder on their faces and wore red lipstick on their lips. They also put red spots called *yeonji* and *gonji* on their foreheads and on both of their cheeks. Jangcheon Tomb No. 1 shows a scene where a dancer with make up on and a pentachord player meet, and the dancer performs with her long sleeves fluttering smoothly and lightly to the sounds of the pentachord called *ohyeonggeum*. A solo choreography appears in Anak Tomb No. 3. In it, three performers sit next to one another and play instruments called *jeo*, *wahnahm* and a *geomungo* with six strings. Unlike other murals, the Anak Tomb No. 3 shows a dancer wearing a mask with its nose higher. The dancer's choreography is very dynamic and reminds of the *hoseonmu* of Central Asia, a type of dance in which female dancers dance in a circle. Of course, her attire is suitable for dynamic movement: her sleeves are short and narrow and the girth of her trousers is narrow. Tonggu Tomb No. 12 depicts two dancers performing with a *geomungo* player. These murals show well the unique features of the Koguryo dance.

A group dance was expressed in the Muyongchong murals. Five dancers follow a leader and perform to a seven-member chorus. Groups of two or three are lined up and wear special attire to enhance the impact of the choreography. The two dancers on the right wear the opposite colors of those on the left, and the three dancers on the left wear long coats with different colors so that the audience can clearly see the harmony of color and movement. Even during the Koguryo period, much thought went into the style and presentation of the dance.

A large-scale procession described in Anak Tomb No. 3 draws our attention because dancers perform with a sword and bow in their hands. The procession drawing of the Pahlcheongri mural Tomb also includes a sword performance. Two males hold long swords in their hands and lower their body or jump to perform before the audience. This type of weapon-performance was a combination of play and training. When they performed with weapons, they used musical instruments such as drums, flutes or horns which made loud, sharp sounds. Naturally, their movements are big and most of the performers are males. Anak Tomb No. 3 shows a performance with a drum. This is one of the oldest versions of the drum performance in existence today. The drum performance also appears in Ohwebun Tomb No. 5. Unlike performances that used long sleeves, this performer wears a jacket with short sleeves and narrow trousers. Some male performers even wore trousers with the crotch area tied up.



50. 춤(모사도, 무용총)
Dancing(Replica, Muyongchong)



51. 춤(장천1호분)
Dancing(Jangcheon Tomb No.1)



52. 춤(북원도, 무용춤)
Dancing(Reconstruction, Muyongchong)



53. 무용수와 반주자(북원도, 장천1호분)
A Dancer & a Musician(Reconstruction, Jangcheon Tomb No.1)

▣ 악기

제주와 춤 공연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반주 도구들, 고구려의 악기는 고분벽화 및 문헌상 현재까지 38종정도가 확인된다. 악기는 보통 현

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뉘는데, 고분벽화에는 이 세 종류의 악기가 모두 보인다. 현악기로 대표적인 것은 4현, 5현, 6현으로 이루어진 거문고류로 안악3호분 벽화에 보이는 6현금은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하는 ‘현학금(玄鶴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함은 둥근 음향부에 곧고 긴 자루가 달려 있는 악기로 문헌상의 비파류에 해당한다. 본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하여 널리 쓰인 악기인데, 안악3호분을 비롯하여 삼실총, 오회분5호묘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이를 연주하는 악사들 가운데 서역인의 얼굴을 한 천인(天人)도 보여 고구려와 이런 지역과의 문화 교류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빨나팔은 본래 행진 등 대규모 인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에 쓰인 신호용 악기이다. 고분벽화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관악기이기도 하다.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빨나팔은 고취악대 연주에 빠져서 안 되는 악기로 여겨졌다. 세로로 부는 긴저, 가로로 부는 젓대 및 소(簫)와 같은 피리류는 제주와 춤 공연의 반주용 악기로 선호되었다. 소는 길고 짧은 참대토막 여러 개를 옆으로 나란히 묶어 하모니카처럼 부는 악기이다.

타악기로는 북과 종, 징이 있다. 가장 쓰임새가 많았던 북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고취악대의 주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였다. 세운북, 매단북, 말북, 메는북, 거는북, 흔들북, 장고 등이 고분벽화에 보인다. 요고로도 불린 장고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던 악기로 초원의 길을 거쳐 고구려에 소개된 듯하다. 종과 징은 안악3호분 벽화에 보인다. 고분벽화의 징은 군대의 행진에 쓰이던 요(鐃)나 징(鈺)의 일종이다.

고취악이란 타악기와 관악기 몇 종류로 구성된 기악합주의 한 유형이다. 고구려에서 고취악이 발전하고 중시되었음은 고분벽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양역전벽화분과 안악3호분, 감신총, 약수리벽화분의 벽화에는 여러 형태의 행진고취악대의 모습이 보인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안악3호분 회랑의 대행렬도에 등장하는 고취군악대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현재 남아 있는 행렬도에서 확인되는 고취악대의 성원만 무려 64명이며, 악대는 여러 줄의 타고대와 고취대로 구성되어 있다. 대원들이 취주하는 북과 종, 요 등 타악기만 9종이 보이며, 악대 중 크고 작은 빨나팔을 부는 사람도 28명이나 된다.

□ Musical Instruments

Tomb murals of and historical documents on Koguryo confirm 38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 were divided into string, wind, and percussion instruments. The *geomungo* with four, five, and six strings represents the string instruments, and three types of *geomungo* have been seen in tomb murals. The *geomungo* with six strings in Anak Tomb No. 3 is similar to “*hyeonhakgeum* (玄鶴琴)” depicted in *Samguksagi* and known to be made by *Wangsahnak*, the greatest musician of Koguryo. *Wanham* is a musical instrument with a round sound system and a long handle. According to documents of the period, it belonged to a Korean mandolin called *bipah*. This instrument was developed and used widely in Central Asia. It is often shown in mural tombs of Anak Tomb No. 3, *Samsilchong*, and *Ohoebun Tomb No. 5*. Some musical performers look like Central Asian. This proves that Koguryo had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states in other regions.

Horn trumpets were used to signal and control the movement of large-scale groups including processions, and appear often in the tomb murals. The trumpet was considered an important instrument for *gochwiak*. Flutes such as *gin jeo*, *jeotdae* and *soh* (簫) were preferred for tumbling and dance performances. Several small pieces of bamboo were tied up and look very much like harmonicas.

Percussion included drums, bells and gongs. Percussion had many purposes and various types. These instruments were an important part of the *gochwiak* group. Sit up drums, hanging drums, *janggu* and other drums are seen in the tomb murals. *Janggu* sometimes called *yogo* were popular in Central Asia and introduced to Koguryo. Bells and gongs appear in Anak Tomb No. 3. The gong in the murals is a type of *yoh* (鐃) or *jung* (鉦) used for military marches.

Gochwiak, a ceremonial music, is a type of group performance played with percussions and wind instruments. There is evidence that *gochwiak* was developed and considered an important performance during Koguryo. The tomb murals of *Pyeongang Yeokjun Mural Tomb*, *Anak Tomb No. 3*, *Gahmsinchong*, and *Yaksuri Mural Tomb* indicate the procession of a *gochwiak* group. Among them, *Anak Tomb No. 3*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 large-scale processional group inside the corridor of the mural. The group consists of 64 members, and is divided into groups of *tagodae* (drums) and *gochwiak* (winds). They play nine types of wind instruments including drums, bells, and *yo* and 28 members play small and big horn trumpets.



55. 멜북(수산리벽화분)
Drum(Susanni Mural Tomb)



54. 멜북(덕흥리벽화분) Drum(Deokhungri Mural Tomb)



56. 말북(안악3호분)
Drum(Anak Tomb No.3)



57. 쇠북, 종(안악3호분)
Yoh, Jung(Anak Tomb No.3)



58. 뿔나팔(안악3호분)
Horn Trumpet(Anak Tomb No.3)



59. 뿔나팔(덕흥리벽화분)
Horn Trumpet(Deokhungri Mural Tomb)



60. 뿔나팔(삼실총)
Horn Trumpet(Samsilchong)



61. 소(안악3호분)
So(Anak Tomb No.3)



62. 완함(삼실총)
Wanham(Samsilchong)



63. 완함(덕흥리벽화분)
Wanham(Deokhungri Mural Tomb)



64. 거문고(무용총)
Geomungo(Muyongchong)



65. 장고(오회분4호묘)
Janggu(Ohoebun Tomb No.4)



66. 고취악대(안악3호분)
A Brass Band(Anak Tomb No.3)

□ 운동과 사냥

고구려인은 기마민족적인 체질을 지니고 있었고,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대소규모의 전쟁을 자주 치러야 했으므로 체육활동은 말타기와 활쏘기, 씨름과 수박 등 전투적이고 실용적인 종목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덕흥리벽화분의 벽화중에 보이는 마사희 등으로 닮은 말타기와 활쏘기의 기량은 대소규모의 사냥과 매년 음력 3월3일에 행해지는 낙랑언덕에서의 국가적 차원의 사냥대회를 통해 한 차원 높게 성숙되었다. 또한 일상적인 놀이의 일부로 여겨졌던 씨름과 수박(手撲)은 마을단위의 추수제나 연례적인 국중대회(國中大會) 등을 통해 기량이 겨뤄졌다. 무용총, 약수리벽화분, 통구12호분 등 많은 수의 벽화고분에 남아 있는 사냥도는 고구려에서의 말타기와 활쏘기, 이것이 어우러진 사냥이 희생제물이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체력단련 및 군사훈련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분벽화는 고구려인이 창을 위주로 한 도보사냥, 활에 의존하는 기마사냥, 매를 이용하는 매사냥 등 다양한 사냥방법을 통해 호랑이, 멧돼지, 사슴, 고라니, 꿩 등을 잡았으며, 짐승물이에 몰이꾼 뿐 아니라 사냥개도 동원하였음을 알게 한다. 고구려인이 즐겼던 씨름장면은 각저총 벽화에 잘 남아 있으며, 수박희장면은 안악 3호분과 무용총벽화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Exercise and Hunting

Becaus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Koguryo, the people were faced with many small and large-scale invasions. That is why their exercises had to be practical and included horse riding, archery, Ssireum, and subakhee. Horse riding and archery developed by Masahee and shown in the Deokhungri Mural Tomb were tested in small and large-scale hunting contests and national hunting competitions held in Nangnang Valley every March 3rd of the lunar calendar. The skill of the Koguryo people developed further through these contests. As well, wrestling and subakhee, recognized as part of play, were held at harvest feasts or at the annual national contest called *Gukjung daehwe* (國中大會). Hunting scenes are depicted in Muyongchong, Yaksuri Mural Tomb, Tongu Tomb No. 12 and indicate that hunting allowed the participants to both prepare offerings for rituals and meat, and gave them a chance to exercise and train. The murals show that the Koguryo people caught tigers, boars, deer, and pheasants by walking with spears, horse riding with bows, and hunting with hawks. They also show that the people not only used chasers but also hounds. Ssireum scenes are inscribed in the Gakjeochong Tomb and subakhee scenes are seen in Anak Tomb No. 3 and Muyongchong.



67. 사냥(덕흥리벽화분)
Hunting(Deokhungri Mural Tomb)



68. 사냥(모사도, 무용충)
Hunting(Replica, Muyongc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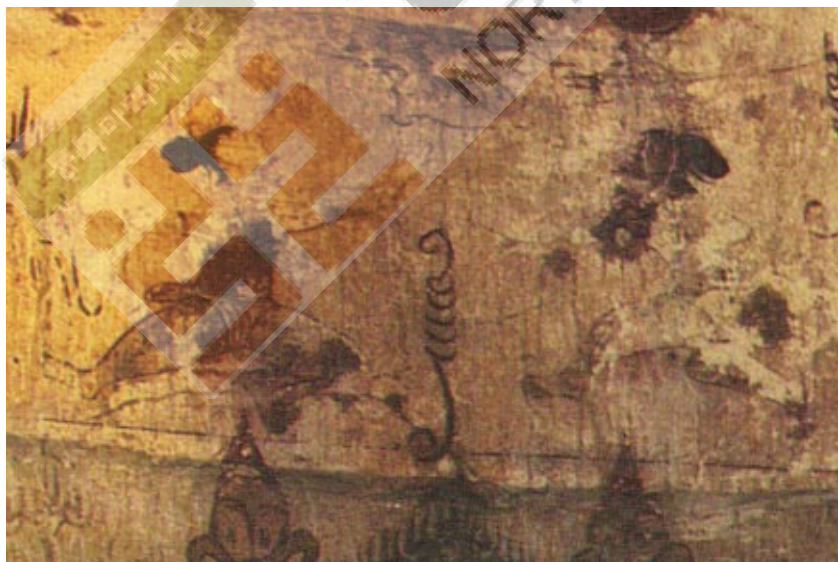
69. 씨름(각저총)
Ssireum(Korean Wrestling, Gakjeochong)



70. 씨름(장천1호분)
Ssireum(Korean Wrestling, Jangcheon Tomb No.1)



71. 수박희(안악3호분)
Subakhee(Anak Tomb No.3)



72. 수박희(무용총)
Subakhee(Muyongchong)

□ 수레

고대 및 중세사회에서 수레는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은 존재이다. 고구려의 수레는 고분벽화를 통해 그 종류와 형태를 알 수 있다. 수레는 말이 끄는 것과 소가 끄는 것이 있는데, 마차(馬車)는 남자의 전용이었던 반면 소가 끄는 우차(牛車)는 부인용으로 쓰였다. 그런데 전차로서의 마차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귀족남자들도 우차를 고급스럽게 여겨 출입시에 애용하게 된다. 이 때문인지 이들 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구려에서도 귀족남녀들 사이에 우차가 많이 쓰이게 된다.

고분벽화를 보면 우차도 마차와 같이 귀부인이나 승려가 사용하는 것은 수레의 좌석 둘레를 차양으로 가린다. 차양이 없는 것은 귀족남자 전용이다. 고분벽화의 수레 가운데에는 오늘날의 리어카와 같이 사람이 끄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수레는 말 그대로 물건운반용 기구에 해당한다.



□ Carriages

In ancient and medieval societies, carriages were used for transportation.

The type and form of carriages used in Koguryo are indicated in the murals. A horse-driven carriage was reserved for males and cow-driven carriages for females. However, in China, more and more Chinese male aristocrats came to use cow-driven carriages. And so, since Koguryo had relations with China, it too began to see both male and female aristocrats using only cow-driven carriages.

Carriages for female aristocrats and monks had shaded seats. Carriages without shade were reserved for male aristocrats. The murals show that some of these carriages were used to transport goods.

73. 우채(덕흥리벽화분)
A cow-driven Carriage(Deokhungri Mural Tomb)

74. 우채(안악3호분)
A cow-driven Carriage(Anak Tomb No.3)



□ 주요한 신앙대상들

4세기까지의 고구려사가 주로 기재된 중국의 역사서『삼국지(三國志)』 등에 따르면 당시에 고구려사회의 신앙대상으로 제사되던 존재로는 귀신(鬼神), 영성(靈星), 사직(社稷)이 있었다고 한다. 영성은 본래 농사의 풍흉과 관련하여 제사되던 신(神)으로 곡식을 관장하는 별자리인 천전성(天田星)을 가리킨다. 5세기의 고구려사가 더해진 『북사(北史)』 등에는 이들 이외에 주요한 제사대상으로 부여신(夫餘神)과 등고신(登高神)이 더하여진다. 부여신은 지모신(地母神)으로서의 하백녀 유희를, 등고신은 하백녀와 천제 사이에서 태어나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의 멸망까지를 다룬 『구당서(舊唐書)』 등에는 영성 외에 일신(日神), 가한신(可汗神), 기자신(箕子神) 등이 새로이 언급된다. 신(神)의 명칭만으로 볼 때, 가한신과 기자신은 고구려 역사중의 영웅적인 인물이 신격화의 과정을 거쳐 신앙대상화 한 존재인 듯하다.

고구려인의 신앙대상으로는 이외에 고구려에서 해마다 국가적 규모로 치르던 시월제천(十月祭天) 때에 모셨다고 하는 ‘수신(隧神)’이 있다. 사회가 커지면서 생겨나기 마련인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사이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행하던 ‘동맹(東盟)’이라는 이름의 이 제천행사 때에는 반드시 나라 동쪽의 큰 동굴에서 수신(隧神)을 모셔와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수신은 부여신 천신(天神)과 함께 제사되는 대지의 신인 지모신(地母神), 곧 수신(水神)인 하백녀로 추정하기도 하고, 하백녀 및 등고신 주몽보다 상위의 신격인

W 신들의 세계와 하늘 World and Heaven of Gods

□ Major Faiths

According to a Chinese chronicle of history called *Samgukji* (三國志) that contains the history of Koguryo until the 4th century, there were major gods such as *gwisin* (鬼神), *yeongseong* (靈星) and *sahjik* (社稷). Originally *yeongseong* indicated a Uranus called *cheonjeonseong* (天田星) which controlled grains and was worshipped for a good harvest. Another Chinese chronicle called *Buksa* (北史), which added the history of 5th century Koguryo, describes other gods such as *Buyeosin* (夫餘神) and *Deunggosin* (登高神). It is understood that *Buyeosin* referred to a portrait of Habaeknyeo as *Jimosin* (地母神), while *Deunggosin* indicated *Jumong* born between Habaeknyeo and *Cheonje* (God).

According to a chronicle called *Gudangseo* (舊唐書), which dealt with the period of the collapse of Koguryo, new gods such as *Ilsin* (日神), *Gahansin* (可汗神), and *Gijasin* (箕子神) also came into existence. In terms of the names of gods, it is assumed that *Gahansin* and *Gijasin* became gods after these heroes were deified.

Another ceremony performed each year was called *Siwol Jaecheon* (十月祭天). The god worshipped was called *Susin* (隧神). It is said that on every *Dongmaeng Jaecheon* (ritual devoted to heaven), *Susin* was brought from a big cave in the east to unite people and resolve conflicts in society. This *Susin* was presumed to

하늘신, 곧 천제(天帝)로 보기도 한다.

집안의 6세기 벽화고분인 오희분5호묘와 오희분4호묘 벽화에는 해와 달 외에 각기 해와 달을 머리 위로 받쳐 든 해신과 달신이 그려졌다. 이 해신과 달신은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용(龍)이다. 고구려의 전통적 해신과 달신 신앙을 바탕으로 중국의 복희·여와(伏羲·女媧)신의 형상을 더한 사례로 보인다. 고구려 건국시조 주몽의 아버지로 전해지는 해모수는 해신, 어머니 유화는 달신에 비정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문헌인 『제왕운기(帝王韻紀)』에는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자신이 천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정사를 돌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람들은 해모수를 천왕랑(天王郎)이라고도 불렀다. 해모수가 해신이며 양(陽)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모수가 해신이라면, 그 배우자로 택해지는 하백(河伯)의 딸 유화는 달신이며, 음(陰)의 속성을 지닌 존재일 것은 되물을 필요가 없다.

고구려에는 문헌에 전하는 신앙대상 외에도 여러 문명신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이들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도 널리 퍼져 있었다. 집안 지역의 6세기 고분벽화에 불의 신, 농업신, 대장장이신, 수레바퀴의 신, 솥들의 신 등등 여러 문명신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 문명신 가운데 삼실총벽화에서는 긴 창을 세워 든 전쟁신으로 그려지던 쇠머리의 신이 6세기 고분벽화에는 손끝에 곡식 이삭을 든 농업신으로 묘사된다. 한편, 불의 신은 오른손 위에 불이 지펴진 막대를 들고 있으며, 대장장이신은 쇠를 단련하고 있다. 수레바퀴의 신은 바퀴살이 있는 개량된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고, 솥들의 신은 솥들을 갈고 있다.

be Jimosin, that is, *Habaeknyeo*, a god of water (水神), and sometimes thought to be God, higher than Deunggosin (Jumong).

Tomb murals of Ohoebun Tomb No. 5 and Ohoebun Tomb No. 4 during the 6th century in Jian, China show gods of the sun and the moon who hold the sun and the moon respectively above their heads. They each have the torso of a man and the lower body of a dragon. It is presumed that the gods of the sun and the moon in Koguryo feature the god of *Bokhee · Yeowah* (伏羲 · 女媧) of China. Haemosu, known as the father of Jumong, was considered a god of the sun, and his wife Yuhwa, a god of the moon.

Jewahngwoongi (帝王韻紀), a chronicle written during the Koguryo period, describes “Haemosu riding on a carriage drawn by five dragons claiming himself as a son of God, traveling to the sky and to the ground and running the state.” People called him Haemosu Cheonwanglang (天王郎). This indicates that Haemosu is a god of the sun and has the yang of the sun. There is no question then that his wife Yuhwa, a daughter of Habaek (河伯), is a god of the moon and has the yin of the moon.

Koguryo also had other gods not written about in the historical documents, as well as many myths and legends. In the Jian area during the 6th century, the murals show a god of fire, a god of grains, a god of blacksmith, a god of wheel, a god of whetstone and other civilized gods. For example, a god with an ox head and a spear, described as a god of war in the Samsilchong, appears as a god of grains with grains in his hand in a mural during the 6th century. Also shown is a god of fire holding a torch in his right hand; a god of blacksmith striking iron; a god of wheel manufacturing a newly developed wheel; and a god of whetstone polishing whet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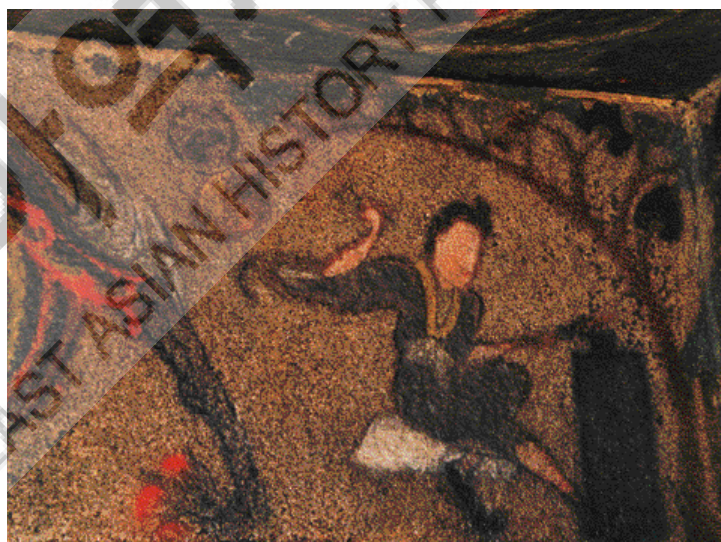
75. 해신 · 달신(오회분4호묘)
A God of Sun & A God of Moon(Ohoebun Tomb No.4)



76. 불신 · 농신(오회분5호묘)
A God of Fire & A God of Agriculture(Ohoebun Tomb No.5)



77. 수레바퀴신(오회분4호묘)
A God of Wheel(Ohoebun Tomb No.4)



78. 쇠부리신(오회분4호묘)
A God of Blacksmith(Ohoebun Tomb No.4)



79. 숫돌신(오회분4호묘)
A God of Whetstone(Ohoebun Tomb No.4)

□ 신선, 상서로운 짐승과 새들

고분벽화에서 신선은 보통 하늘세계의 별들과 함께 무덤간의 천장고임에 그려진다. 신선은 날개도 없이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학(鶴)이

나 봉(鳳), 용(龍), 기린(麒麟)과 같은 신성한 새나 짐승을 타고 하늘을 나는 형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신선가(神仙家) 계통의 문헌에서 신선들은 '천의(天衣)'라 불리는 인간세계와는 다른 형태의 옷을 걸치며, 귀가 당나귀의 귀처럼 길다든가 하여 일반인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표현된다.

신성한 새와 짐승에 대한 관념은 별자리신앙 및 신선신앙의 소산이다. 고분벽화에 표현된 신성한 존재들 가운데에는 상서로운 새의 비중이 높다.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해 품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동경과 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자에 새깃 꽂기를 즐기던 고구려인의 새에 대한 유별난 신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사람머리의 새 천추(千秋), 만세(萬歲)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천추, 만세를 보장하는 존재를 상징하면서 나타난 상상 속의 생명체들이다.

기린(麒麟)은 중국의 옛 문헌에서 '모양은 사슴 같고, 이마는 이리, 꼬리는 소, 굽은 말과 같으며, 머리 위에 뿔이 한 개 있는' 동물로 묘사된다. 여러 문헌에서 기린은 우주질서의 운행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곧 현실사회가 이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짐승이다. 이처럼 평화의 도래를 상징하는 신성한 짐승인 기린은 서조(瑞鳥)인 봉황과 짝을 이루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덕흥리벽화분에 등장하는 박위(博位), 길리(吉利), 부귀(富貴), 영양(零陽) 등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과 관련된 신령스러운 짐승들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길리(吉利)한 일이 많고 부귀(富貴)를 누리기를 소망하기 마련인데, 그와 같은 소망을 보장하는 상상 속의 존재들이라고 하겠다. 성성(猩猩)은 『산해경(山海經)』에 소개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머리의 짐승이다. 술을 매우 좋아하여 사람들이 술독을 미끼삼아 이 짐승을 잡는다고 한다. 벽독(辟毒)은 이름 그대로 독(毒)의 해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짐승을 가리킨다.

□ Immortals, Auspicious Animals and Birds

Immortals drawings of *sihnseon* are drawn on ceiling corbels along with constellations of the burial chamber. They appear to fly without wings in some cases but usually fly in the sky riding on cranes, phoenixes, dragons or gilins and other auspicious birds or animals. According to some Taoist documents, *sihnseon* wore clothes called *cheonui* (divine clothes), had long donkey-like ears, and looked different from humans.

The perception of sacred birds and animals came from constellations and Taoism. Among them, auspicious birds placed first. This is evidence of the Koguryo people's admiration of and unique belief in the power of birds. Birds named *cheonchu* (千秋) and *manse* (萬歲) with human heads are birds in dreams that pray for a good life for the living and the dead.

A gilin is described in an old document of China as "...looking like a deer, with a forehead like a wolf, a tail like an ox, hooves like a horse, and a horn on its head." Many historical records indicate that the people believed that the gilin appeared only when the universe was working correctly, that is, when society had become ideal. The gilin, which brings about peace, is often paired with the phoenix. *Bakwi* (博位), *gilri* (吉利), *Bugui* (富貴), and *yeongyang* (零陽) in the Deokhungri Mural Tomb are divine animals related to ill/good luck and misery/fortune referred to as *gilhyunghwabok* (吉凶禍福). Obviously people wished for good luck and fortune, and birds that appeared in dreams guaranteed that. *Seongseong* (猩猩) expressed in *Sahnhaebyeong* (山海經) is an animal that has a human head and speaks. It is said this animal liked to drink, so people baited him with alcohol. *Byeokdok* (辟毒) is an animal believed to have helped prevent poisoning.



80. 만세(덕흥리벽화분)
Manse(Deokhungri Mural Tomb)



81. 천추(무용총)
Cheonchu(Muyongchong)



82. 길리(덕흥리벽화분)
Gilri(Deokhungri Mural T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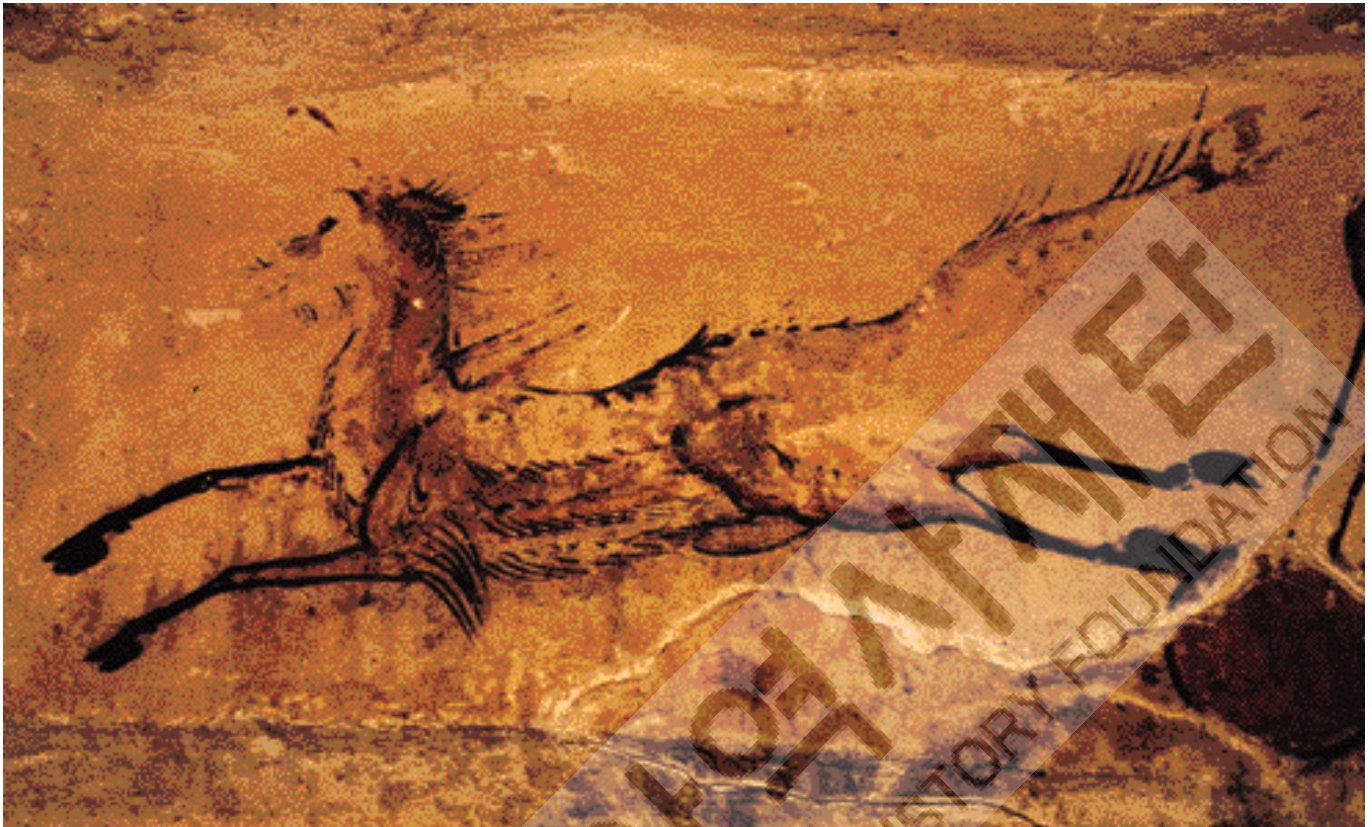
83. 서조(강서대묘)
An Auspicious Bird(Gangseo Daemyo)



84. 박위(덕흥리벽화분) Bakwi(Deokhungri Mural Tomb)



85. 기린(안악1호분) Girin(Anak Tomb No.1)



86. 기린(무용총) Girin(Muyongchong)



87. 천록(삼실총) A Heaven Deer(Samsilchong)



88. 사람머리짐승(안악1호분) A man-headed Animal(Anak Tomb No.1)



89. 비어(덕흥리벽화분) A Flying Fish(Deokhungri Mural Tomb)



90. 천마(덕흥리벽화분) A Heavenly Horse(Deokhungri Mural Tomb)



91. 불새(덕흥리벽화분) Phoenix(Deokhungri Mural Tomb)

Buddhist Culture

불교 문화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한 해는 372년(소수림왕 2년)이다. 이 해에 당시 북중국의 패자로 군림하던 전진왕(前秦王) 부견(苻堅)이 불상, 불경과 함께 승려 순도(順道)를 보내자, 소수림왕은 고구려 사람이 불교를 믿고 전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지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 생긴 시기는 이보다 훨씬 전이다. 4세기 전반 진(晉)의 고승 담시가 요동지역에 와 불교를 전파했으며, 357년경 제작된 안악3호분 벽화에 연꽃무늬가 보인다. 4세기 중엽 남조(南朝) 동진(東晉)의 고승이 고구려의 도인(道人)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도 전한다.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한 것은 고구려에 사회 전반의 정신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인 이후, 아도(阿道)를 비롯해 승려가 잇따라 입국하고, 여러 곳에 불사(佛寺)가 창건되는 등 고구려에서 불교와 관련한 활동은 크게 활발해진다. 국가도 불교신앙을 장려한다. 소수림왕의 뒤를 이은 고국양왕은 불교를 믿어 복을 받으라는 교시(敎示)를 내리고, 광개토왕은 평양에 사원을 9개나 창건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자, 고구려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한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세관에까지 미치게 된다. 불교에서는 지금의 삶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을 통해 맺은 인연과 이로 말미암아 쌓은 업(業)에 따라 내세(來世)의 삶이 결정된다고 한다. 새로운 삶의 모습은 수레바퀴가 돌듯이 반복되는 여섯 가지의 삶, 곧 육도(六道)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인연의 사슬을 끊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떠난 정토에서의 삶이 될 수도 있다. 죽은 후에는 조상들의 세계로 되돌아간다고 믿었던 고구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전과 달리 불교의 하늘세계나 낙원인 정토(淨土)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재래의 계세적(繼世的) 내세관이 뒤로 밀려나고 불교의 전생(轉生) 및 정토왕생적(淨土往生的) 내세관이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5세기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되는 연꽃을 주제로 한 고분벽화는 이러한 새로운 내세관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고구려에서 불교는 427년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더욱 널리 믿어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된다. 장수왕에 의한 평양 천도는 여타의 정치·경제적 목적 외에 불사(佛寺)로 둘러싸여 불력(佛力)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왕도(王都)로의 천도라는 의미도 함축한 행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평양에 세워진 금강사탑은 9층으로 된 90m 높이의 거대한 목조불탑으로 신라 경주의 황룡사탑, 백제의 익산 왕궁리 백제대탑과 함께 삼국을 대표하는 불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평양을 중심으로 번성하던 고구려 불교의 현황을 짐작하게 하는 좋은 표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의 내세관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번성했던 불교도 6세기 중엽부터는 조금씩 쇠퇴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한다.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쟁 등으로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불교에 대한 국가의 후원도 줄어들고, 혜량(惠亮)과 같은 고승이 신라로 망명하는 등 불교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가 차지했던 자리는 서서히 재래의 무속신앙과 신선신앙으로 채워진다. 7세기에 들어서면 도교계통인 오두미교(五斗米教) 신앙이 민간에 유행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중국 당(唐)으로부터 도교를 수용하여 정착시키려 하는 등 불교의 부흥과는 거리가 있는 흐름이 계속된다. 6~7세기 고분벽화에도 이와 같은 종교·신앙상의 흐름이 반영된다.

Koguryo accepted Buddhism as its national religion in 372 during the period of King Sosurim. That year, a Chinese monk called Sundo (順道) was sent by Former Qin ruler Fujian to King Sosurim along with Buddhist figurines and scriptures (sutra). King Sosurim encouraged the Koguryo people to believe in and spread the religion. But the people actually started to believe in Buddhism long before 372. In the early 4th century, Damsi, an old monk of Chin (晉), China, came to Liaodong to spread the religion. Anak Tomb No.3 produced in 357 shows a lotus pattern in its murals. In the mid-4th century, an old monk from East Chin of Southern Dynasty was said to have sent a letter to a Koguryo ascetic according to some documents.

Koguryo accepted Buddhism because the state needed a ruling ideology to unify the mentality of the whole society. As the people came to practice Buddhism, many monks including monk Ado (阿道) from East Chin entered the state, and temples were built in many areas. The state encouraged its people to believe in Buddha. King Gogukyang who succeeded King Sosurim instructed his people to believe in Buddhism if they wished to be blessed. As well, Gwanggaeto the Great built nine temples in Pyeongyang alone.

Sponsored by the state, Buddhism influenced the people's conception of the afterlife. Buddhism says that the afterlife is decided by one's karma (what one did in past lives, what one is doing now). New life can be lived either in one of the evolving six lives or can take place in the Buddhist paradise called *jeongto*(淨土). Most Koguryo people believed that when they died they would go back to the world of their ancestors before Buddhism. Others thought they would either go to the world of Buddha or be reborn in the Buddhist paradise. The existing concept of afterlife gave way to a new concept of a former life and peaceful death which were well accepted by society. Some Koguryo murals in the 5th century have a lotus flower theme, closely related to the new concept of Buddhism.

Since 427 with the movement of the 2nd capital during the period of King Jangsu, Buddhism flourished across the state. The nine-storied Geumgahng Pagoda in Pyeongyang is a 90-meter wooden tower that stands as a powerful example of the people's strong belief in Buddhism. It also represents a typical pagoda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long with Hwangryongsa Pagoda in Gyeongju and Baekje Pagoda in Iksahn.

Buddhism started to wane, however, during the 6th century. Political controversy over royal succession caused the state to decrease its sponsorship for Buddhism. As a result, famous monks like Hyeryang (惠亮) sought asylum in Silla and the social influence of Buddhism weakened gradually. This failing religion was replaced with Shamanism and Taoism. In the 7th century, the Odumigyo Taoist sect became popular. And Koguryo accepted and settled Taoism imported from Chinese Tang. This phenomenon is reflected in tomb murals in the 6th to 7th centuries.



ART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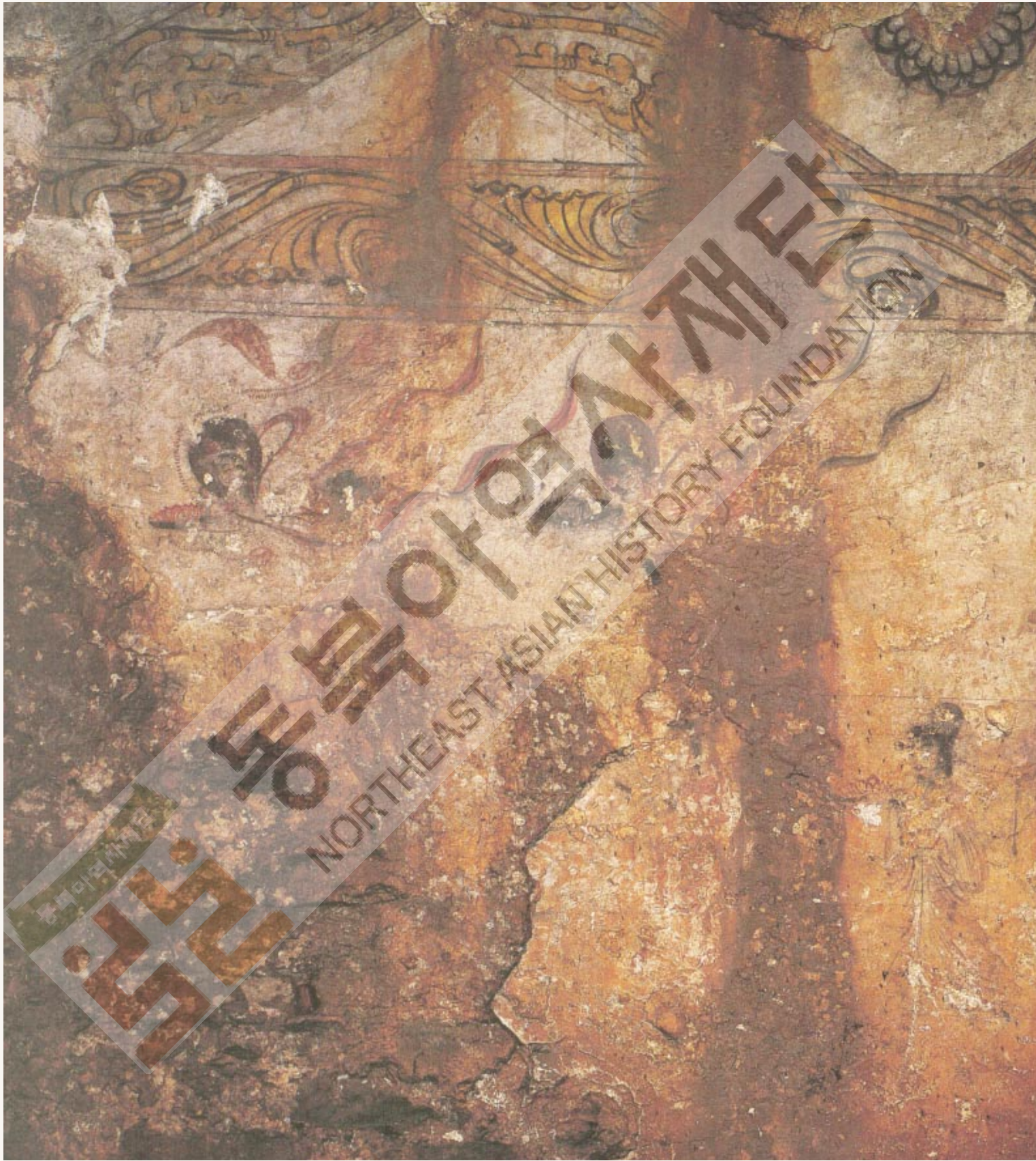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2. 예불(장천1호분)
Worship(Jangcheon Tomb No.1)

동북아시아역사문화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3. 공양(안악2호분) Offering(Anak Tomb No.2)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연꽃과 화생의 세계

연꽃은 불교성립 이전부터 이집트·인도·중국 등지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받고 건축, 기물, 의복 등에 도안·장식되었다. 이집트에서 수련(水蓮)은 태양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자 재생(再生)을 상징하는 식물로 인식되었다. 인도에서도 연꽃은 신성한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어 베다(Veda)에는 여러 신(神)과 동물들이 연꽃과 관련하여 노래되었다. 중국에서는 연꽃이 태양이나 그 상위의 존재인 천제(天帝)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일 뿐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중국에서 연꽃을 생명창조와 관련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은 연꽃을 빛의 상징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이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빛과 생명의 상징, 혹은 근원으로 보는 인도의 토속적 연꽃인식을 수용하여 창조의 신 브라흐마Brahma를 탄생시킨 광명의 신 비쉬누Visnu와 같이 불(佛)을 무량의 빛을 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불(佛)에서 나온 빛을 연꽃으로 표현하였다. 불교에서도 연꽃은 빛·생명·창조세계의 기본 도구이자 그 근원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고구려에서 연꽃은 4세기 중엽부터 고분벽화에 표현되다가 5세기에 이르면 매우 다양한 형태와 비중으로 무덤간 내부에 묘사된다. 5세기 고분벽화에서 연꽃은 평양지역에서는 도안적인 형태로 집안지역에서는 사실적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인다. 연꽃표현 방식에 나타나는 집안·평양지역의 차이는 5세기말의 쌍영총벽화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도 보이나, 6세기에는 다시 지역문화 특유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한 정도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6세기에는 인동연꽃표현이 주류를 이루면서 두 지역의 연꽃형태는 앞 시기보다 공통성을 많이 띠게 된다.

화생(化生)이란 석가불(釋迦佛)이 말한 네 가지 탄생법(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가운데 내세에서의 초현실적 탄생방법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연꽃과 화생을 결합시켜 연꽃화생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성립시키는데, 이 연꽃화생은 불교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토(淨土)에서의 탄생법이다. 불교신자에게 내세정토에서의 연꽃화생이란 삼계육도(三界六道)에 매인 윤회(輪廻)의 삶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연꽃화생이 표현된 것은 고구려인도 이러한 관념을 수용하였음을 뜻한다. 장천1호분 벽화에는 두 사람의 어린남녀가 연꽃에서 화생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부부화생(夫婦化生)'을 추구한 고구려적 정토화생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교에서 보주(寶珠)는 증생을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과神通력을 가진 상징으로 신앙된다. 원래 용왕(龍王)의 뇌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하는 여의보주(如意寶珠)를 가지고 있으면 독(毒)이 해칠 수 없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주는 장천1호분을 비롯하여 진파리1호분, 강서대묘 등에서 표현되고 불꽃에 휩싸인 모습으로, 혹은 화생(化生)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보주화생은 중국의 석굴사원 장식에서도 즐겨 택해진 제재의 하나이다.

□ Lotus Flowers and Metamorphosis

Lotus flowers had great significance in Egypt, India and China even before Buddhism was established in Koguryo and were ornamented on architectures, objects and clothes. In Egypt, the water lily was recognized as a source of life and resuscitation like the sun. In India, the lotus flower was considered a source of life as well. Veda shows several gods and animals singing in admiration of the lotus flower. In China, the lotus flower was expressed as a symbol of the sun or God which is superior to the sun but was not considered a source of life. The Chinese only began to link the lotus flower with the creation of life when their state imported Buddhism.

Koguryo Buddhism accepted the Indian native concept of the lotus flower as a symbol of light and life. Consequently, it recognized the Buddha as a source of life. It was like Brahama, a god of creation, who gave birth to Visinu, a god of light. Thus, the religion expressed the light coming from Buddha. That is, Buddhism recognized the lotus flower as a basic tool in the world of light, life, creation and the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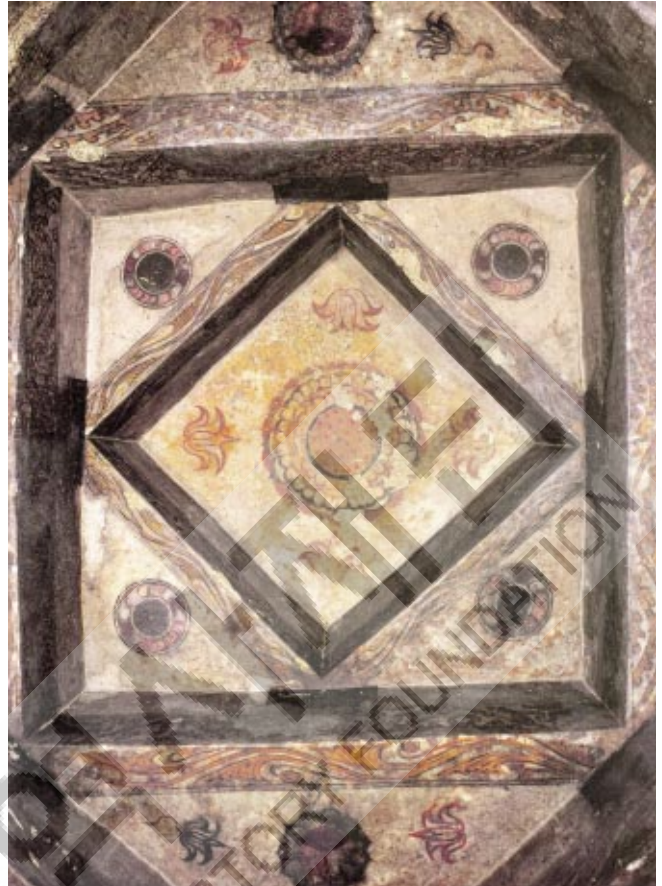
In the 4th century, the lotus flower was drawn in murals beginning from the 4th century. In the 5th century, a variety of lotus flowers were drawn in burial chambers. Pyeongyang murals show rough sketches of the flower, while Jian murals indicate the real shape of the flower. This contrast narrowed in the Ssangyeongchong of Koguryo at the end of the 5th century. And as the pattern of the dried honey suckle lotus flower became famous in the 6th century, the pattern in the two areas shared more similarities than in the previous century.

Metamorphosis refers to the four ways of birth in the future (viviparous birth, oviparous birth, plant birth, metamorphosis). Buddhism established a new perception of the lotus flower metamorphosis. This metamorphosis was considered a way of direct birth into the Buddhist paradise, which means a Buddhist could escape a rotating life. The metamorphosis was expressed in Koguryo murals, meaning the Koguryo people accepted this perception. The Jangcheon Tomb No. 1 depicts one boy and girl being born out of the lotus flower, evidence of a “couple metamorphosis,” a very unique approach.

Boju (寶珠), a gemstone, was a symbol of piety and supernatural power, and offered an escape from present-day agony and pain. It is said that if you have a cinta-mani, a gemstone known to have come out the brain of the Sea God, you would not be hurt or burned even if you jumped into fire. *Boju* is expressed in Jangcheon Tomb No. 1, Jinpari Tomb No. 1 and Gangseo Daemyo and is surrounded by fire or born out of the lotus flower. This *boju* metamorphosis is one of the themes in cave temples in China.



94. 하늘(안약3호분) Heaven(Anak Tomb No.3)



95. 하늘(안약2호분) Heaven(Anak Tomb No.2)



96. 하늘(쌍영총) Heaven(Ssangyeongchong)



97. 하늘(강서중묘) Heaven(Gangseo Jungmyo)



98



102



99



100



101

- 98. 연화화생(삼실총)
Lotus Metamorphosis(Samsilchong)
- 99. 연화화생(삼실총)
Lotus Metamorphosis(Samsilchong)
- 100. 연화화생(장천1호분)
Lotus Metamorphosis(Jangcheon Tomb No.1)
- 101. 연화화생(진파리1호분)
Lotus Metamorphosis(Jinpari Tomb No.1)
- 102. 연못(덕흥리벽화분)
Lotus Pond(Deokhungri Mural Tomb)

□ 음양오행신앙과 사신

음양설이란 우주와 자연만물이 음, 양의 두 기운으로 이루어졌고, 두 기운이 조합된 정도에 따라 그 특성을 드러낸다는 이론이다. 당연히

두 기운이 어우러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주자연의 질서가 혼돈에 빠질지, 안정을 유지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음양의 조화와 균형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 일상적,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오행설이란 우주의 운행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관념체계이다. 우주만물은 각각 불, 물, 나무, 쇠, 흙이라는 다섯 가지 특성 가운데 하나를 지니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계가 설정되고 생성, 소멸, 변화,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중국의 전국(戰國)시대에 음양설이 오행설에 스며들면서 성립한 음양오행설은 보다 포괄적이며 합리적인 우주론으로 발전하여 각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한대(漢代)에는 개인의 기거에서 국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음양오행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부여와의 외교전과 같은 대외정책에서 뿐 아니라 자국(自國)의 정치이념을 정비하고 정치구도를 재편할 때에도 오행설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오행설이 바탕이 된 덕치주의(德治主義)를 수용하고,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 입각해 천재지변(天災地變)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오행설은 시조 주몽에 대한 신앙을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데에도 활용되었고, 5부의 재편에도 오행방위 개념이 적용되었다. 고분벽화의 사신도는 고구려에서 유행하던 오행설에 바탕을 둔 사신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를 통칭하는 사신(四神)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 하늘 사방의 28별자리와 관련 있는 상상 속의 존재이다. 고구려에서 사신은 고분벽화에서 처음부터 독자적인 제재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늘세계로 여겨지는 무덤간 천장고임의 여러 제재의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후에는 무덤간 안의 중심적이고 거의 유일한 제재로 자리 잡는다. 천장부에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 사신은 모두 쌍(雙)으로 표현되며, 그 형태도 몸의 각 부분 사이에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아 어색한 감을 준다. 벽화에서의 비중도 매우 낮으나, 점차 벽화 내에서의 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 표현도 세련되고 자연스러워진다. 후기에 이르면 청룡과 백호는 홀수로, 주작은 암수의 쌍으로, 현무는 뱀과 거북의 자웅합체(雌雄合體)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사신 가운데 청룡과 백호는 벽사(辟邪)의 영물(靈物)로, 주작과 현무는 음양조화(陰陽造化)의 신수(神獸)로 여겨진 까닭이다.

후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사신은 각각 한 벽면의 사실상 유일한 제재이며, 우주의 각 방위의 방위신이자, 무덤주인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와 달리 같은 시기에 제작된 중국 남북조(南北朝), 수(隋), 당(唐)왕조의 고분벽화 및 전화(塀畵), 묘지선각의 사신은 거의 예외 없이 선인(仙人)의 보조자이다. 선인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사신은 고분벽화의 경우, 널방 벽면의 중심제재가 아니라 천장고임의 방위신으로만 그려진다. 고구려인의 사신신앙은 같은 시기 중국의 사신관념과는 구별되는 내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Belief in Yin Yang & Five Elements and Four Directional Deities

The Yin Yang theory holds that all phenomena consist of two opposite aspects, yin and yang, and that the movements of and changes in yin

and yang give impetus to the development of everything. That is, the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is at the center of humans and nature. The theory of five elements is a perception explaining the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created in phenomena. Phenomena consist of fire, water, wood, metal and earth and lead to life, death, change, and cycle. These two theories were combined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This combined theory developed into a comprehensive and reasonable cosmism and began to be applied to each field. During the Han Dynasty, every activity from private life to public affairs was subject to this combined theory. Koguryo was well aware of this theory from its foundation. For that reason, the state aptly utilized the theory of five elements when establishing political ideologies, revising political structures,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ies such as in its diplomatic conflicts with Buyeo. Koguryo accepted morality-focused politics and decoded the cause of natural disasters based on this combined theory. The theory of five elements was used to establish and spread the belief in Jumong and to revise the state's defense system. Pictures of the four deities or totems were considered an expression of local deities based on this theory.

The four directional deities were imaginary beings represented by Cheongryong (Blue Dragon), Baekho (White Tiger), Jujak (Red Phoenixes), and Hyeonmoo (Black Tortoise and Serpent). They each indicated four directions: Cheongryong, east; Baekho, west; Jujak, south; and Hyeonmoo, north, and were associated with the four seasons and 28 constellations. Deities were an independent theme in Koguryo murals from the beginning and were sometimes depicted on the ceiling corbel of the vault in the earlier stage. But later they became one sole theme in the burial chamber. During the early age, the shapes of the deities were awkward and unbalanced due to the small mural area. Later, each Cheongryong and Baekho was drawn singly, while Jujak was pictured as a pair and Hyeonmoo as a hermaphrodite of a serpent and tortoise. This explains why Cheongryong and Baekho were considered intelligent animals that battled ghosts, while Jujak and Hyeonmoo were seen as spiritual animals that harmonized yin and yang.

These four directional deities in Koguryo murals in the later stage were situated on each wall as defenders and guardians of the tomb occupant. Unlike their locations on the walls of Koguryo murals, Chinese deities were only depicted as defenders on the ceiling corbel of burial chambers 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Sui, and the Tang Dynasty. We can see such deities on brick paintings in China. Therefore, Koguryo and China hav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deities.



103. 주작(강서대묘) Red Phoenixes(Gangseo Daemyo)



104. 청룡(강서대묘) Blue Dragon(Gangseo Daemyo)



105. 백호(강서대묘)
White Tiger(Gangseo Daemyo)



106. 현무(강서대묘) Black Tortoise & Serpent(Gangseo Daemyo)



107. 황룡(강서대묘) Yellow Dragon(Gangseo Daemyo)

S 해, 달, 별자리 신앙

Sun, Moon, Constellations

□ 해와 달

건국시조인 주몽을 ‘해와 달의 아들이며, 하백(河伯)의 외손(外孫)’으로 칭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듯이 고구려인에게 해와 달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천체(天體)이다.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거의 빠짐없이 해와 달이 그려진다. 고분벽화에서 해는 흔히 원륜 안에 세발까마귀가 들어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달은 원륜 안에 두꺼비, 옥토끼, 계수나무가 홀로 혹은 두 가지 이상이 조합하여 들어 있는 형상으로 그려진다. 원륜 안의 세발까마귀는 대개의 경우 공작벼슬을 단 채, 날아오르려는 까마귀의 모습으로 그려지나, 비둘기나 기러기 모습으로 표현되는 예도 있다. 원륜 안의 두꺼비 역시 엷드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불꽃을 뿜는 형상인 것도 있고, 풍뎡이 모양인 것도 있다. 옥토끼는 약절구를 앞에 두고 사람처럼 서서 불사(不死)의 선약(仙藥)을 짓는 모습으로, 혹은 단순히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무덤간의 천장고임에 그려지는 해와 달은 동쪽과 서쪽을 나타내는 방위 표지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 Sun and Moon

As Jumong was depicted as son of the sun and the moon, and as a grandchild of Haebaek, the sun and the moon represent the national identity of Koguryo. Thus, every mural of Koguryo contains the sun and the moon. In murals, the sun is expressed as a three-legged crow inside a wheel, while the moon is expressed as one or two toads, rabbits or cinnamon trees inside a wheel. The crow with a crest on it usually appears to fly or looks like a pigeon or wild goose. Toads in the wheel appear to lie on their faces but sometimes emit fire and look like gold-bugs. Rabbits in the moon grind herbs of eternal life in a mortar or just simply stand. The sun and the moon on the ceiling corbel direct the east and the west, respectively.



108. 해(쌍영총)
Sun(Ssangyeongchong)



109. 해(오회분4호묘)
Sun(Ohoebun Tomb No.4)



110. 달(쌍영총)
Moon(Ssangyeongc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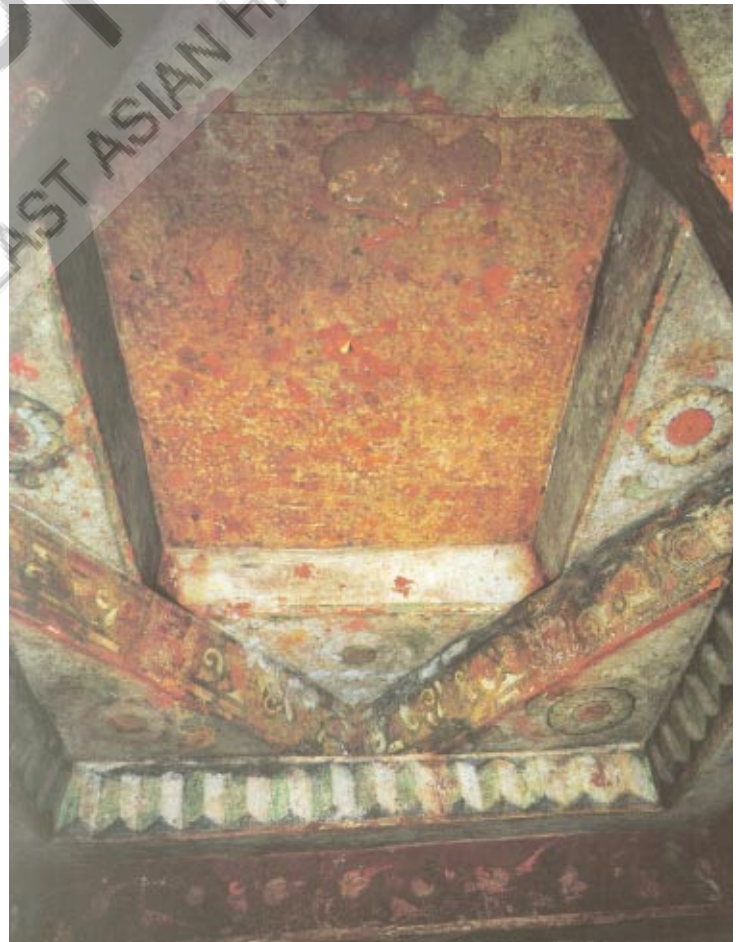
111. 달(덕흥리벽화분)
Moon(Deokhungri Mural Tomb)

□ 북두칠성과 별자리

고구려인이 별자리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앙을 지녔음은 벽화고분 무덤간의 천장고임이 해와 달, 여러 가지 별자리들로 장식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무덤칸 천장고임에 해와 달과 함께 가장 즐겨 그려진 별자리는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이다. 해와 달이 동(東)과 서(西)를 나타내는 존재라면,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은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이다. 중국 위진시대(魏晉時代)의 도교에서는 ‘남두육성(南斗六星)은 삶을 주관하고, 북두칠성(北斗七星)은 죽음을 관장한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두 별자리에 대한 신앙을 중시했다. 고구려에도 이와 유사한 별자리 신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천1호분에는 널방 천정에 해와 달과 함께 북두칠성이 표현되었는데, 별자리 옆에 붉은 글씨로 ‘북두칠성(北斗七靑)’이라고 그 명칭을 따로 나타내고 있다. 덕화리1호분과 덕화리2호분에도 북두칠성이 다른 별자리보다 특히 크고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북두칠성에 대한 고구려인의 깊은 신앙을 읽게 하는 표현들이다.

□ Ursa Major and Conste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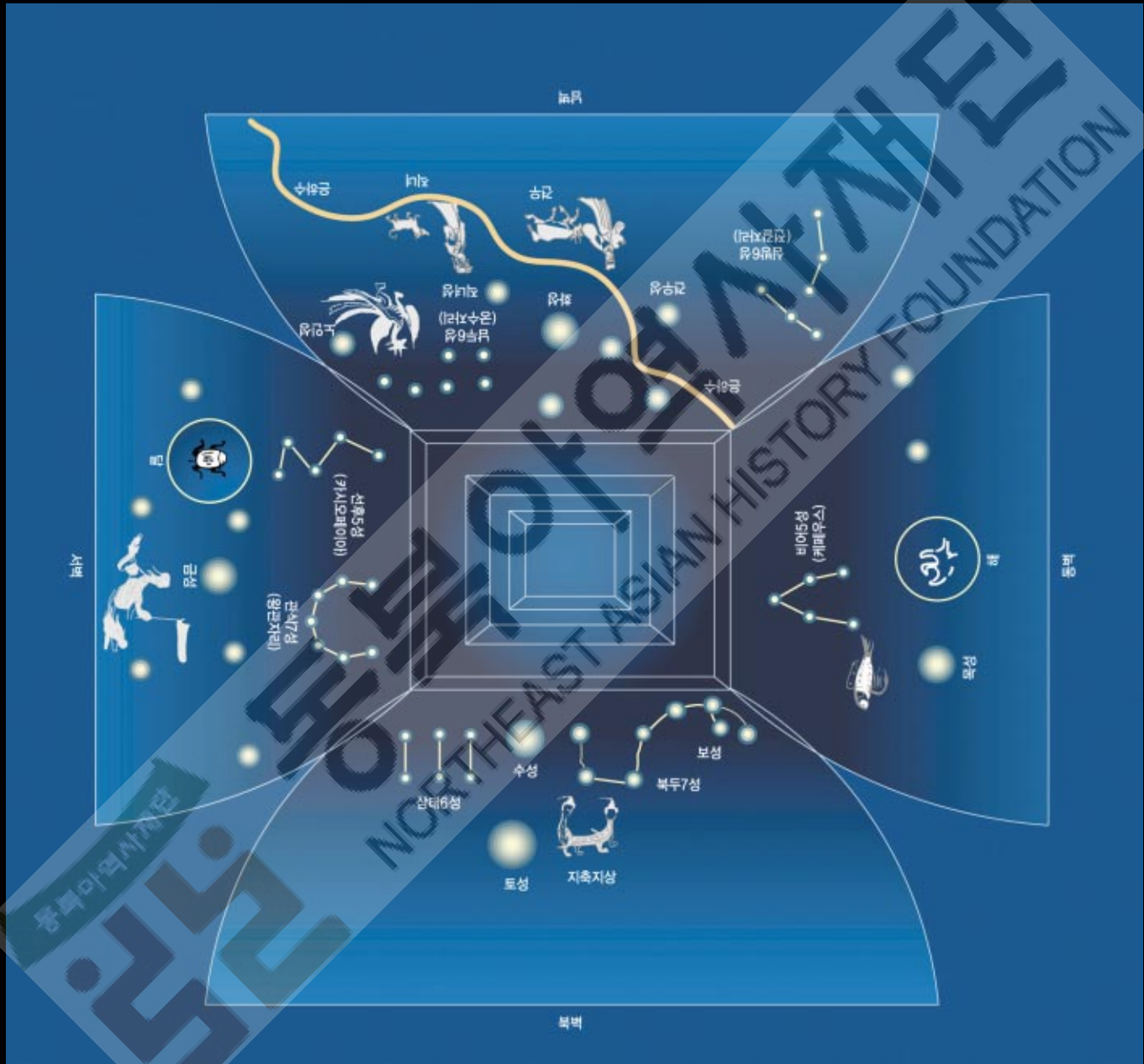
The ceiling corbels of the burial chamber are adorned with the sun, the moon and other constellations. This shows that the Koguryo people had great faith in constellations. The Ursa Major and the Archer were often used along with the sun and the moon. While the sun and the moon indicate the east and the west, the Archer and the Ursa Major direct the south and the north. Taoism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two constellations of south and north during Chinese Wei Ch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period. It holds that “the Archer controls life while the Ursa Major controls death.” It is highly possible that Koguryo had a similar constellation faith. The Ursa Major can be found on the ceiling corbel of the main chamber in Jangcheon Tomb No. 1 along with the sun and the moon. Further, the Ursa Major was written next to the constellation. Deokhwari Tomb No. 1 and Tomb No. 2 show a clearer Ursa Major than any other constellation. This clearly shows how deeply the Koguryo people believed in the Ursa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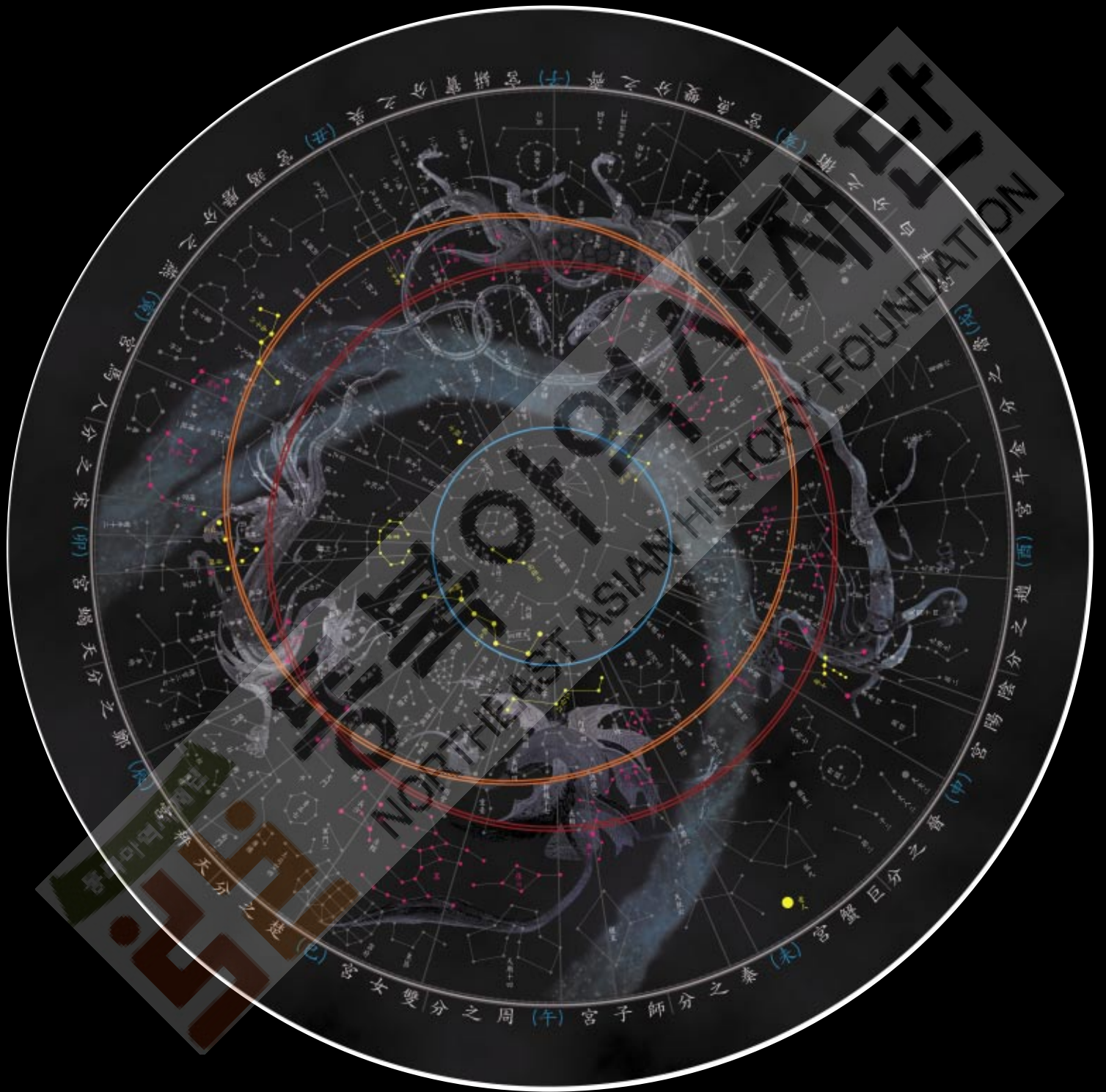
112, 28수(진파리4호분)
28 Constellations(Jinpari Tomb No.4)



113. 북두칠성(덕화리1호분)
Ursa Major(Deokhwari Tomb No.1)



114. 덕흥리벽화분별자리 복원도 Reconstruction of Constellations of Deokhungri Mural Tomb



115. 천상열차분야지도 복원도 Reconstruction of Cheonsangyeolcha-bunyajido (Constellations Chart Map)

D 광개토왕릉비의 발견과 연구 iscovery of King Gwanggaeto the Great Monument and its Study

1880년경 중국 집안에서 거대한 석비가 발견되었다. 이끼와 넝쿨로 덮인 높이 6.39m의 비에 어떤 글자가 새겨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왕씨는 비석에 소똥을 바른 뒤 불을 질러 곁에 덮여 있는 것들을 태웠다. 넝쿨과 이끼에 가려졌던 비석 표면의 글자들도 이물질 덩어리등과 함께 돌 부스러기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무려 1775자에 이르는 비문의 글자 가운데 150여 자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없게 되었다.

어렵게 만든 탁본을 통해 알게 된 비문의 첫 머리는 ‘옛적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로 시작되었고 몇 줄 지나서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무는 사해에 떨쳤다.’는 구절이 나타났다. 이 거대한 석비의 주인공이 고구려를 사방 수 천리 크기의 대국으로 만들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 자리에 오르게 했던 광개토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3층 건물 높이의 광개토왕릉비는 용암이 굳으며 만들어진 긴 네모꼴 돌덩어리로 만들어졌다. 414년 세워진 이 비에는 고구려왕실의 신성성, 광개토왕의 업적, 왕릉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른 손바닥 크기의 예서체 한자로 새겨졌다. 비면을 거의 다듬지 않은 상태로 글자를 새겨 탁본이 쉽지 않다. 이런 까닭에 비면에 석회를 발라 문자가 잘 드러나도록 매끈하게 다듬은 다음 탁본을 뜨거나 종이를 비면에 덮어 글자의 윤곽을 잡아내고 빈 자리에 먹칠 발라 탁본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왜가 신묘년(391년) 바다를 건너와 백잔, ㅁㅁ, 신라를 격파하고’라는 구절을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 1906년 비석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하기도 했다.

In about 1880, an immense stone monument was discovered in Jian, China. To identify characters inscribed in this 6.39-meter-high monument, a Chinese man applied cow dung to the monument, covered it with vines and moss, and set fire to it. Some characters fell off the monument during the process. Consequently, as many as 150 characters out of 1,775 could not be identified.

On the heading of the monument is inscribed, "Once upon a time, King Choomo founded a state. He was born in North Buyeo and was a son of God. His mother was a daughter of Habaek, the god of water... the 17th King Gukgangsang Gwangaetogyong Pyeonganhotae(full name of Gwangaeto the Great) acceded to the throne at the age of 18 and was titled Yeonglak the Great. The blessing reached to the heaven and peace spread to the four seas..." This monument confirmed the fact that the person mentioned expanded his territory and gained hegemony in North east Asia.

The monument was made from hardened long rectangular lava stone. It was erected in 414 and clearly describes the sacredness of the Koguryo royal family, the accomplishments of the King, and the maintenance of the monument etc. in palm-size Chinese characters. It proved very difficult to get rubbings of the characters because of the unevenness of the surface. For that reason, experts filled the empty spots with lime mortar to smooth out the surface and made a rubbed copy of the characters, and were eventually able to identify the character features. The Japanese attempted to bring the stone to their country in 1906, seeing it as justification of the invasion of the Empire of Korea since the monument stated: "Japan crossed the sea in 391 to destroy Baekjan, □□, and Silla."





116. 광개토왕릉비탁본 부분
A Rubbed Copy of Gwanggaeto the Great Monument

117. 광개토왕릉비 탁본 1면
A Rubbed Copy of Gwanggaeto the Great Monument

The chronological collation of East Asia during Koguryo Dynasty

Ho-tae Jeon

	Koguryo	Shilla, Baekje, Gaya	East Asia
B.C.	<p>[B.C.82] Koguryo people extinguished Jinbeon-gun and Imdun-gun.</p> <p>[B.C.37] Jumong founded Koguryo in Jolbon.</p> <p>[B.C.36] Jumong annexed Biryu nation and named it as Damul-do.</p>	<p>[around B.C.194] Wi dynasty's Joseon was founded.</p> <p>[around B.C.190] Gojoseon incorporated Jinbeon and Imdun.</p> <p>[B.C.108] Wi dynasty's Joseon got out of existence by Chinese Han. Some part of the Gojoseon people survived from the war went down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p> <p>[B.C.57] Saro 6 clans installed Parkhyeo-kgeose as the first king to found Shilla.</p> <p>[B.C.18] Onjo founded Baekje in Wirye.</p>	<p>[B.C.221] Han was founded.</p> <p>[B.C.108] Han ruined Wi dynasty's Joseon and established commanderies there.</p> <p>[B.C.97] Sama Cheon of Han completed 'Annals'.</p> <p>[B.C.75] Han constructed Hyeonto fortress in Liaodong-gun.</p> <p>[B.C.2] Buddhism was introduced into Han from Daewolji nation.</p>
1st century	<p>[3] King Yuri moved the capital from Jolbon to Gungnae</p> <p>[22] King Daemushin attacked Buyeo and killed King Daeso.</p> <p>[56] King Taejo conquered East Okjeo.</p>	<p>[8] King Onjo of Baekje attacked Mahan and incorporated a part of Mahan into Baekje.</p> <p>[42] Suro founded Garak[Gumwan].</p> <p>[56] Kim Alji was born in Gyerim, Shilla.</p> <p>[85] King Garu of Baekje attacked Shilla.</p>	<p>[8] Sin(新) was established in China</p> <p>[23] Sin went out of existence.</p> <p>[25] Latter Han was founded and Emperor Gwangmu became the ruler.</p> <p>[57] Waeno nation(倭奴國) brought a tribute to Latter Han.</p>
2nd century	<p>[105] King Taejo, attacked Liaodong 6 hyeons of Latter Han</p> <p>[118] King Taejo, invaded Hyeonto-gun of Latter Han.</p> <p>[121] King Taejo, attacked Liaodong of latter Han.</p> <p>[146] King Chadae attacked Xian-ping of latter Han.</p> <p>[165] Myeonglimdambu killed King Chadae. King Sindae ascended the throne.</p> <p>[172] Myeonglimdambu defeated the army from Latter Han in Jwawon.</p> <p>[191] King Gogukcheon appointed Ulpaso as the prime minister of the country.</p> <p>[194] King Gogukcheon put into effect of Jindae law.</p> <p>[197] King Sansahng ascended the throne.</p> <p>[198] Koguryo built up Hwando fortress</p>	<p>[132] Baekje constructed Bukhansan (mountain) wall.</p> <p>[158] Shilla opened Jukryeong road.</p>	<p>[105] Chae Ryun of Latter Han put paper into practical use.</p> <p>[107] King Suseung(帥升) etc of Japan brought a tribute to Latter Han.</p> <p>[172] Gyeongrim, the lord of Hyeonto fortress of Latter Han assaulted Koguryo.</p> <p>[184] In Latter Han, the rebellion of yellow towel gangsters occurred.</p> <p>[196] Odumi Taoism was spread all over Latter Han[~215]</p>
3rd century	<p>[244] King Dongcheon was defeated by Gwangugeom, Yuju governor of Wei(魏), Hwando fortress was fallen.</p> <p>[259] Koguryo defeated the army from Wei in Yangmaekgok.</p> <p>[300] Prime minister Changjori dethroned King Bongshang and enthroned Ulbul(King Micheon).</p>	<p>[260] King Goi of Baekje put into effect the system of 6 Jwapyeongs(ministers) and 16 ranks of officials.</p> <p>[262] Isageum Michui ascended the throne in Shilla.</p> <p>[285] Wang In of Baekje delivered the book of one thousand chinese characters to Japan.</p>	<p>[208] Yu Bi and Jo Jo fought against each other in the great combat in Jeokbyeok.</p> <p>[205] Gongson Gang divided Nakrang-gun and established Daebang-gun in the southern part.</p> <p>[220] Latter Han went out of existence. Wei(魏) was established.</p> <p>[238] Wei extinguished Gongson clan.</p> <p>[239] Bimiho of Japan sent messengers to Wei.</p>

	Koguryo	Shilla, Baekje, Gaya	East Asia
3rd century		[298] King Chaekgye of Baekje was killed by Koguryo and Nangnang army.	[244] Gwangugeom, the governor of Yuju of Wei(魏) invaded Koguryo and attacked Hwando fortress. [245] Gwangugeom again invaded Koguryo. [266] Ilyeo of Japan brought a tribute to Chin(晋). [280] Chin ruined Oh(吳) and unified China.
4th century	[302] King Micheon attacked Hyeontogun. [313] King Micheon ruined Nangnanggun. [314] King Micheon ruined Daebanggun. [315] King Micheon attacked Hyeonto fortress. [335] Sin fortress were built. [342] Hwando fortress was fallen by the invasion of Former Yan. 50,000 prisoners were taken to Former Yan. [355] Koguryo brought a tribute to Former Yan. [357] Anak Tomb No. 3 was built up. [369] King Gogukwon attacked Baekje and was defeated in Chiyang combat. [371] King Gogukwon died in the battle to defend Pyeongyang castle and King Sosurim ascended the throne. [372] A messenger of Bugyeon, the king of Former Chin and Sundo, a monk arrived in Koguryo. [373] King Sosurim promulgated a statute. [391] Gwanggaeto the Great ascended the throne. 9 Buddhist temples were built up in Pyeongyang. [392] Gwanggaeto the Great captured 10 plus fortresses of Baekje. [395] Gwanggaeto the Great subjugated Biryeo. [396] Gwanggaeto the Great attacked Baekje and King Asin surrendered to Koguryo. [400] Gwanggaeto the Great rescued Shilla with an army of 50,000 soldiers, and kept an army stationed in Gumseong, Shilla.	[304] King Bunseo of Baekje was assassinated by an assassinator sent by Nangnang. [346] King Geunchogo ascended the throne in Baekje. Buyeoo was attacked by Former Yan and the king and 50,000 prisoners were taken to Former Yan. [356] Maripgan Naemul ascended the throne in Shilla. [371] Baekje moved the capital to Hansan. King Geunchogo and the prince Geungusu attacked Koguryo. Baekje sent chiljido to Japan. [375] Go Heung, a learned man in Baekje compiled Seogi. [382] Maripgan Naemul of Shilla sent a messenger to Former Chin(前秦). [384] A foreign monk(胡僧) Marananta came from East Chin to propagate Buddhism. [392] Shilla sent some hostages to Koguryo. [397] Baekje executed a friendship treaty with Japan and sent Prince Jeonji to Japan as a hostage [400] The allied army of Gaya and Japan besieged Guemseong of Shilla but failed in the attack. Garaguk castle fell to Koguryo army.	[316] West Chin(西晋) went out of existence and the times of 5 northern tribes and 16 nations began in northern China[~439] [317] East Chin(東晋) was established in Gangnam. [336] Murong Hwang of Seonbi tribe defeated his younger brother Murong, In. Dong Su and Song Hwang refuged to Koguryo. [337] Murong Hwang assumed the title of King Yan. [339~342] Former Yan attacked Koguryo and destroyed Hwando fortress. [351] Former Chin(前秦) was established. [353] The construction of Thousand Buddhist Cave began in Dunhuang. [370] Former Yan went out of existence. [372] Bugyeon, the king of Former Chin(前秦王) introduced Buddhism into Koguryo. [376] Former Chin(前秦) unified northern China. [383] Former Chin was defeated by East Chin in Bisu combat, northern China was again disunited. [400] Munong Seong, the King of Former Yan invaded Koguryo and attacked two fortresses. Sin fortress · Nam-so fortress.
5th century	[404] Gwanggaeto the Great attacked Latter Yan. He annihilated the allied army of Baekje and Japan. [408] Deakhungri Mural Tomb was constructed.	[402] Shilla executed a friendship treaty with Japan and sent Misaheun as a hostage. [417] In Shilla, Maripgan Silseong was killed and Maripgan Nulji ascended the	[413] The king of Japan visited the Royal Palace of East Chin. [420] East Chin went out of existence. Song(宋) was established.

	Koguryo	Shilla, Baekje, Gaya	East Asia
5th century	<p>[410] Gwanggaeto the Great conquered East Buyeo.</p> <p>[413] Gwanggaeto the Great died and King Jangsu ascended the throne.</p> <p>[414] The monument for Gwanggaeto the Great was erected.</p> <p>[427] King Jangsu moved the capital to Pyeongyang.</p> <p>[436] Koguryo army went into Yong castle of Northern Yan and came back with a refugee caravan.</p> <p>[438] King Jangsu refused the request of Southern Dynasty Song to send back Pung Heung, the king of Northern Yan and killed him.</p> <p>[450] King Jangsu sent an army to borderline, Shilla for the reason of the murder of Koguryo general.</p> <p>[468] King Jangsu attacked Siljik fortress of Shilla with an army of 10,000 sildiers from Mohe.</p> <p>[475] King Jangsu subjugated Han fortress of Baekje and killed King Gaero</p> <p>[around 480] King Jangsu erected Jungwon Koguryo monument.</p> <p>[484] Koguryo army was defeated by the allied forces of Shilla-Baekje in Mosan castle.</p> <p>[494] King Munjameong took in the royal family of Buyeo attacked by Mulgil.</p> <p>[495] Koguryo army besieged Chi-yang fortress of Baekje but withdrew due to the intervention of Shilla army.</p> <p>[496] Koguryo army attacked Wusan fortress of Shilla but was defeated by Shilla army.</p>	<p>throne.</p> <p>[418] Park, Je-sang of Shilla caused the hostages from Shilla in Koguryo and Japan to escape.</p> <p>[433] Baekje and Shilla formed an alliance.</p> <p>[450] The governon of Haseula of Shilla killed general of Koguryo.</p> <p>[458] Baekje requested Song to release (賜除) 11 nobles.</p> <p>[470] Shilla constructed samnyeon fortress.</p> <p>[472] Baekje requested Wei(魏) to attack Koguryo.</p> <p>[475] In Baekje, King Munju ascended the throne after the fall of Han castle and moved the capital to Wongjin.</p> <p>[477] In Baekje, military Jwapyeong (minister) Haegu killed King Munju and enthroned King Sangeun.</p> <p>[479] Haji, the king of Garak brought a tribute to Qi(齊).</p> <p>[487] In Shilla, Maripgan Soji built up a new palace in Naeul.</p> <p>[498] King Dongseong of Baekje incorporated Tamra nation.</p>	<p>[421, 425] Chan, the king of Japan visited the Royal Palace of Song.</p> <p>[430] The king of Japan visited the Royal Palace of Song</p> <p>[436] Northern Yan went out of existence, Pung Heung, the king of Northern Yan and his party refuged to Koguryeo.</p> <p>[438] Jin, the king of Japan visited the Royal Palace of Song.</p> <p>[439] Northern Wei(魏), ruined Latter Yang and unified northern China, the time of South and North Dynasties began.</p> <p>[463~476] Mu(武), the king of Japan visited the Royal Palace of Song.</p> <p>[468] Wei(魏) attacked Song.</p> <p>[478] Mu(武), the king of Japan sent a memorial to Song advising the intention to conquer Koguryo.</p> <p>[479] Song went out of existence and Qi(齊) was established. Mu(武), the king of Japan visited the Royal Palace of Qi.</p>
6th century	<p>[537] Koguryo repelled the invasion of Turks.</p> <p>[548] Koguryo attacked Baekje but Shilla rescued Baekje.</p> <p>[551] Koguryo was deprived of the basin of the Han river by Shilla and Baekje.</p> <p>[554] King Yangwon attacked Wungcheon fortress of Baekje.</p> <p>[586] King Pyeongwon moved the palace to Jangan castle.</p> <p>[590] General Ondal died in the battle</p>	<p>[501] King Dongseong of Baekje was assassinated and King Muryeong ascended the throne.</p> <p>[502] Maripgan Jijeung of Shilla prohibited the burial of living persons with the dead.</p> <p>[503] Maripgan Jijeung of Shilla named the country as Shilla and used the tile of king. King Muryeong of Baekje sent messengers to Japan.</p> <p>[512] General Isabu of Shilla conquered Wusan nation.</p> <p>[514] In Shilla, King Jijeung died and King Beopheung ascended the throne.</p>	<p>[534] Northern Wei went out of existence and Eastern Wei(東魏) was established.</p> <p>[535] Western Wei(西魏) was established.</p> <p>[538] Japan was introduced to Buddhism by King Seong of Baekje.</p> <p>[550] Eastern Wei went out of existence and Northern Qi was established.</p> <p>[557] Yang(梁) went out of existence and Chin(陳) was established.</p> <p>[587] In Japan, Soamaja[蘇我馬子] attacked Mulbu family[物部氏].</p>

	Koguryo	Shilla, Baekje, Gaya	East Asia
6th century	<p>in Adan fortress. [598] Koguryo army attacked Yoseo of Sui(隋) together with Malgal army</p>	<p>[520] King Beopheung of Shilla pronounced a statute. [521] King Muryeong sent messengers to Yang and informed them that Baekje became a strong country again. [523] In Baekje, King Muryeong died and King Seong ascended the throne. [525] In Baekje,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was constructed. [527] King Beopheung of Shilla officially recognized Buddhism. [532] Geumgwangaya surrendered to Shilla. [536] King Beopheung of Shilla established a reign-title and called the year as the first year of Geonwon. [538] King Seong of Baekje moved the capital to Sabi and made the name of the country as Nambuyo. [540] In Shilla, King Jinheung ascended the throne. [541] Baekje sent messengers to Yang(梁) and requested for Buddhism books(佛書) · artisans(工匠) · painters(畫師). [554] King Seong died in battle near Gwansan fortress of Shilla. [562] Shilla ruined Daegaya. Gaya imperial(諸國) went out of existence. [591] Shilla constructed Namsan new fortress. [599] King Beop of Baekje prohibited killing of living things.</p>	<p>[589] Sui(隋) unified China. [592] In Japan, Soamaja killed Emperor Sungjun. Emperor ascended the throne.</p>
7th century	<p>[610] Dam Jing transferred the technologies for paper, ink stick etc and drew the murals of Horyu temple. [612] Uljimdeok annihilated the army of Sui[隋兵] at Salsu [631] The thousand ri great wall began to be constructed(~646) [638] Koguryo, destroyed Chiljung fortress of Shilla [642] Yeon Gaesomun killed King Yeongryu and enthroned Bojang, a nephew of the king. [647] Koguryo repelled the 2nd invasion of Tang. [648] Koguryo repelled the 3rd invasion of Tang.</p>	<p>[607] Baekje requested Sui to attack Koguryo. [608] Shilla requested Sui to attack Koguryo. [616] Baekje attacked Mosan fortress of Shilla. [621] Shilla entered into formal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629] Kim, Yu-sin, a general of Shilla destroyed Nangbi fortress of Koguryo. [632] In Shilla, Queen Seondeok ascended the throne. Baekje attacked Shilla. [642] King Euija of Baekje destroyed Daeya fortress of Shilla and captured a little more than 40 fortresses. Kim, Choon-choo requested Koguryo to send an army but it was refused. [647] In Shilla, the rebellion of Bidam and Yeomjong occurred. [648] Shilla requested Tang for a relieving force. [650] Shilla used the reign-title of Tang.</p>	<p>[604] In Sui(隋), Emperor Yangje ascended the throne. Prince Seongdeok of Japan made the constitution with 17 clauses. [607] Japan dispatched officials to see Sui[遣隋使]. [613] Emperor Yangje of Sui prepared to invade Koguryo again but failed to invade. [614] Sui failed in 3rd invasion into Koguryo. [618] Sui(隋) went out of existence and Tang was established. [628] Tang unified China. [637] Tang established Jeonggan statute. [645] Tang failed in the attack over Ansi fortress of Koguryo. Hyeonjang wrote Daedangseoyeokgi. In Japan, Taika reformation occurred. [647] Tang attacked Koguryo in 2 ways, through the roads and through</p>

	Koguryo	Shilla, Baekje, Gaya	East Asia
7th century	<p>[662] Yeon Gaesomun defeated Tang's army causing them a great damage at Salsu.</p> <p>[666] Yeon Gaesomun died and Namsaeng became Daemakriji (the prime minister).</p> <p>[668] Pyeongyang castle fell to the allied army of Shilla and Tang and Koguryo went out of existence. King Bojang, ministers and people were taken to Tang as prisoners.</p> <p>[668~] The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Koguryo began in many places.</p> <p>[699] Dae Joyeong, the founder of Balhae defeated Tang's army in Cheonmunryeong combat and pronounced the foundation of Jin nation.</p>	<p>[654] In Shilla, Kim, Choon-choo ascended the throne as King Taejong Muyeol.</p> <p>[655] Kim, Yu-sin of Shilla attacked Dobicheon fortress of Baekje and requested Tang for an aiding force.</p> <p>[660] Baekje was defeated by the allied force of Shilla and Tang and went out of existence. King Euija and people were taken to Tang as prisoners.</p> <p>[661] In Shilla, King Munmu ascended the throne.</p> <p>[663] The movement to restore Baekje failed due to internal strifes. Some part of the army for restoration refuted to Japan.</p> <p>[670] The war between Shilla and Tang began.</p> <p>[675] Shilla expanded its boundary to the southern end of Koguryo and established ju and guns in the land of former Baekje.</p> <p>[676] Shilla repelled Tang's army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Daedong river and finished the war to unite 3 countries.</p> <p>[679] Shilla attacked Tamra nation.</p>	<p>the sea.</p> <p>[651] Tang established Yeonghui statute.</p> <p>[660] Tang ruined Baekje and established Wungjin governor's office.</p> <p>[661] So, Jeong-bang of Tang besieged Pyeongyang castle of Koguryo.</p> <p>[663] Japan's relieving force for Baekje was defeated in the Baekcheon river combat.</p> <p>[668] Tang ruined Koguryo and established Andong governor's office in Pyeongyang.</p> <p>[672] In Japan, the rebellion of Imsin occurred.</p> <p>[682] Turks restored their imperial.</p> <p>[690] In Tang, Cheukcheonmuho ascended the throne and named the country as Zhou.</p> <p>[700] In Japan, Daebo statute was established.</p>

Figure List

—

그림 목록

고구려 역사 개관

Outline of Koguryo History

- 지도1. 성립과 성장(Foundation & Growth)
- 지도2. 3세기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 in 3rd Century C. E.)
- 지도3. 전성기(Expansion)
- 지도4. 5세기 동아시아(East Asia in 5rd Century C. E.)
- 지도5. 고구려 · 당의 전쟁(War with Chinese Tang)
- 지도6. 7세기 동아시아(East Asia in 7th Century C. E.)
- 그림1. 산성하고분군 전경(Sanseongha Tombs)
- 그림2. 천추총(Cheonchuchong)
- 그림3. 광개토왕릉비(Gwanggaeto the Great Monument)
- 그림4. 백암성(Baekam Fortress)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Life and Culture of Koguryo People

1. 창기병(안악3호분) Armored Cavalry(Anak Tomb No. 3)
2. 궁수병과 부월수병, 도수병(안악3호분) Archers & Battle-ax soldiers, sworded soldiers(Anak Tomb No. 3)
3. 창기병(안악3호분) Armored Cavalry (Anak Tomb No. 3)
4. 철기행렬(덕흥리벽화분) Armored Cavalry Procession(Deokhungri Mural Tomb)
5. 공성(모사도, 삼실총) Fortress Attack(Replica, Samsilchong)
6. 오녀산성(Onyeo Fortress)
7. 백암성(Baekam Fortress)
8. 장군총(Janggunchong)
9. 돌무지무덤(Stone Mound Tomb)
10. 동명왕릉(Mausoleum of Dongmyeong the Great)
11. 강서대묘(Gangseo Daemyo)
12. 집안 칠성산고분군(Chilseongsan Tombs in Jian)
13. 유주13군태수배례(덕흥리벽화분) County Governors' Salutation(Deokhungri Mural Tomb)
14. 무덤주인부부(모사도, 각저총) Tomb Owner & his Wives(Replica, Gakjeochong)
15. 무덤주인부부의 나들이(수산리벽화분) Picnic of Aristocrat Couple(Susanri Mural Tomb)
16. 전각(안악1호분) Mansion(Anak Tomb No. 1)
17. 부엌(안악3호분) Kitchen(Anak Tomb No. 3)
18. 고깃간(안악3호분) Meat Store House(Anak Tomb No. 3)
19. 차고(안악3호분) Carriage Shed(Anak Tomb No. 3)
20. 우물(안악3호분) Well(Anak Tomb No. 3)
21. 방아간(안악3호분) Mill(Anak Tomb No. 3)
22. 외양간(안악3호분) Cow-shed(Anak Tomb No. 3)
23. 마구간(안악3호분) Stable(Anak Tomb No. 3)
24. 남자(삼실총) Man(Samsilchong)
25. 남자(덕흥리벽화분) Men(Deokhungri Mural Tomb)
26. 남자(수산리벽화분) Men(Susanri Mural Tomb)
27. 여자(수산리벽화분) Woman(Susanri Mural Tomb)
28. 여자(삼실총) Woman(Samsilchong)
29. 여자(덕흥리벽화분) Women(Deokhungri Mural Tomb)
30. 책(덕흥리벽화분) Chaek(Deokhungri Mural Tomb)
31. 책(안악3호분) Chaek(Anak Tomb No. 3)
32. 절풍(모사도, 무용총) Jeolpung(Replica, Muyongchong)
33. 절풍(삼실총) Jeolpung(Samsilchong)
34. 두건(덕흥리벽화분) A Hempen Hood(Deokhungri Mural Tomb)
35. 투구(삼실총) Helmet(Samsilchong)
36. 투구(안악2호분) Helmet(Anak Tomb No. 2)
37. 상투(삼실총) A Topknot(Samsilchong)
38. 건괭(삼실총) Geongwick(Samsilchong)
39. 고리튼머리(안악3호분) Gori teun Meori(Anak Tomb No. 3)
40. 올린머리(삼실총) Olin Meori(Samsilchong)
41. 내린머리(무용총) Naerin Meori Hair Style(Muyongchong)
42. 목간가죽신(수렵총) Shoes Stretched to the Ankles (Suryeopchong)
43. 흰신발(덕흥리벽화분) White Shoes(Deokhungri Mural Tomb)
44. 각반찬신발(수산리벽화분) Shoes with Gattered Legs(Susanri Mural Tomb)
45. 코높은신발(오회분4호묘) Shoes with Unique Tips(Ohoebun Tomb No.4)
46. 음식상나르기(모사도, 무용총) Delivering the Dishes(Replica, Muyongchong)
47. 상차림(모사도, 각저총) Setting the Tables(Replica, Gakjeochong)
48. 곡예(수산리벽화분) Circus(Susanri Mural Tomb)

49. 곡예(장천1호분) Circus(Jangcheon Tomb No. 1)
50. 춤(모사도, 무용총) Dancing(Replica, Muyongchong)
51. 춤(장천1호분) Dancing(Jangcheon Tomb No. 1)
52. 춤(복원도, 무용총) Dancing(Reconstruction, Muyongchong)
53. 무용수와 반주자(복원도, 장천1호분)
A Dancer & a Musician(Reconstruction, Jangcheon Tomb No. 1)
54. 멜북(덕흥리벽화분) Drum(Deokhungri Mural Tomb)
55. 멜북(수산리벽화분) Drum(Susanri Mural Tomb)
56. 말북(안악3호분) Drum(Anak Tomb No. 3)
57. 쇠북, 종(안악3호분) Yoh, Jung(Anak Tomb No. 3)
58. 뿔나팔(안악3호분) Horn Trumpet(Anak Tomb No. 3)
59. 뿔나팔(덕흥리벽화분) Horn Trumpet(Deokhungri Mural Tomb)
60. 뿔나팔(삼실총) Horn Trumpet(Samsilchong)
61. 소(안악3호분) So(Anak Tomb No. 3)
62. 완함(삼실총) Wanham(Samsilchong)
63. 완함(덕흥리벽화분) Wanham(Deokhungri Mural Tomb)
64. 거문고(무용총) Geomungo(Muyongchong)
65. 장고(오회분4호묘) Janggu(Ohoebun Tomb No. 4)
66. 고취악대(안악3호분) A Brass Band(Anak Tomb No. 3)
67. 사냥(덕흥리벽화분) Hunting(Deokhungri Mural Tomb)
68. 사냥(모사도, 무용총) Hunting(Replica, Muyongchong)
69. 씨름(각저총) Ssireum(Korean Wrestling, Gakjeochong)
70. 씨름(장천1호분) Ssireum(Korean Wrestling, Jangcheon Tomb No. 1)
71. 수박희(안악3호분) Subakhee(Anak Tomb No. 3)
72. 수박희(무용총) Subakhee(Muyongchong)
73. 우차(안악3호분) A Cow-driven Carriage(Anak Tomb No. 3)
74. 우차(덕흥리벽화분) A Cow-driven Carriage(Deokhungri Mural Tomb)
75. 해신 · 달신(오회분4호묘)
A God of Sun & A God of Moon(Ohoebun Tomb No. 4)
76. 농신 · 불신(오회분5호묘)
A God of Fire & A God of Agriculture(Ohoebun Tomb No. 5)
77. 수레바퀴신(오회분4호묘) A God of Wheel(Ohoebun Tomb No. 4)
78. 쇠부리신(오회분4호묘) A God of Blacksmith(Ohoebun Tomb No. 4)
79. 숫돌신(오회분4호묘) A God of Whetstone(Ohoebun Tomb No. 4)
80. 만세(덕흥리벽화분) Manse(Deokhungri Mural Tomb)
81. 천추(무용총) Cheonchu(Muyongchong)
82. 길리(덕흥리벽화분) Gilri(Deokhungri Mural Tomb)
83. 서조(강서대묘) An Auspicious Bird(Gangseo Daemyo)
84. 박위(덕흥리벽화분) Bakwi(Deokhungri Mural Tomb)
85. 기린(안악1호분) Girin(Anak Tomb No. 1)
86. 기린(무용총) Girin(Muyongchong)
87. 천록(삼실총) A Heaven Deer(Samsilchong)
88. 사람머리짐승(안악1호분) A man-headed Animal(Anak Tomb No. 1)
89. 비어(덕흥리벽화분) A Flying Fish(Deokhungri Mural Tomb)
90. 천마(덕흥리벽화분) A Heavenly Horse(Deokhungri Mural Tomb)
91. 불새(덕흥리벽화분) Phoenix(Deokhungri Mural Tomb)
92. 예배(장천1호분) Worship(Jangcheon Tomb No. 1)
93. 공양(안악2호분) Offering(Anak Tomb No. 2)
94. 하늘(안악3호분) Heaven(Anak Tomb No. 3)
95. 하늘(안악2호분) Heaven(Anak Tomb No. 2)
96. 하늘(쌍영총) Heaven(Ssangyeongchong)
97. 하늘(강서중묘) Heaven(Gangseo Jungmyo)
98. 연화화생(삼실총) Lotus Metamorphosis(Samsilchong)
99. 연화화생(삼실총) Lotus Metamorphosis(Samsilchong)
100. 연화화생(장천1호분) Lotus Metamorphosis(Jangcheon Tomb No. 1)
101. 연화화생(진파리1호분) Lotus Metamorphosis(Jinpari Tomb No. 1)
102. 연못(덕흥리벽화분) Lotus Pond(Deokhungri Mural Tomb)
103. 주작(강서대묘) Red Phoenixes(Gangseo Daemyo)
104. 청룡(강서대묘) Blue Dragon(Gangseo Daemyo)
105. 백호(강서대묘) White Tiger(Gangseo Daemyo)
106. 현무(강서대묘) Black Tortoise & Serpent(Gangseo Daemyo)
107. 황룡(강서대묘) Yellow Dragon(Gangseo Daemyo)
108. 해(쌍영총) Sun(Ssangyeongchong)
109. 해(오회분4호묘) Sun(Ohoebun Tomb No. 4)
110. 달(쌍영총) Moon(Ssangyeongchong)
111. 달(덕흥리벽화분) Moon(Deokhungri Mural Tomb)
112. 28수(진파리4호분) 28 Constellations(Jinpari Tomb No. 4)
113. 북두칠성(덕화리1호분) Ursa Major(Deokhwari Tomb No. 1)
114. 덕흥리벽화분별자리 복원도
Reconstruction of Constellations of Deokhungri Mural Tomb
115. 천상열차분야지도 복원도
Reconstruction of Cheonsangyeolcha-bunyajido(Constellations Chart Map)
116. 광개토왕릉비탁본 부분 A Rubbed Copy of Gwanggaeto the Great Monument
117. 광개토왕릉비탁본 1면 A Rubbed Copy of Gwanggaeto the Great Monument

Koguryo Exhibition Curator
Ho-tae Jeon(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Sponsored b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e of Culture, Art & Tourism

Korea Culture & Contents Agency

article figure 1, 4
explanation figure 1, 6, 7, 9~12, 17, 20~22, 26, 28, 30,
34, 40, 43, 54, 56~59, 61, 63, 66, 71, 73, 83, 101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xplanation figure 116, 117
by National Museum of Korea.

explanation figure 2~5, 13~16, 18, 19, 23~25, 27, 29,
31~33, 35~39, 41, 42, 44~53, 55, 60, 62, 64, 65, 67~70,
72, 74~100, 102~113
b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stitute of Culture, Art & Tourism

article figure 2
explanation figure 8
by Jong-taik Choi(Professor, Korea University)

explanation figure 114, 115
by Il-kwon Kim(Research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chronological collation & Historical Maps
by Ho-tae Jeon(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고구려(Koguryo, The Origin of Korean Power & Pride)

초판 1쇄 인쇄 2007년 5월 2일

초판 1쇄 발행 2007년 5월 7일

편 찬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집 필 전호태(울산대학교 교수)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11~12층
전 화 02-2012-6000
팩 스 02-2012-6180

ISBN 978-89-91448-83-4-0398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2007 by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No portion of the contents may be reproduced in any from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